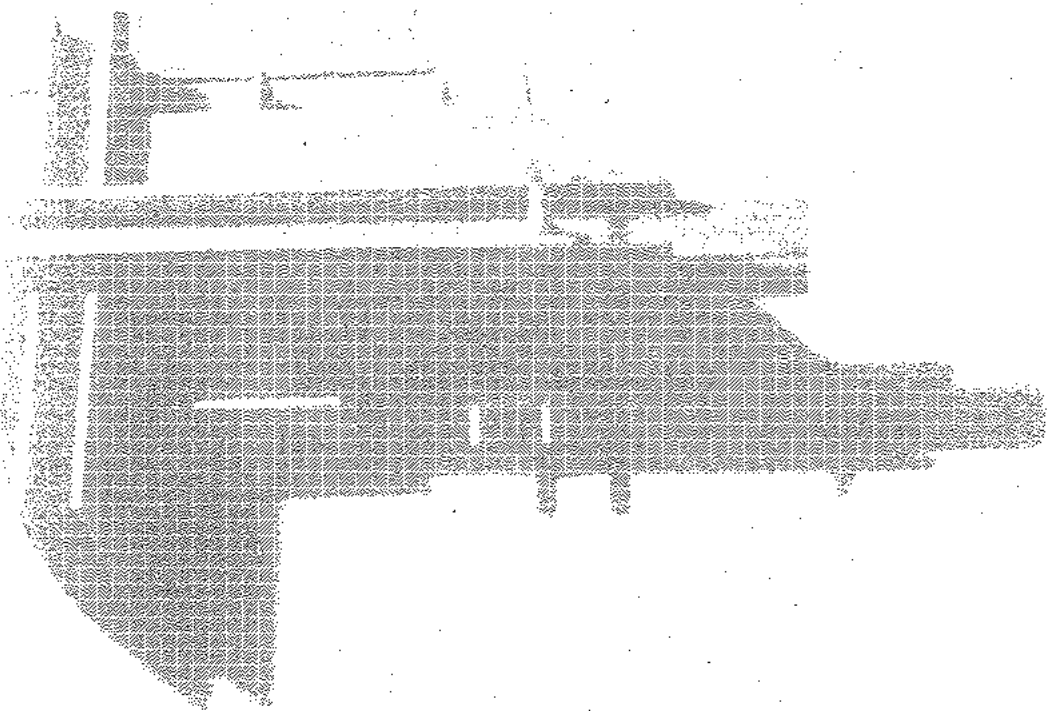


建築

10

KAA JOURNAL 1970



吉元

化成工業株

別市中心区太平路2

④ 2281~5 営業面

⑤ 5221~9



대한건축사협회지

뛰어난 断熱効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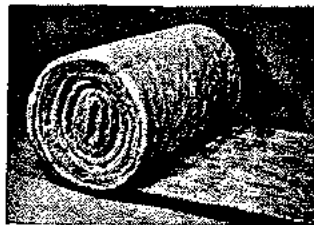
h한일화이버그라스

◆ 先進各國에서 화이버그라스는 断熱材의 대명사로 되어있습니다.

화이버그라스는 발명특허에 빛나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섬유입니다.

「뛰어난 保温, 保冷材」 「가볍고 시공이 간단한」 「타지않는 건축자재」로서 국내 최대의 납품실적을 자랑하는 **한일 화이버-그라스**

어느 断熱材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국제수준을 능가한 한일 화이버그라스는 그 「우수한 품질」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에게 최대의 만족을 드릴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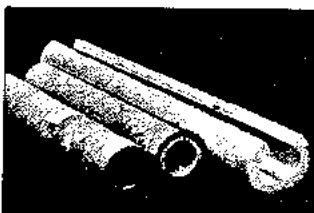
인슈레이션 매트

특성

- ① 단열성이 우수하다.
- ② 吸音, 防音
- ③ 불에타지 않는다.
- ④ 가볍고 탄력성이크다.
- ⑤ 시공이 간단하다.

용도

- ① 건축물에
- ② 공장건물에
- ③ 선박에
- ④ 자동차, 철도차량에
- ⑤ 전기냉장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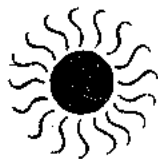
파이프 카바 -

설비용 pipe 의 保温, 保冷用으로 단열 효과가 우수하고 시공이 간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어느 保温材보다도 熱伝導率이 적어서 연료의 절약, 원가의 절감으로 매우 경제적이다.

h한일유리섬유공업주식회사
HANIL FIBER GLASS INDUSTRY CO., LTD.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동 2가269-11, 중앙사서함952호

Tel : 53-5479, 53-2555, 23-4088, 23-4089



따스함이 그리운 季節!

현대인의 문화주택 · 벨팅 · 공장등...
귀하께서는.....

가장 이상적인 난방시설에 있어서
보일러의 선택이 중요하겠습니다

● 놀라운 성능 · 연료비 절감 · 영구적인 수명

輸入完製品

미국 유리카 자동보일러

미국 ABC 자동오일버나

■ 설치에서 애프터 서비스까지 완전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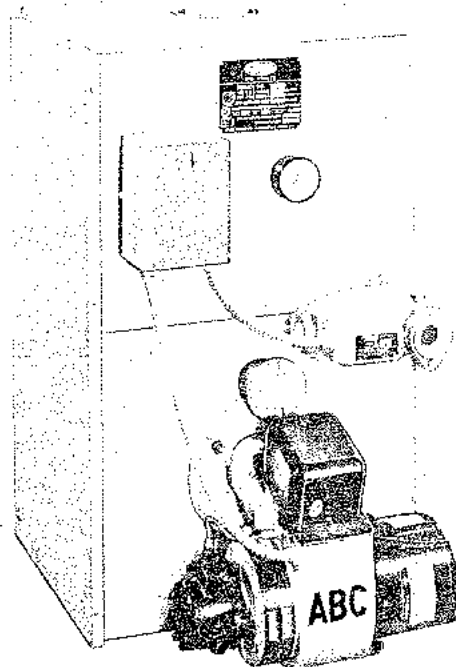


한국총대리점

三成設備工業株式會社

서울 을지로 2 가 163-5 (동양빌딩 6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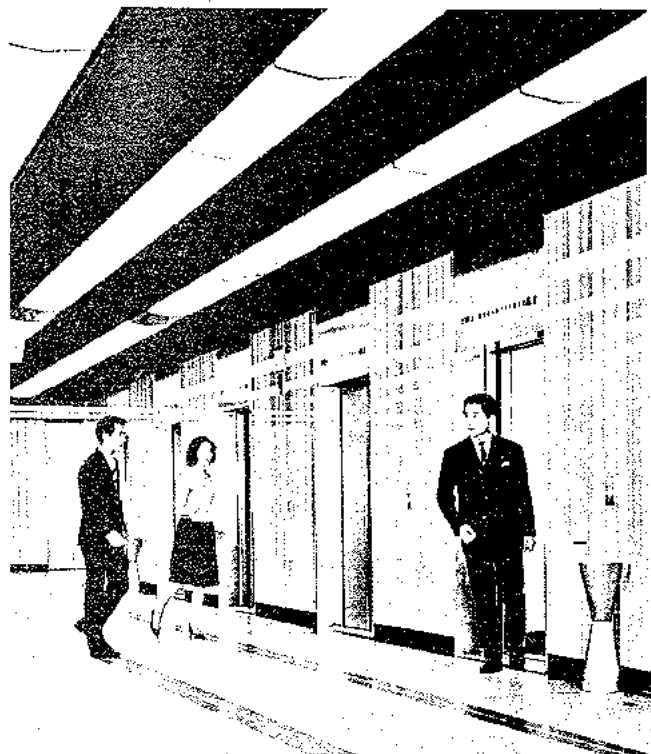
전화문의는 ☎ 9696 · 9697 · 9698





조국근대화와 번영의 상징

고층건물의 고속도로! 금성 에레베이터



5 S 특성의 금성 에레베이터를 타보셨습니까? 빠릅니다. 안전합니다. 조용합니다. — 제각과 설치, 설치후에도 금성 기술진의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가 보장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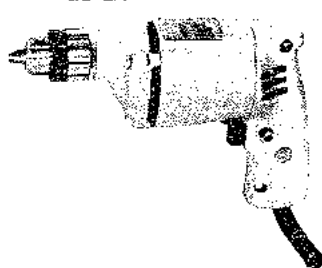
HITACHI 기술 협력으로 제작되는 금성 에레베이터, 에스카레이터를 선택할 분은 알고 있습니다.

고층건물의 고속도로 5 S 금성 에레베이터

- 5 S 란 —
- SPEED (획기적인 초고속)
 - STABILITY (안정된 속도 제어)
 - SERVICE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
 - SAFETY (높은 신뢰도)
 - SILENCE (정숙한 운전)

국내최초로 전동공구 생산개시

DP-650IS
HITACHI MODEL
LU-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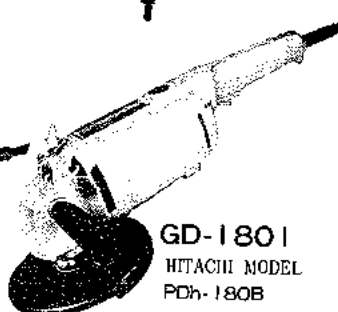
DP-130I
HITACHI MODEL
BU-PN3



DP-650IH
HITACHI MODEL
LUH-DH2



GD-180I
HITACHI MODEL
PDh-180B



금성은 일본 HITACHI의 기술 협력으로 국내 최초로 드릴 및 그라인다 등 전동공구를 생산하여 공업기계 생산업체의 작업능률을 15배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 전국 전동공구상에서 취급합니다.

연락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45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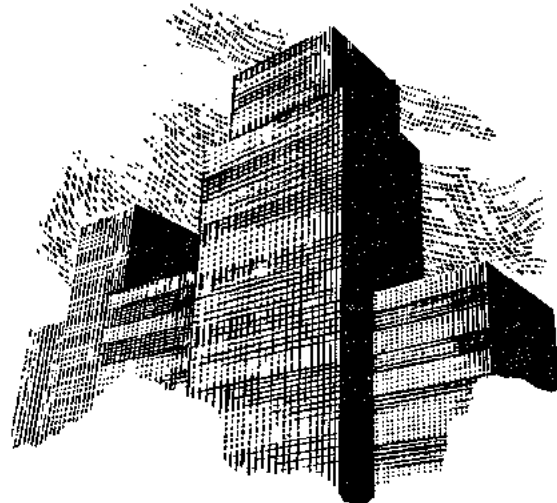
주식회사 금성사 전기사업부 특판과
(745151, 6151 (구내) 368, 386

부산직할시 동래구 온천동 707

특판과 주재원 (5) 0151 ~ 5



주식회사 금성사
Gold Star Co., Ltd.



現代建築 內裝의 3大 課題—
방음·방습·보온을 완전 해결한

三榮 하-드보-드

무늬보-드

立体的이어 아름답고 濕氣와 소음을 防止하며
쥐가 棲息치 못하는 가장 새로운 建築 內裝材.

프린트 보-드

하-드보-드 表面에 優雅하게 塗裝된 國內最初
의 新製品으로 우수한 高級內裝材.

吸音板

木材 纖維로 製造된 國內唯一의 斷熱吸音 材로써
防音이 完全하며 절대휘거나 뒤들리지 않는 天井
用 內裝材.



三榮하-드보-드工業株式會社

서울사무소 : ☎ 26-3201-5 서울總販 ☎ 52-3006-7
서울特別市中區乙支路3街296



표시허가 제374호
5C-650방열기
표시허가 제420호
관이음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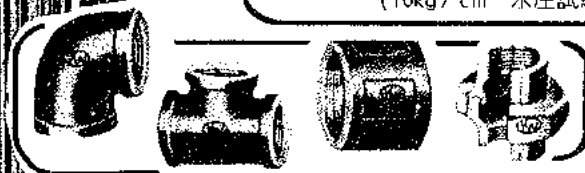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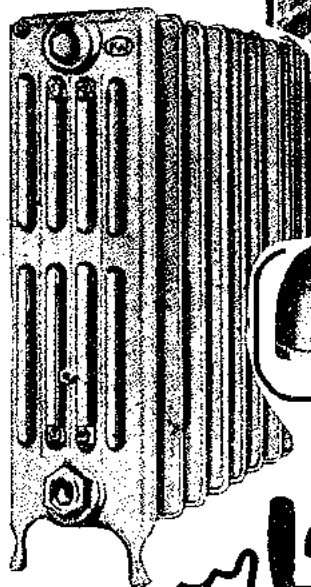


기술의 상징
KANGWON BRAND

강원 라지에타
콘 벡 타
관이음쇠

- 5C-650 RADIATOR
- 5C-500 RADIATOR
- WALL RADIATOR W-7B
($5\text{kg}/\text{cm}^2$ 水压試驗合格品)
- CONVECTOR
- PIPE FITTINGS
($10\text{kg}/\text{cm}^2$ 水压試驗合格品)

暖房・配管用生産品種



國內 最大規模의 量産体制로서
여러분께 奉仕하고 있습니다.

【兼營業種】

江原製作所・江原炭砒・三票煉炭
三票石油・三票骨材・三江運輸

江原産業株式会社

本社 서울特別市鍾路区新門路二街6 營業部(直) 73-5514
TEL. 75-2381~5

KAA JOURNAL

건축사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ARCHITECTS

1970

10

목 차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 26 호
구입년월일	1980. 10월 18일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지부	

건축사 협회는 과당성 있는 채질개선이 필요하다	6	강 명구
건축사편집10 개월	9	한 창진
외국 건축가 ① 아르네 · 야곱센	11	
회원작품	22	
문씨주택		안 영배 건축연구소
K씨주택		동화건축 연구소
C씨주택		삼육건축 연구소
K씨주택		연희건축 연구소
젊은 건축가의 집		강 영길
1970 A I A 수상작품	42	
건축법 해설	58	박 우하
앙케이트를 받고의 소신	63	강 명구
협회기사 · 회원동정	64	

편찬위원장 한 창진

편 찬 위 원 정 인국, 유 경철, 어 정덕, 최 창규, 라 상진, 한 정섭, 이 해성, 박 고석
강 명구, 김 석철.

■ 발행소 / 대한건축사협회 / 서울특별시서울지로 1가25번지 정양빌딩601호실 / 전화 28-9802 · 22-2617
■ 발행인겸편집인 / 강명구 ■ 인쇄처 / 대한공문사 ■ 등록일자1967년 3월23일 ■등록번호/1970년1
월 8일 ■ 등록번호 / (제라-1251) ■ 인쇄 / 1970년10월18일 ■ 발행 / 1970년10월18일 ■ 월간
■ 인쇄주와 / 한은우교사집1955호



建築士協會는 果斷性있는 體質改善이 必要하다

會長 姜 明 求

近一年有餘를 協會運營에만 몸담아오며 여러가지 그 동안에 겪고 느끼고, 부락드려야 할 점을 회원 여러분께 솔직히 까놓고 말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建築士協會 會長이 되기 오래 전부터 建築士協會의 여러가지 不協和音과 雜音을 먼소리모만 느껴지던 일들이 우선 무엇보다 먼저 建築士協會의 내적인 體質改善이라는 큰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몇몇 理事와 이러한 큰 과제를 목표로 정열적으로 一年間 씨름을 한 결과는 단지 비관적인 사실 뿐이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協會는 비단 建築士協會뿐만은 아닙니다. 化粧品協會 商產協會 등등 모든 분야에 다 제 나름대로의 協會를 중심으로 發展하며 자라나고 있으며 建築만 하더라도 建築士協會를 위시하여 建築學會, 建築家協會等 三個團體 中에서도 建築士協會 總會하면 유명하리만큼 소란한 總會, 雜音 많은 회보 自他가 認知하던 事實을 想起하실것입니다. 제가 회장으로 選任된후 여러 親知와 同業先任輩는 물론 심지어는 先任會長님까지 왜 그 말썽 많고 소란한 建築社協會 會長을 말노라는 근심으로 나를 아끼는 忠告와 厚意를 選任 投票 해주신 분들의 數만큼 여러분에게서 들었습니다. 양측에 모두 다 감사한 마음 금할 바를 모르면서도 저는 제 나름대로의 마음으로 여지껏 五〇평생을 한국에서 建築設計만으로 다채롭고 평온한 일생을 지내온 보답으로 우리나라 建築士를 위하여 그 힘하다는 建築士協會의 일선에 나아가 복무함으로써 내가 입은 은덕에 봉사해야 하겠다는 의무감으로만 고생이 되

드라도 改善的 成果를 향해야겠다는 결심으로 지금껏 변함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실제로 協會 운영면에서의 경향이 없었던 탓인지 모르지만 세일 먼저 부딪친 애로가 공개장 사건이고, 저의 개인 세금 뒷조사의 회람, 그 다음이 建設部 인준방해 등으로, 약 2개월여를 지내는 동안 저는 회장 취임에 대한 결심을 더한층 굳히게 되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느낀점이 우리들 建築士 또는 건축가들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봉인 협회인태도 불구하고, 마치 司法士協會나 會計士協會같은 딱딱한 인상을 완고하게 지니고 있던 집입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은 技術者일 뿐 아니라 藝術家이고, 부드럽고 순수하며, 또 남에게 봉사하는 職業人으로 知性이 높고 까다로운 일을 싫어하는 浪漫人으로만 자부하고 살아오던 것이 마치 학회 회장이 되어보니 法院이나 세무서에 갇혀 앉아 會議를 거듭하고, 또 많은 時間의 浪費와 성과없는 法理論만으로 오랜 시일을 운영해 오던 잔영에 악몽같은 형오와 個的인 利害, 상호의 排와 상호비방, 개인적 공명의 경쟁심의 선수들이 선출되고 모여앉아 運營되었고 또 그 血統을 이어받으며 運營되었다는 점을 뼈아프게 느껴가며 지금까지 싸움하사시의 안간힘을 쓰며 몇 理事만의 合力으로 시정에 노력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은 理事會의 不參, 또는 불협조, 서류결재의 拒否 내지 사보타-지 기타 술수로 總會에서의 選出된 權限行勢만이지 義務의 不履行이고 會員에게 奉仕는 고사하고 오히려 5년이 되도록 성과없는 協會의 運營과 會員間에 不信을 助長하였고 社會的인 不信마저 남기게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總會에서는 되는 많은 말발이나 서는 사람과 술이나 먹고 떠들썩하게 하여 建築士全般에 끼치는 影響이 어쨌든 建築士의 인격과, 設計業의 경력

이 여하튼 역원물망에 먼저 오르고, 동분이라 하여 역원에 선임되고, 하던 따위의 소위총회꾼 또는 協會꾼, 設計業은 부업이고 協會가 本業인 似而非建築士 등등의 협회운영을 허용한 회원들의 무성의가 현재까지의 우리들 建築士協會의 잡음의 震源的 요소이었다는 점을 우선 시정 하여야 하겠읍니다.

이 協會꾼들은 전력을 다하여 협회역원에 또는 支部長이 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공공연히 합니다. 다행히 역원이나 이사에 被任되면 協會를 발전시킨다는 美名아래 協會를 맡고 자기이익, 자기이권을 추구하는데 혈안이 되고 자기 역임을 위하여 會員을 포섭하고, 協會內에서의 모든 重要한 機密까지 協會의 運營支障도 不拘하고 팔고다니며 자기 개인의 공로를 선전하고 會員 또는 地方支部의 不當한 運營을 묵인하며, 시정·향상을 指示 교정할 의무대신 자기 역임 운동과 바터하며 協會 本部에 대한 불신만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낳게하여 結果적으로는 會員은 支部를 불신하고 支部는 本部를 不信하게끔 만들어 社會가 建築士를 不信케까지 하는 악순환으로 만들었고, 심지어는 支部없이 무슨 本部냐는 식으로 마치 本協會가 各支部의 下請業者나 되듯한 態度도 … 根本적으로는 이러한 協會꾼들의 運營방식과 思考不足에서 기인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읍니다. 委任運營體인 各支部 중에서도 몇 支部는 고의로 또는 他意로 本部에 대한 송금을 中間流用 하는 것으로서 支部의 運營을 잘하는 것으로 자신하고 있으므로 심지어는 納入金 독촉공문을 짓어버리는 不遜까지하는 참을 수 있으나 그것으로 인하여 本部운영에 지장까지 촉 구게하는 행위는 회원의 會費와 實踐會費의 納拂 善意를 무시함은 물론 협회발전마저 침체케하는 또 하나의 석은 證據가 되었읍니다.

이러한 여러가지가 우리 協會運營의 內在한 애로이었음으로 우선 급변 總會에서부터라도 모든 役

員, 理事 選出에 있어 역임을 지양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設計事務中 권위있는 큰 事務所는 그만두고라도 최소한 중급이상의 설계사무소를 運營하고 있는 會員으로서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양식과 教養있고 자기 자산도 있는 분이면 더욱 좋고 회생적으로 봉사할 수 있으면서도 대외적으로는 建築士 全體를 대신할 수 있는 품격을 지닌 분을 선출해야 할 것이 시급한 체질개선의 기초가 될 것을 믿어마지 않으며 꼭 부탁드리고 싶은 첫째 조건의 하나입니다.

오늘날 처해 있는 모든 協會의 難境은 반드시 建築士協會를 운영해 온 會長, 理事나 支部長 또는 役員에게만 그 責任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믿읍니다. 우리들 9백 50여명의 會員中에서 選出하였고 또는 일부 회원은 외면상대 아니면 또는 無關心하였던 全會員의 책임도 똑 같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일부 우리 회원들 내에서도 建築士協會를 지금까지 代書房協會라고 賤言하고 천시하는 不關涉 또는 외면하는 會員들도 協會의 테두리 안에서 같이 호흡하고 있고, 이해들 같이 하면서도 建築士協會 總會에 참석하고난 후에는 또 다시 建築士協會를 외면하는 權威的 建築士나 無知覺에서 오는 무성의 建築士들도…… 선거 운동에 참추는 建築士와 학교 派別을 고수하려는 建築士들, 이러한 建築士들의 책임은 더 크다고 확신합니다. 會員中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들끼리의 約定인 實踐會費를 圖書登錄費라고 지금도 公公히 말하고 있는 會員이 있고, 不正不實建物の 봉조볼 말하는 會員, 不實한 設計를 賄賂로 칭칭 감어 넘겨 社會를 흐리게 하는 會員 名義 代與를 正業으로 하는 會員 등등의 自体 교정 問題를 內包한 채 協會 運營에까지 허다한 문젯점을 固疾의으로 保守的 態度를 고집하며 물고 늘어져 왔지만 이제 와서는 그냥 이대로만의 형식으로 굴러나가지는 못할 지경에까지 도달하고 말았읍니다.

더구나 국회에서는 柳光鉉議員 계의로 建築士法 改定中 제22조 削除法案이 나와있고 建設部에서는 建築士協會의 發展과 育成監督을 위하여 建築課가 新設되었고 大韓建築學會에서까지 理路整然한 建築士法 改定을 審議 中이라는 消息이 들려나오고 있고 韓國建築家協會에서만은 建築士法 改定에 關하여 마땅히 大韓建築士協會의 體質改善만 이루어진다면 22조는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한 論說이 建設通信에 보도되는 이 마당에 우리 建築士協會 自体内에서의 體質改善이 안된다는 理論이 成立되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은감이 없습니다. 이 體質改善이야말로 韓國의 建築士가 뭉쳐서 보다 잘 살 수 있느냐 죽느냐는 기로에 서 있는 이 마당에 서로 믿고 한테 뭉쳐 時急한 自体内 體質改善의 果斷이 내려져야 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릇된 채 육이고 육임을 出馬運動에나 利用하며 2급을 廢止하고 1급과 합치는데 使命을 갖고 일하겠다는 甘言에 속은 會員, 속인 理事役員은 選任되는 날부터 단지 役員延命의 구실로 일했다는 證據로만 그치고 그 이상 움직이지 않는 背信을 딱 먹듯 하는 理事役員과 會員들과의 惡循環 二重職과 大學教授는 建築士의 敵이라고 排他的 先行이 위에서는 名義代與를 눈가리개 하기 위한 술수에는 능하면서도 建築士끼리의 等級別 도장貸與를 공공연히 默認 協助하면서 불팔이 設計事務所가 서울 市內에만도 2백여개소, 이러한 모든 부정 圖書가 全体 올바른 建築士의 品位 向上을 그 얼마나 저락시키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서울 市內에 이러한 2, 3백이나 되는 가짜 圖書에 도장이나 찍어주고 있는 弱少會員의 약점을 총동하여 平地風波式 団合으로 役員이나 되면 의례 이러한 役員일수록 나는 9백 50명의 대표인 理事인데!! 라는 그 알량한 권능만을 내뽐두르며 내 權限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行使하는데라는 진방지고 모자란 生覺을 가진 理事, 役員을 뽑아서는 절대로 우리 建築士協會는 前進는 커녕

급속도로 후퇴를免키 어려운 것을 確信합니다. 自由가 許容되는 社會라고는 하지만 各役員, 理事, 會長이 行使할 수 있는 그 自由는 建築士協會가 指向하는 목표와 合目的의 일 때에 비로소 妥當性을 지닐 수 있다는 사실도 제가 建築士協會 會長職에서 되찾은 좋은 교훈이었습니다.

建築士協會가 이 危機에서 벗어나 한층 더 發展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재와 장래와 한국을 위하여 우선 似而非建築士를 가려낼 줄 아는 양식을 다시 되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役員, 理事, 會長의 尸任을 止揚하고 情熱的이고 良心껏 奉仕할 수 있는 有能한...

協會일에 젖어서 마비되지 않은 新出 人物 中에서 냉철하게 判定된 사람을 자기가 투표하였다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協會에 적극 협력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러한 모든 惡要素가 제거된 與件確立下에서 진정한 의미로 정당하게 協會가 運營軌道에 오르게만 된다면 국회에 제의된 建築士法 第二十二條關係도 무난히 해결될 것을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들끼리의 體質改善을 과감히 선행하고 있는 실황을 하루 속히 社會가 認知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절대적인 선행 조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建築家가 지녔던 예전의 높은 지위(建築家は 政治, 經濟, 文化, 宗教, 全般에 걸친 諮問職이었으며 현재에도 모든 藝術의 統合指揮를 할 수 있는 職種으로 되어 있음)를 되 찾을 것을 믿어 마지 않습니다. 보다 좋은 報酬로 보다 훌륭한 建築設計를 發展시킬 수 있도록 합심하기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의 建築士는 신사의 대명사가 될 날을 爲하여 다 같이 전진합시다.

마지막으로 모든 役員, 支部長, 理事, 會長職은 一年制 無尸任으로의 改定案을 提案합니다. 不實한 二年보다 알찬 우리들의 권익을 위하여 同意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사편집 10개월

理事・편집위원장 한 창진



지금은 욕을 먹어도 할말이 없다. 월 간지로 상황이 바뀌어 졌을때 일단은 소신대로 펼쳐보기로하고 회지의 기반과 진로를 설정하는데 주력을 기우리면서 논의를 거듭해왔다는것이 편찬위원회의 그간의 발사취라고 해도 좋다.

그것은 우리 회지가 하나의 기관지이기 이선의 건축 잡지로서의 좌표나 격조를 높이기위한 과잉의욕이거나 허식에서 비롯된 소산이라고해도 또한 할 수 없다.

그것도 수긍 하면서 밝혀줘야할 일은 적어도 심여회의 편찬위원회에서 이 작은 책자만이 우리의 선회원과 협회를 이어주는 혈맥이라는 것과 어떻게면 그 대화의 질을 높힐 수 있고 서로의 격차를 좁힐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나 하는 것을 잊은적은 없다는 사실이다.

다만 이 회지가 하나의 기관지에 불과한 기관지일 수도 없고 文學人들의 同人誌 같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완전한 전문지가 될 수도 없다 보니 그 性格의 설정이나 方向提示가 어렵고 조심스러웠다는 것은 틀림없는 고충이었고 망서림이었다.

그래서 열권을 내어놓고 여기 한번 되돌려 생각 해볼 여유를 갖고져 하는거다. 이십권을 내놓게 될때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내댈때에는 이만하면 할 만큼은 했다고도 생각 해 봤다.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것은 말 그때로 未完成일수도 있고 完製品이 아니라는 뜻이지만 따지고 보면 다분히 자위할 수 밖에 없을때 쓰는 말이라는것도 솔직히 되짚어 보게한다.

충당한 많은 助言과 기탄없는 忠告도 받았지만 적극 호응하고 反映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새삼스러운 변명은 아니지만 뜻한 애로도 많았다는 사실도 적어두고 싶다.

적월간의 예산으로 월간을 감행하게 된 무모도 무모지만 정리된 원고도 페이지수의 제한 때문에 주려야했고 지질도 갱지에 조판인쇄가 뵈뵈도했다.

그러나 불철적인 애로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웠던 애로는 기이 완벽에 가까운 비현조와 철저하리만큼 냉담한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조용히 반문해 보고싶다.

협조는 고사하고라도 관심이나 가져보았는지.

책꽂이에 꽂기가 바뻗고 조용히 읽어보지도 못했다는 얘기도 들은적이있다.

가장 장적인 이야기일는지 모른다.

그보다도 더 놀랍고 거가말할 애로는 불신이다.

대놓고 뒤먹지 않았다는 심지어 적의에 가까운 대꾸 앞에서는 어찌나 내가 질머지세된 십자가 같이 어깨에 쓰라림을 느꼈다는것.

쑥쑥한 이야기지만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가 求心점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협회의 처지. 더우기 야부도 우리를 도와주려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사실을 인정해야 할 孤立된 처지를 눈뜨고 보아야 하고 사실 우리는 아직 껍질도 없는 약체(弱體)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아무런 방비도 없는 自由를 앞장 세우고 延命을 할 수 있다는 安穩속에 빠져 있을게 아니라 이젠 우리 선택이 주려야할 충실히 방비된 자유와 권익을 찾기 위해 자세를 갖추어야 하고 우리 스스로가 도와나가고 뭉쳐야할 진정한 협동체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통감하여 그 선제는 어디까지나 각자의 성실과 성직과 자기 완성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하며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하지 않을까.

건축과 건축을 필요로 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치저며 우리 협회의 치저와 당면문제 그리고 앞으로 뻗어갈 VISION 등.

이 회지가 협회의 求心점이 되어주는 역할을 했으면

이 회지가 우리의 활력소의 구실을 해 줄 수 있었으면

이 회지가 협동의 걸잡이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이 회지가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줘야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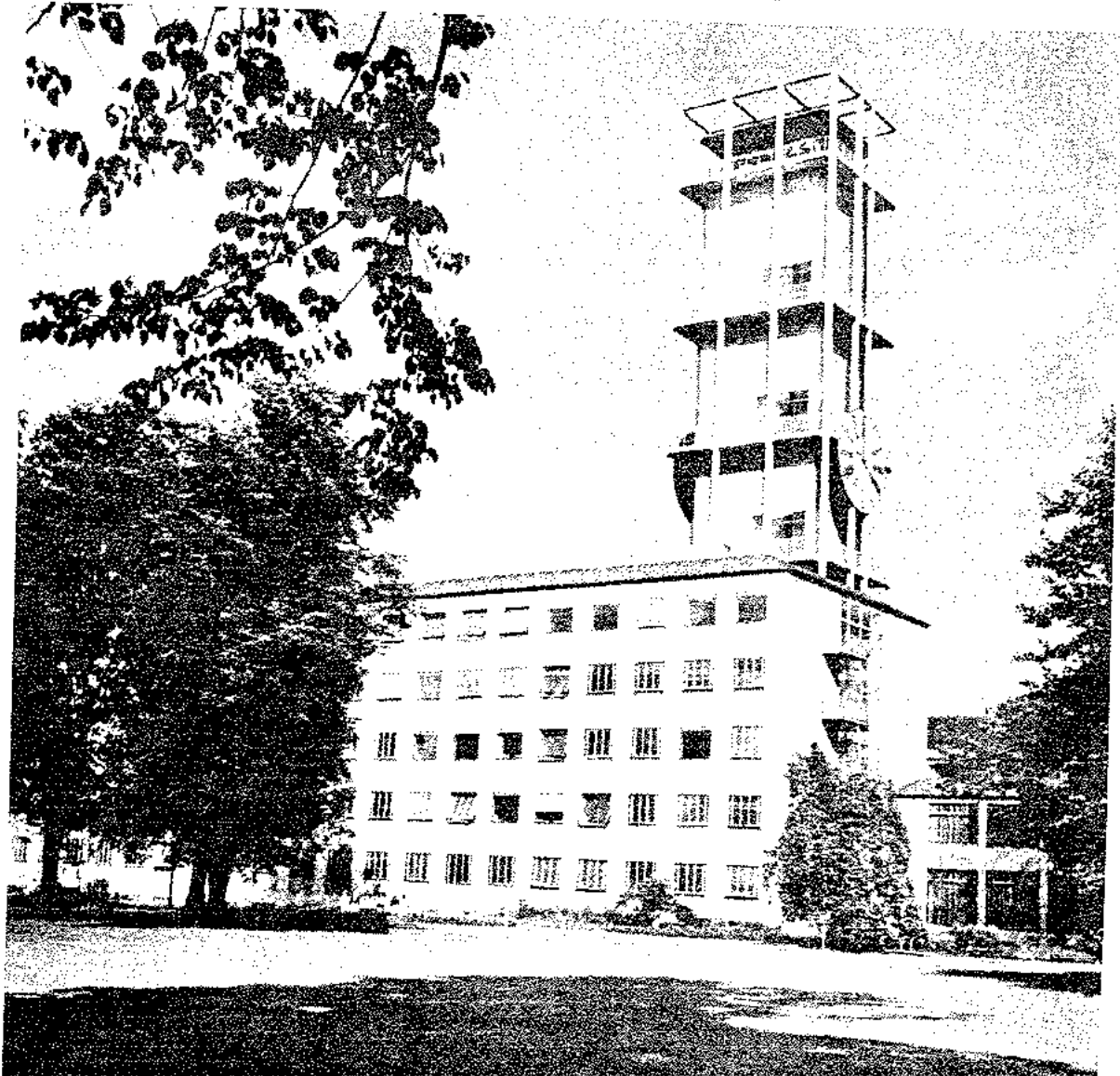
다 같이 참여해 줘야 한다.

충분한 예산과 충분한 협조와 충분한 뒷받침이 있을 수 있을때, 우리의 하나의 자량이 결실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기침의 10원의 편집을 마치고 절실히 생각나는 여러가지 각박한 사정속에서도 허심탐해 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공과가 될 수 없는것 하나의 의무적인 시도를 해본 따름이다.

다만 그속에서 호뭇하게 여겨지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열심히 도와주신 위원들과 특히 그야말로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해준 김석철위원의 노고에 같이 그 보람을 느낀다.

ARNE JACOBSEN



외국건축가

①

아르네 · 야콥센

70년대의 작가는 본지의 성격상 아홉달간의 연재를 일단 쉬고 이번달부터는 보편적인 건축의 가치를 추구해온 정통적인 작가들을 다룰 작정이다. 그 기준은 자기 나라의 고유한 전통과 건축자체의 보편적인 언어 그리고 오늘날이라는 시기가 당면한 여러문제들에 대해서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했다고 보이는 중견작가를 중심으로 했다. 이번달의 아르네 야콥센은 그런 모든 조건에 가장 표준적인 작가라고 생각되어서 먼저 다루었다. **편찬위원회**

아르네 야콥센 Arne Jacobsen 은 1902년 1월11일 코펜하겐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요한 야콥센이라고 하며 도매상인이었다.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리는데 재능을 나타냈고 야콥센 자신도 소년시절에는 화가가 되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건축가가 될 것을 권했다. 이미 15세때 의무교육을 마치고 있어서 미술학교에 들어가기위해 실지의 일을 하지않으면 안되었다. 그는 이공학교에 다니는 한편 건축가의 아플티에에도 가서 수업했다. 이공학교에서 건축가가 되고자 하는 소년들의 그룹을 만났다. 그중에는 모겐스와 후레밍의 랑센형제가 있었다. 미술학교에 들어가서 그는 그리는 것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기 때문에 집에서는 다시 화가가 되게 할까 어쩔까 의문이 있었으나 그는 이미 건축가로서의 길을 걸을 것을 결심하고 있었다. 미술학교 교수중에는 가이 · 휘스켈과 이브알 · 벡센이 있었다. 또 건축사의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가이 콧트롭이었다. 건축의 수업시대에 있어서 콧트롭의 영향은 야콥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고전예술의 복사와 비례에 대한 연구와 학생시대의 불만서와 이태리에의 전학여행은 야콥센에게 건축디자인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교양을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927년에 미술학교를 졸업했다. 1年後에, 구란뎀볼크에 세워지는國立박물관의 경기설계에서 적은 금메달을 받았다. 이것은 야스프룬트의 디자인의 영향을 볼 수 있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야콥센은 在學中 이미, 몇개의 건축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볼켈 · 책일과 닐 · 쓰 · 로 · 제크엘 - 등의 사무소였었다. 로 · 제크엘은 젊어서 죽었는데, 그死後에도 야콥센은 잠시 그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뒤에, 3年間쯤 코펜하 - 겐의 市役所에서, 시당국의건축가 볼 - 홀세의 밑에서, 음악 그외의 일을 한적도있다. 그러나, 야콥센은 미술학교 在學中에 최초의 自己의 일을하고 있었다. 그것은 1925년의 파리의 세계박람회에 출품한 冊의 裝飾과 의자의 디자인에서 銀賞을 탔다. 이해에, 그는 파리를 방문하고, 응용미술 국제전을 보았다. 이 전람회에는 르 · 콜리제의 <레스쁘리 · 누 - 보館>이 있었다. 이것을 본 젊은 야콥센은, 이와같은 전혀 새로운 경향의 디자인을 十分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대단히 큰 자극을 받았다

1927년부터 28년에 걸쳐서 독일에 여행한 야콥센은, 베르린에서, 마 - 스 환 · 텔 · 로 - 에와 그로피우스 등의 작품을 보고, 그것들에서 깊은 인스피레이션을 끌어낼 수 있었다. 그가 독일 방문前에, 27년에 쿨트 · 완빌 교수를 爲해 세운 별장은, 그의 최초의 건축작품인데, 황토색의 煉瓦를 쓴, 크 - 게 덮여 씨운듯한 지붕을 가진 것이었다. 덴마 - 크의 주택건축에 큰 영향을 준 18세기후반의 덴마 - 크의 건축가 Abildgaard의 디자인에서 모방한 것은 아니었다.

야콥센은 32년에도 M. 스텐 - 셴邸에서 또다시 아빌트갈 - 트풍의 디자인을 시도해보고있다.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디자인의 물결을 받아들이는가, 또는, 자기들나라의 전통을 어떻게 계승해서, 전개해 갈것인가, 試行錯誤의 時代였다고 할 수 있다.

베르린에서 돌아온 직후에 그는 자기집을, 흰벽과 水平연속축에 의한立方體型의 디자인으로 세웠다.外觀은 참으로 철근콘크리 - 트造같은데, 실체는데마 - 크의 전통적 煉瓦造와 木造의 組合에 의한것으로, 흰 스화크와 페인트를 칠한 것이었다. 이와같은 일은 야콥센 뿐은 아

니었다. 많은 나라들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移植할 때에, 기술적으로는 舊來의 수법을 踏襲하고 표면적인 意匠만은 變하게 하려고 해 왔다.

1年後인 29년에는, 친구인 후레밍·라센과 같이, 야콥센은 〈미래의주택〉의 경기 설계에서 1등이 되었다.

이것은 건축가협회가 주최하고, 코펜하겐—의 전람회 때문에 세우는 것이었다. 그들의 안은 円型평면으로 2層건물로 되었고, 옥상은 첼라공터의 發着場이 왜 있었다.

30년에는, 법률가인 로—멘볼크 씨를 爲한 큰 별장을 설계하게 되었다. 로—멘볼크 夫人은, 새로운 디자인에 對해서 깊은 이해를 표시해주었기 때문에 야콥센은 건축뿐만 아니라 家具에 이르기까지 새로 디자인 했다.

이 주택은, 야콥센의 初期의 作品中에서, 그의 출발점으로서의 중요한 意義를 가지는 것인데, 현재는 改竄된 원형을 볼 수 없다고 전해지고 있다.

벤마—크는, 건축가를 위한 경기 설계가 하나의 사회적 측면이 되었기 때문에, 훌륭한 소질이 있는 건축가에 있어서 항상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이다.

야콥센도 또 경기설계에 입상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가로서의 地位를 확보해갔다. 우선 그는, 구란펜볼크의 벨뷔 수영장에서 1등이 되었다. 계속해서 33년에는 베레웨 園地를 착수하게 되었다. 이것은 앞에 말한 3棟의 집합주택이다. 34년에서 35년에 걸쳐서 벨뷔 단지는 확장해서 극장과 레스토랑이 더해졌다. 구란펜볼크의 승마학교는, 같은 때, 34년에서 35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헤켈프 스코—츠클럽의 육내 테니스

장과 같이 철근콘크리트의 아—치를 쓴 볼—드狀의 건축이다. 승마학교 쪽은 内外같이, 회계 晝해져 있지만, 테니스場쪽은, 볼—트가 地面에 부딪치는 垂直部分과 壁에는 황토색의 煉瓦가 쓰여졌다.

현재, 壁部分은 담장명굴이 무성해지고 말았다. 이 테니스場은 海外에도 소개된 作品이었다.

36년에는 켄트후메의 스타디움의 경기설계에 1등이 되고, 이것은 41~42년에 세워졌다.

여기서는 그는 붉은 煉瓦를 쓰고, 지붕은 아스베스토스시멘트의 波形板으로 처리하였다.

이 시기에, 야콥센이, 흰 입방체의 인터내셔널스 타일 一邊倒가 되지 않고, 끊임없이 전통적인 재료와 수법을 의식하고 디자인 안에 채용하고, 있는 것은, 비참히 흥미로운 점이다.

34년에서 35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노우오 치료연구소도 또 야콥센의 평판을 높이 한 것인데, 소위 흰 立方체에 창을 파낸 것 같은 건축이다. 이것에 比해서, 적은 건물인데, 스콥쇼웨드港의 가솔린·스탠드는 그의 초기의 絶작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고, 一本의 柱와 마술—크에 바쳐진 円型의 슬라브 지붕과, 背後의 건물과의 콘트라스트는 아름다운 조형을 나타내고 있다.

미술학교에 在學하고 있을 때, 야콥센은 스톡홀름을 방문하고, 아스프룬트를 만난 적이 있다.

아스트룬트의 도서관이 세워지고 있을 때의 일이다. 젊은 학생과 17才나 年長인 건축가와 사이엔 깊은 우정이 생겼다. 이후 야콥센은 毎年 정해서 스톡홀름을 찾아서 아스트룬트와 만났었다.

그것은 40년에 아스트룬트가 죽을

때까지 10수년간 계속했다.
따라서, 야콥센은, 아스프룬트의 大部分의 作品에 對해서 그 세부까지 자세히 알 수가 있었다.

스톡홀름 博은 말할것도 없이 프레덴베리 백화점, 國立 박테리아 연구소, 교-데보리의 시청사, 그리고 숲속의 화장장에 이르는 대표작의 모두를 야콥센은 탐내듯이 배워가졌다. 야콥센은 특히 아스프룬트의 건축의 외관의 조형적 수법에 큰 감을 가진 듯하다. 물론, 그 이외에도 많은 것을 배웠음에 틀림없지만, 아스프룬트의 단정한 형태로 통합해가는 어프로치를 야콥센도 절어가게 되었다.

이와같은 아스프룬트의 영향은, 저음부터 디자인상에서도 비상이 밝은 형으로 나타나는데, 최근의 작품에서는 거의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原理的 또는 사상적인 段階로 이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아스프룬트의 영향이 인정되는 최초의 작품은, 37~38년의 코펜하겐의 스텔링·빌딩이다. 外裝은 밑의 2層이 綠色으로 칠해진 鋼板이고, 上の 3層은 灰色의 陶製타일이 부쳐져 있다.

이것은, 코펜하겐의 舊市內에 세워진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겠지만, 규칙적인 창들이 가지는 매우 고전적인 표현이, 솜씨있게 밝은 건물과 조화되었다.

37년에 에릭·몰러 Eric Møller와 協同한 올프스의 市廳舍의 안이, 1位에 入選했다. 이것은 39년부터 42년에 걸쳐서 세워지고 完成됐다. 이 건축의 디자인은 분명히 아스프룬트의 교-데보리市廳舍의 영향이 짙은 것이다.

이것들의 비교는 대단히 흥미 있는 문제이다. 외부뿐 아니라, 내부도 또 아스프룬트의 手法를 배운 부분이 적지 않다.

3年後에는, 후레밍·랏센과의 共

同作이, 솔레로-드 市廳舍의 경기설계에 1位가 되었다.

이 건축도 교-데보리市廳舍의 系譜를 이은 디자인이다. 철근콘크리트이기는 하나, 외부는 모두, 놀-웨이產의 大理石이 부쳐져 있다. 지붕가설법이라든가, 窓分割의 수법이라든가, 대단히 아스프룬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은 디자인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경향의 디자인이 덴마크에서 인정된 것은, 나치스·독일의 대두에 對한 一種의 내셔널리즘이기 때문이 아닌가고 말하고 있다. 非個人的이고 더구나 국제성을 주장하는 사상에 對한 반발과 반동이 덴마크에 있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 같다. 또는, 30년의 스톡홀름에서 인터내셔널한 디자인을 보인 아스프룬트가 점차로 獨自의 디자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에 배웠는지 모르겠다. 어쨌든간에, 전쟁으로 인해 덴마크의 건축가들은 자기들의 나라의 풍토와 전통위에서, 디자인을 追求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야콥센의 作品中에서 아스프룬트의 영향이 없는 디자인에도, 이것이 엿보인다. 예를 들어, 37년에 세운 웨스트·질-런트의 자기별장과, 43년의 煉製工場等은, 덴마크의 민가에서 인스피레이션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디자인이다.

그가 亡命의 땅 스웨-덴에 머물고 있었던 것은 겨우 2年間쯤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성공했다. 그것은 텍스타일과 벽지의 디자인을 착수한 것이었다. 그리는 그의 재능이 발휘되고, 식물에서 모티브를 취한 패턴을 쓴 디자인은 대단히 好評이었다. 드물게 그의 妻 요나·야콥센은 熟練된 텍스타일의 염색가였었다. 그들의 작품은 성공했다. 스톡홀름 국립박물관은 자진해서 왔고, 텍스타일의 회사도 재조를 개시했다. 그가

그린 패턴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전쟁이 끝나고서도, 야콥센의 디자인에 의한 커튼이나 벽지는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널리 쓰여졌다.

전쟁이 끝나고, 1945년에 야콥센은 스웨-덴에서 歸國했다. 그의 사무실은 물론 休業하고 있었다. 건축활동도 또 開始돼 있지 않았다. 야콥센은 경기설계가 開始될 때까지 굳세게 忍耐하면서 대기하지 않으면 안됐다.

이즈음, 그는 두개의 경기설계에서 1位를 얻었다. 하나는 46년에 넬스·곰벨이 협력한 호프토에에는 숲의 바일리언이었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49년의 웨이레의 옷트·클럽이었던 것이다.

48년에는 코펜하겐의 어떤 會社의 새 社屋의 경기설계에서 2位가 되었다. 전후의 이와같은 시기의 그의 작품에는, 비상이 전통적인 디자인의 경향이 힘있게 나타나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가장 빨리 實現한 것은, 47년의 쾨트후레의 3棟의 集合住宅團地이다. 이것은 저소득의 신흥세대에 맞는 것이고, 황토색의 煉瓦를 쓴 세층의 건물이 세개 서로 스쳐서 평행으로 열지어진 것이다.

환경에 對한 디자인의 적응성에 非凡한 것을 보인 것으로서 평가된 것이다.

이것에 뒤이어, 50년의 소홀렌의 연속주택은, 같은 황토색의 煉瓦를 쓴 것이고, 조금씩 스쳐 평행 배치의 평면 계획에는 앞의 작품과 기본적으로 같은 方法을 취하고 있으나, 더욱 교묘한 공간처리를 한 디자인이다. 이것에 의해서, 야콥센은 세계적인 주목을 얻고, 덴마크에 있어서도 가이·웨스켈과, 월레름·라우릿켄에 이어 지도적인 건축가로 간주되게 되었다.

소홀럼 No.1 이라고 불리우는 이 연속주택은, 앞에 말한것과 같이, 그란덴볼크의 벨뷔 집합주택의 옆에 있다. 그리고 야곱센 自身 그다에 한집에 살고있다. 소홀럼 No.2 도 같은 해에 세워진 것인데, 이것은 No.1 보다 매우 디자인이 떨어진다. No.3 은 5 年 후에 완성한 것인데, 평지붕으로 지은것인데, 61 年의 벨뷔의 코트하우스에 가까운 디자인이다.

소홀럼 No.1 은 高所得 世帯에 맞도록 공간구성에 매우 융통성이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거기서 취해진 方法은, 이때까지의 그 自身의 디자인을 포함해서, 너무 類例가 없는 것이었다. 억지로 求한다면, 地中海 연안와 어노니머스한 民家の 커뮤니티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든 내부의 스튜디오·하우스의 인 공간의 처리와 外部의 立面구성은, 아주 창외에 가득찬 것이다. 그리고서 大部分이 황토색의 전통적인 煉瓦이고, 지붕이 아주 붉은, 이것또한 덴마크에서 옛부터 써온 그런 것이었다. 기와지붕으로 돼 있는 점에서, 사람의 눈을 끌 수 있는 새로운 맛은 없다. 흥미깊은 것은, 코트하우스로는 되지 않으나, 어프로치가 높은 住居空間을 형성하고 있고, 이 점에서는 벨뷔의 개방적인 디자인과는 다르고, 윗트존의 一連의 코트 하우스에 큰 示唆를 준 디자인이라고 생각된다. 이 소홀럼의 團地에서 시작되는 야곱센의 住居 디자인의 展開는 대단히 흥미깊은 것이며, 다른 건축가도 또한, 이 작품에 多少나마 영향을 받은것은 사실이다.

54 年의 시모나 邸의 공간구성도, 소홀럼 No.1 의 전개이고, 59 年의 쉐스피어 邸와 60 年의 앤센 邸, 61 年의 완틸 邸 등은 소홀럼 No.3 의 바리에

이션이라고 볼 수 있다. 56 年의 율겐센 邸만은 조금 예외적인 디자인으로서, 아메리카의 브로이엘 一等の 住宅 디자인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集합주택쪽도, 켄트후페의 集합주택을 발전시킨 것으로서, 51 年의 이슬레-문제단지가 같은 계열의 것이다. 그러나 一方, 57 年의 에르네갈트·스웨이유의 테라스 하우스와 60 年의 테-드우레의 집합주택과같이, 全面 셋취의 것이 있고, 벨뷔의 증축과같이 연속 발코니가 있는, 비상이 단순한 형태로 통합한 것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센은, 전통적인 디자인과 동시에 국제적인 경향까지도 追求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든, 그의 주거 디자인에 對해서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들어, 工場같은 건축에 있어서도, 상·파울로의 국제건축전에서 소개된 52 年의 농기구의 전시장과, 61 年의 노보-베르의 工場과같이, 단순한 형태이기는 하나, 煉瓦의 색채와 텍스처어를 살려서 쓴 것이다.

그러나, 야곱센은 예를들어 학교같은 건축과, 오피스빌딩과 같은 건축에서는, 꽤 재료와 디자인의 수법을 변경시켰다고 보는편이 좋을지 모른다.

학교건축의 예로서 너무나 자주 나오게되는 52~56 年의 문제갈트 소학교에서는, 철저히 황토색의 煉瓦가 쓰여져 있다. 이中庭이 있는 소학교는 멜로의 어프로치에서 内部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의 밀도가 높다. 이前에 51 年의 할비 中央소학교도 풍부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으나, 문제갈트쪽이 더욱 흥미있는 디자인이다. 물론 平面計劃에 있어서도,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되나, 마감처리에서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實로 세밀하게 신경이 미쳐져있다.

中庭의 鋪石의 패턴—도, 外側의 塼도 外燈도 모두 검토하기는 하나, 높은 수준의 디자인을 나타내고 있다. 황토색의 煉瓦는, 이 小學校에서 가장 適確한 재료로서 쓰는데 成功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흰 스타코와같이 서먹서먹한 감이 없고, 붉은 벽돌같이 어둡고 무거운 감이없다.

말하자면 크림—의 더럽힘이라고할 수 있을 것이다. 조그마한 더러움이 마음에 찌리까지 않고, 도리어 더듬더듬한 더러움이 텍스추어와같이 視覺的인 맛을 깊게 하는것 같다. 햇볕이 닿지 않더라도 차거운 감이 없다. 그리고, 여름 한더위에도, 시원하다. 덴마크의 많은 건축가들이, 이 전통적인 재료를 오늘날 더욱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것은 注目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학교건축으로서는, 59년에 작성된 계획안의 레—도우레 소학교가 있다. 이것은, 문계갈트를 발전시킨 것으로서, 中庭을 싸고 東西兩側에 教室을 잡은 形式은, 대담한 방법을 提示하고 있다.

一方, 最近, 完成해서 발표된 옥스포드—의 聖캐더린 대학은 敷地안에 格子를 想定해서 배치한, 미—스의 I. I. T. 를 생각케하는 것인데, 그 마감처리와 텍스추어에 있어서, 야콥센은 英國의 건축가에게는 類例가 없는 솜씨있는 해결과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것에 의하여, 야콥센이 國外에 세운것은, 베르린의 한자地區를 除外하고 이것이 最初의 건축이다.

야콥센의 최초의 디자인이 소홀렘의 계열과 달라지 있는것은, 이미 지적되온 점이다. 최근이라고 해도, 55년의 레—드우레의 市廳舍와, 같은 55년의 예스벨센 父子會社의 오피스·빌딩 등에 시작되는 커튼철

의 단순한 디자인은 아메리카에서 발달한것에 대단히 잘 닮아있다. 이 경향은, 그의 최대의 건축인 58~60년의 SAS의 호텔·로이얼까지, 아니, 그후의 계획안도 그와같은 연장으로 되어있다. 이와같은 디자인에서 생각하면 야콥센은, 미—스 환·델·로—에, 에—로·사—리넨, 고—든·번사프트라고 하는 사람들의 계열에 서게될지 모른다.

레—드우레의 市廳舍는 GM과 比較해지겠고, SAS는 레버하우스와 UN빌딩과 比較될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 있어서, 꽤 야콥센의 디자인을 심하게 비판하는 쪽이 적지 않다. 그러나, 생각해보면구라파에 있어서, 이와같은 커튼철—의 길을 개척한 것은, 야콥센 이외의 누구도 없는 것이다. 아메리카의 디자인에 인스피레이션을 받은것은 否定할 수 없겠지만, 試行錯誤의단단계에서는 先例에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차츰 야콥센은 커튼철을 자기의 것으로 하고 있는것은 무시할 수 없다. 이와같은 디자인이, 덴마크—크의 전통에는 없기는 하다.

18世紀의 하—후·레인보의 민가에는, 眞裁한 형태와 푸로포—선을生命으로 하는 미를 발전할지도 모른다. 또 그자신이 수업시대에 배운, 고전건축, 또는 훌륭한 선배였던 아스프룬트의 원리에서, 스타일로서의 아니라, 공간을 구성하는 위의 規則 바른 표준과 모듈에 의한 디자인의 방법을 인도해내고 있다고도 생각된다.

한편 야콥센은 43년에 세운 煉製工場 옆에, 57년 H型의 住宅, 옷메邸를 設計했다.

이것은 99년 미래의 주택을 생각케하는 디자인이다. 야콥센에게 이와같은 方法도 또 숨겨져 있는것은,

역시 흥미를 끄는 문제이다.
36년의 가솔린스랜드의 지붕도 또
円型이었다. 그리고 62년에 작성된
파키스탄의 新首都의 이슬라마바트의
국회의사당案의 의장도 원형이
다. 이 계획안의 전체의 구성의 발
상은, 르·꼴뷔제의 상더갈의 의장
에 대단히 잘 닮아있다.

60歲를 넘은 야콥센은, 지금이야말
로, 기름진 건축가이고, 세계적인
무대에서 가장 활약이 기대되고 있
다. 여러가지의 디자인의 경향이
들끓는 오늘의 상황속에서 그의 디
자인은 역시 하나의 큰 개성을 형
성하고 있다고 간주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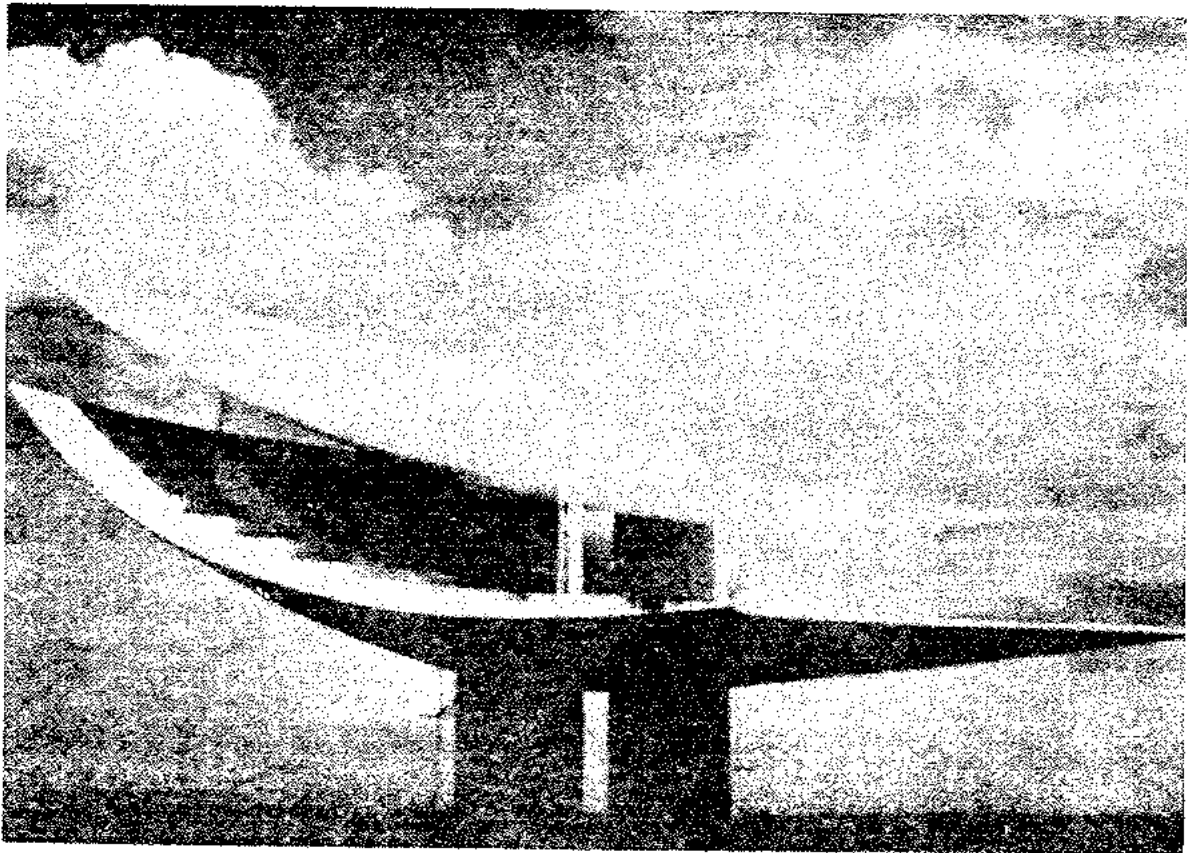
그것은, 아메리카의 디자인에 자극
되어 영향을 받은 커튼월의 건축
디자인에 있어서도, 단정한 세부
디자인이 일관되었고, 잘 담어진
감각은, 건축공간을 가구의 디자인
과 같은 밀도로 구성하고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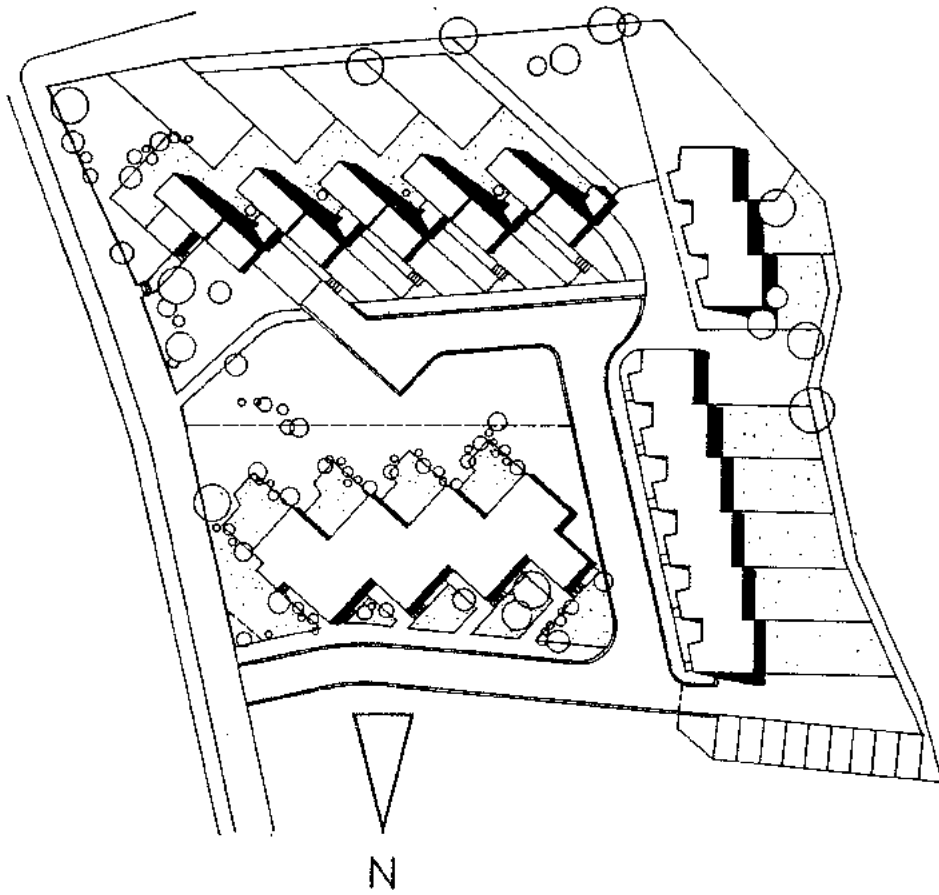
이다. 레—드우레 市廳舎와 SAS
의 호텔·로이얼의 階段等은, 그가
장 좋은 例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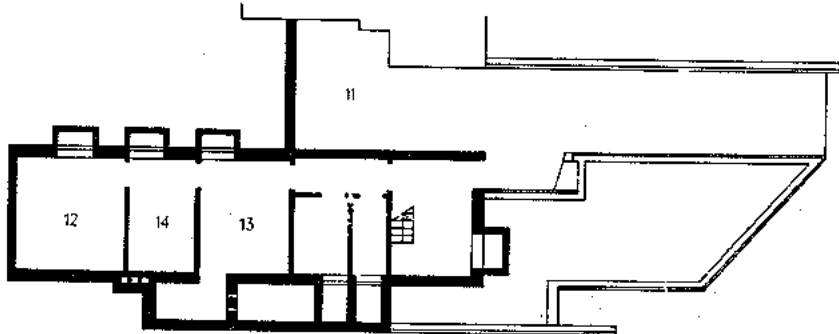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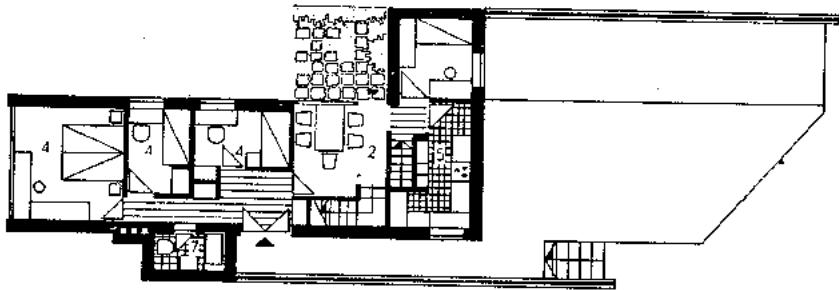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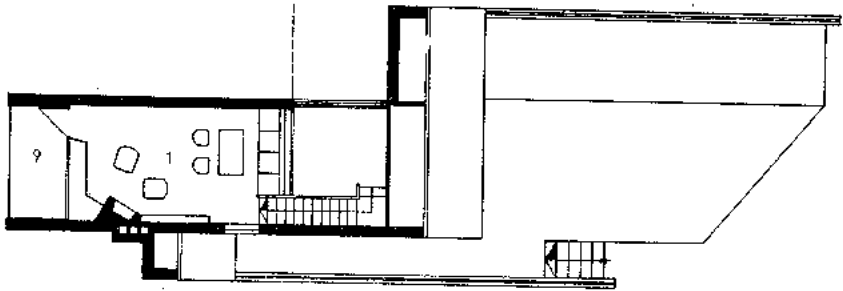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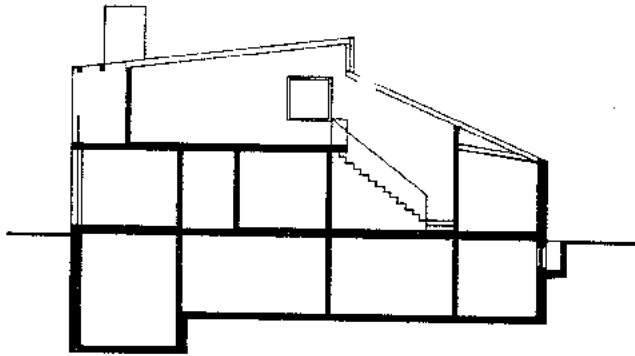
또, 세부디자인뿐 아니라, 텍스추어
와 색채에 있어서도, 야콥센은 비
범한 개성적 디자인을 보이고 있는
점에 註目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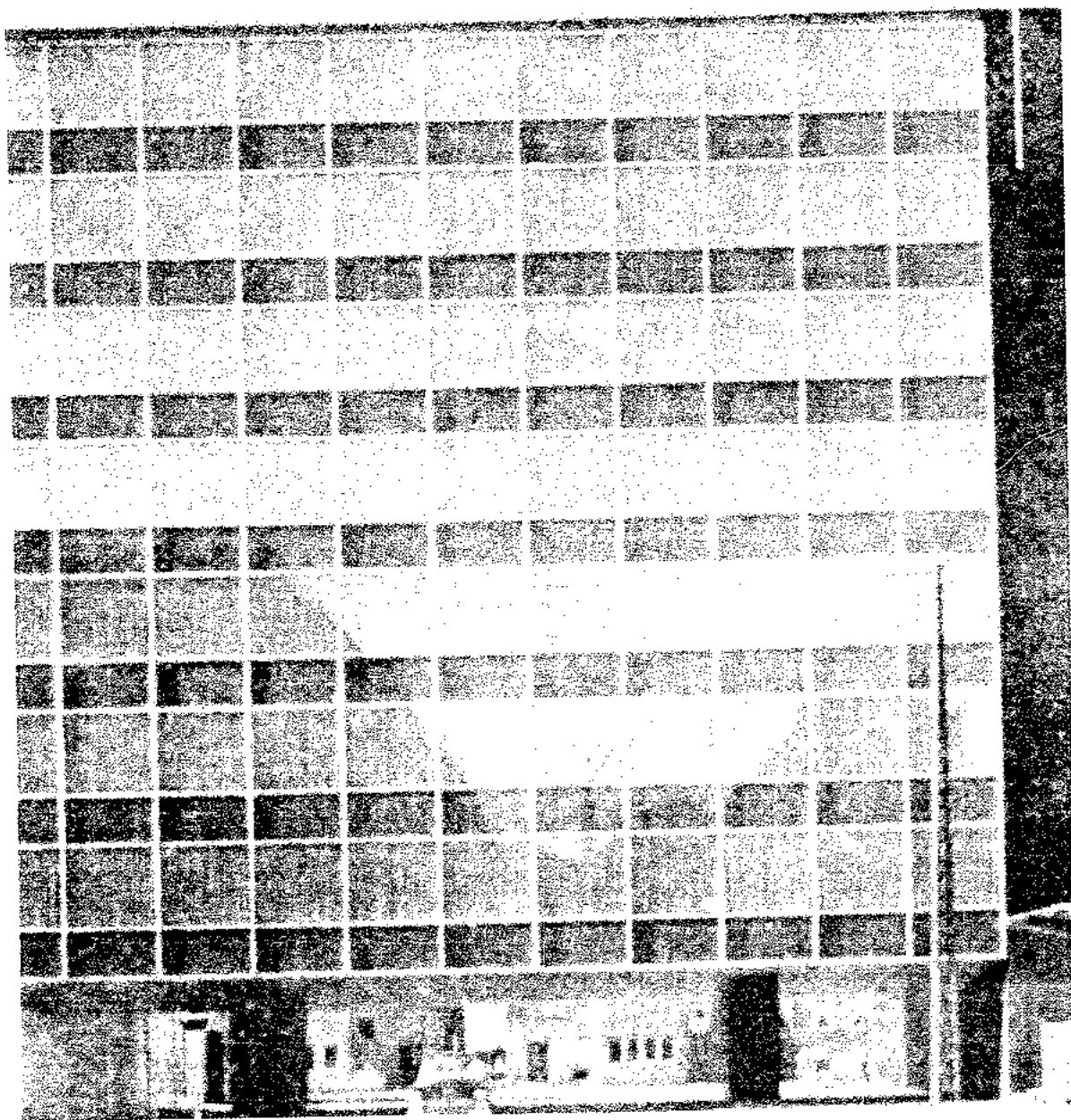
그는 56년에 母校의 교수가 되었다.
또, 국제적인 경기설계도에 자주
초청돼서, 몇개는 1位에 입선됐다.
一見해서, 최근의 그의 많은 작품
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인터내셔
날한 디자인은, 소홀렘 No.1의 연
속주택과 문계갈트 小學校 등에서
나타낸 전통적인 디자인과 對
立하고 있는듯이 생각된다.

그러나,今日の 건축 디자인에 있
어서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인 전통
과 창조의 観点에서 보면, 야콥센은
명백히 이 과제와 正面으로 맞붙고
있는 건축가의 한사람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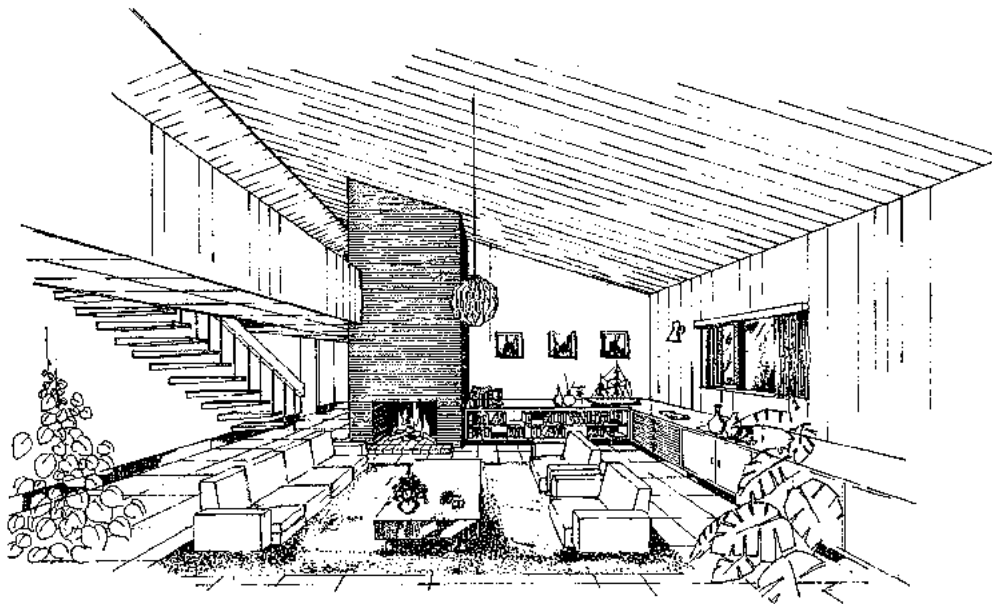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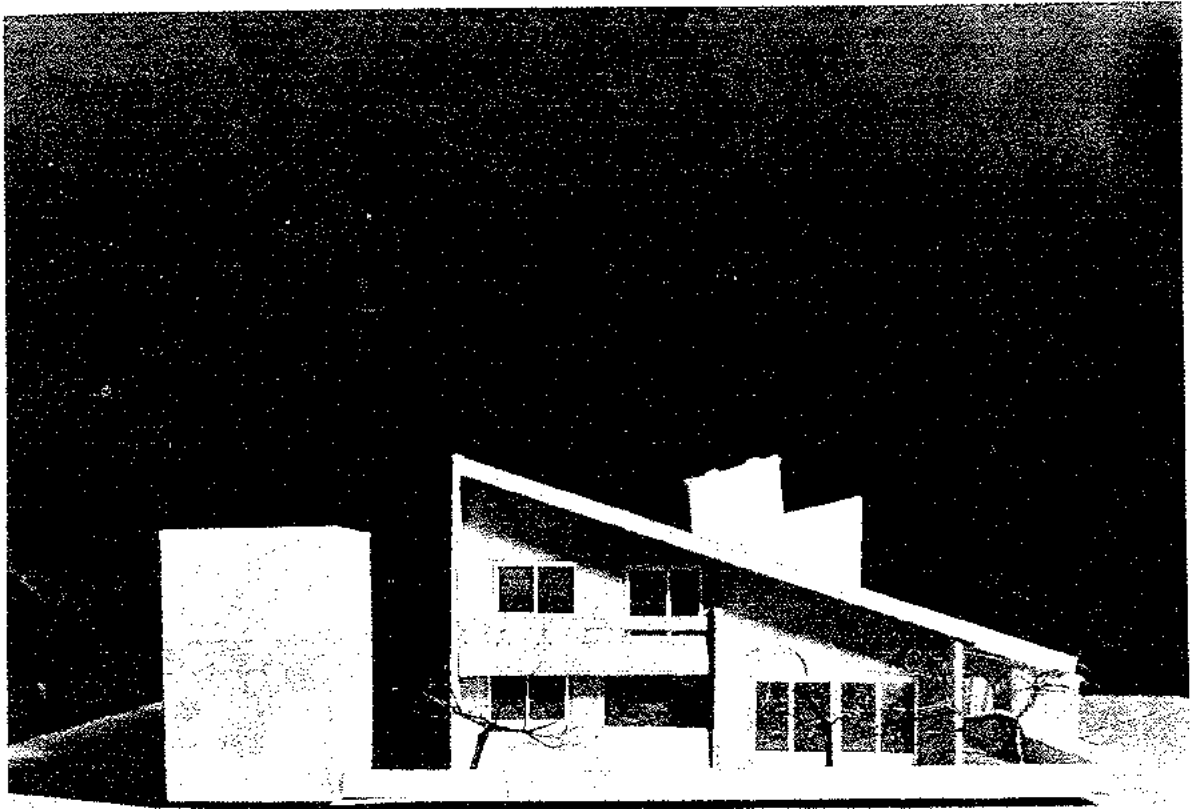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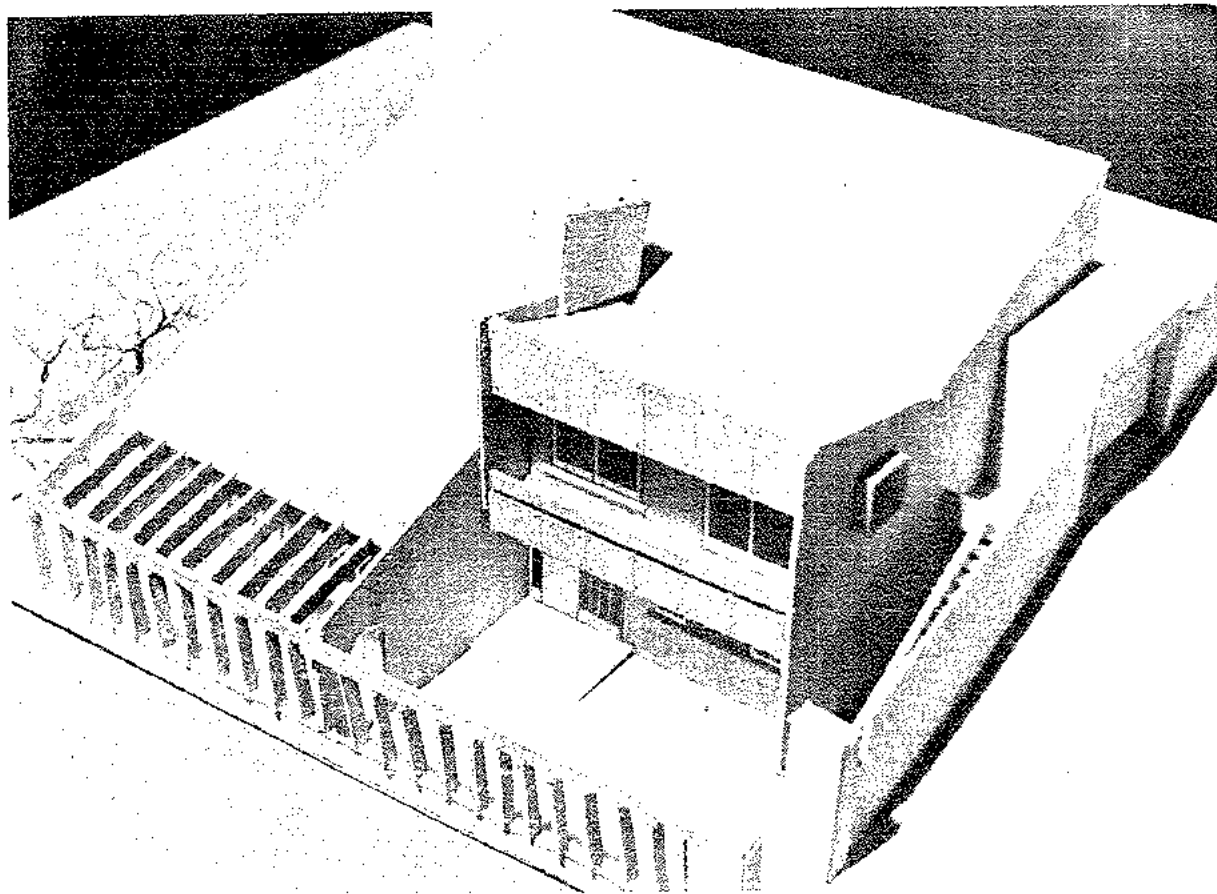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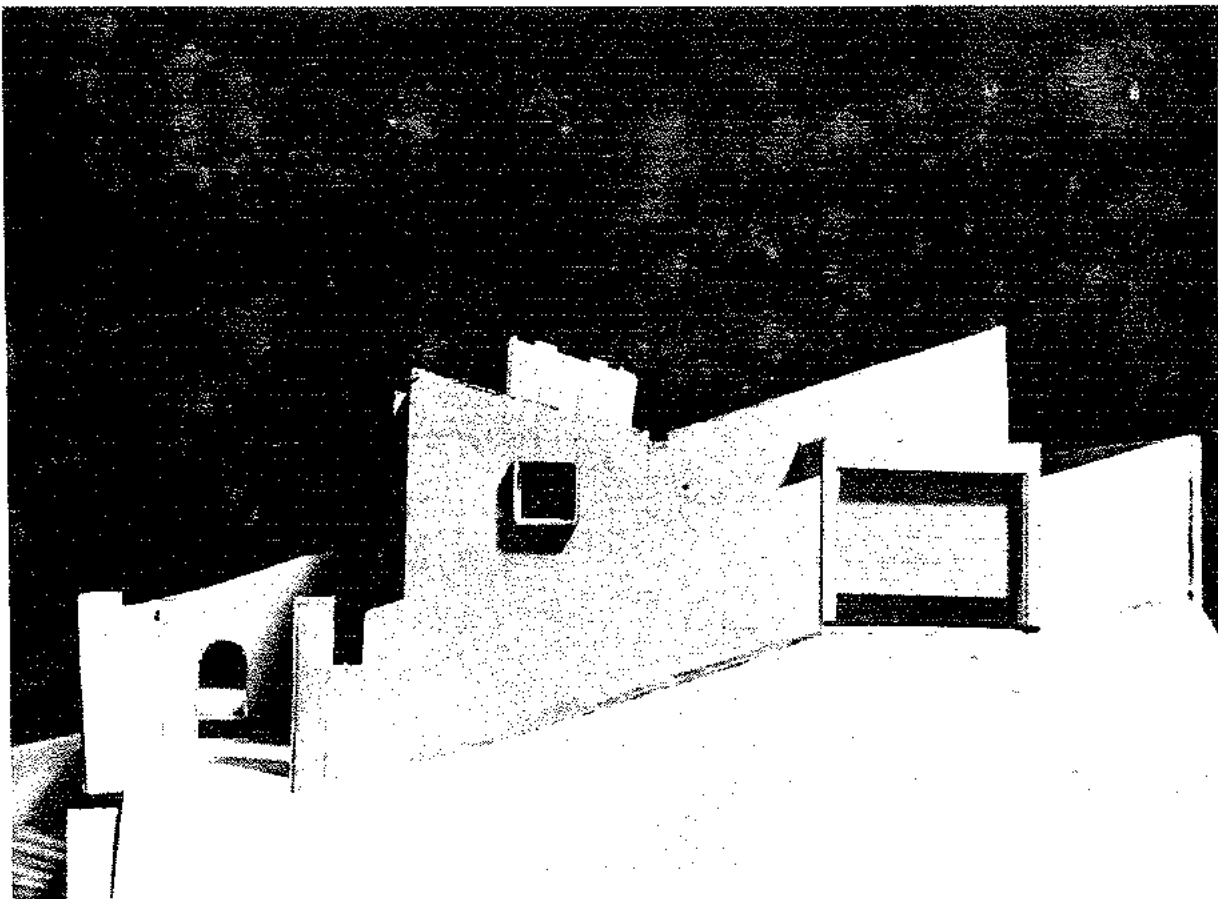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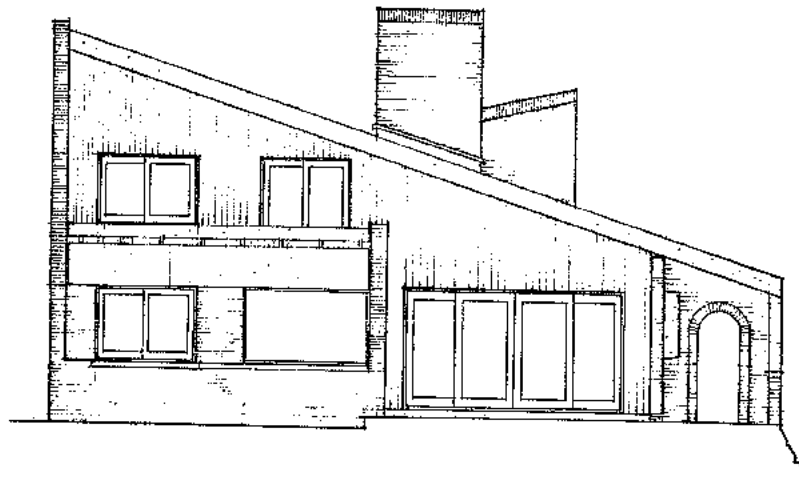
회원작품

文씨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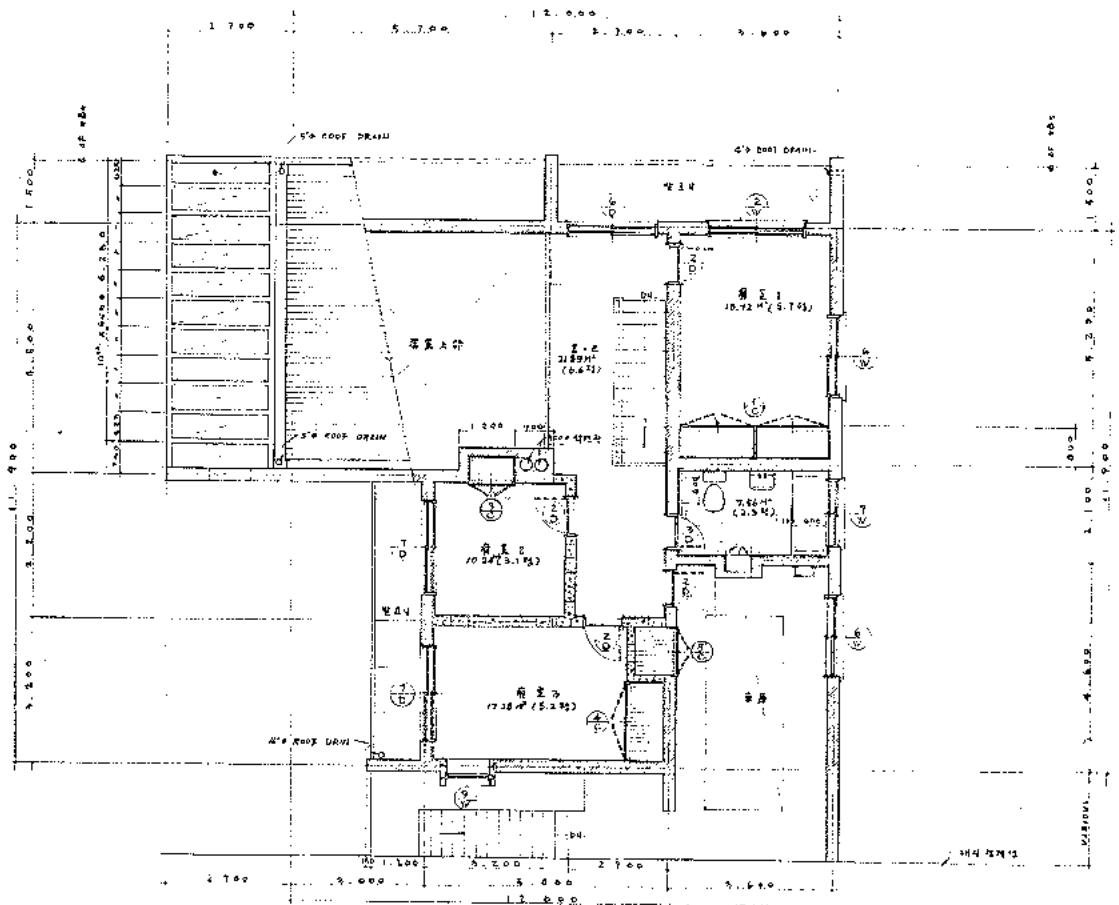
설계 안영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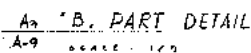




좌 측 면 도 S : 1 / 100



A₁ 2ND FL. PLAN
A-4 SCALE : 1 / 40 면적 : 93.06㎡ (28.2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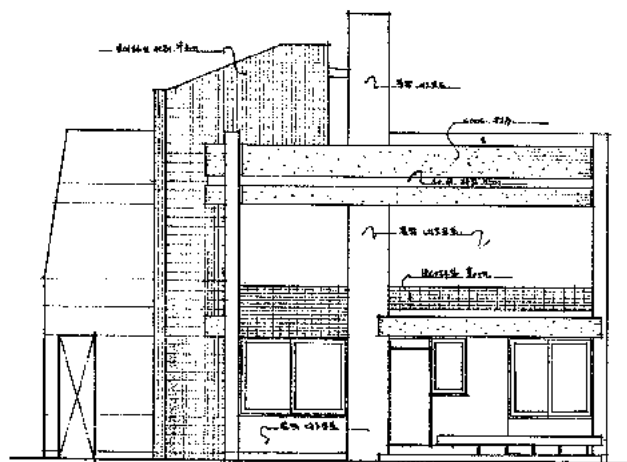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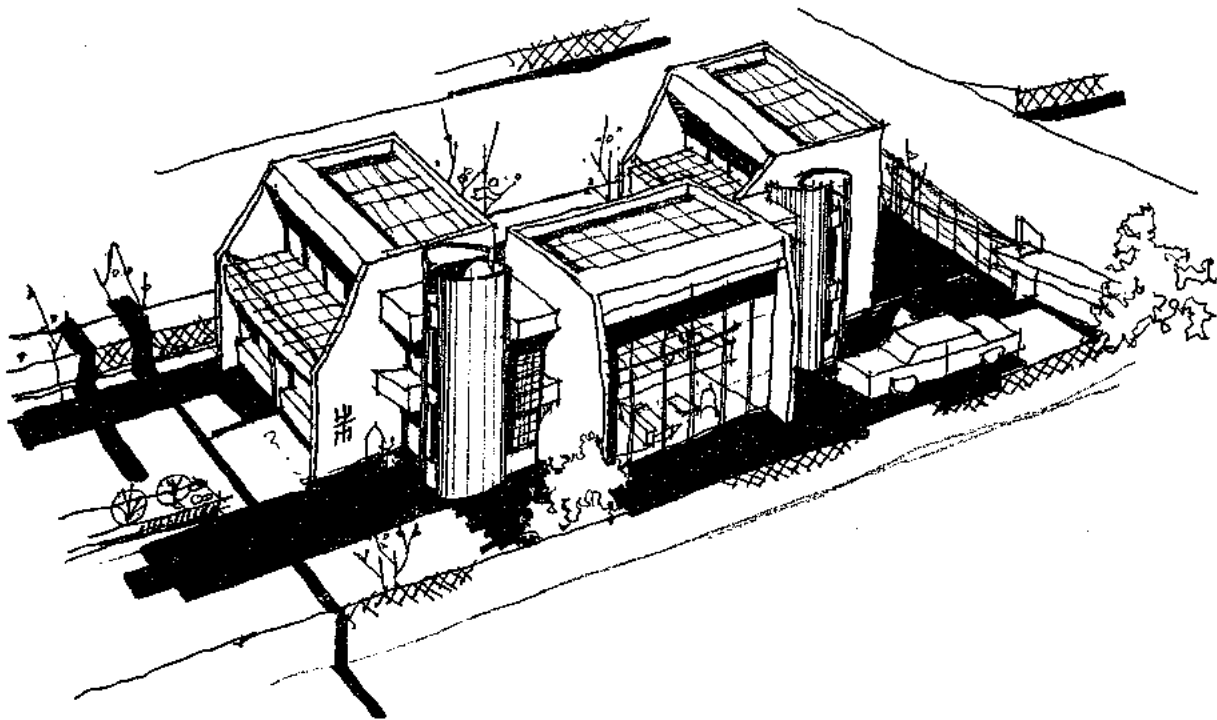


A. MAIN SECTION DETAIL



K씨주택

설계 동화건축



K씨 주택 설계: 동화 건축연구소

담당: 서상우, 장석철, 김성진, 김동기

위치: 서울 성북구 장위동

대지면적: 105坪

건축면적: 75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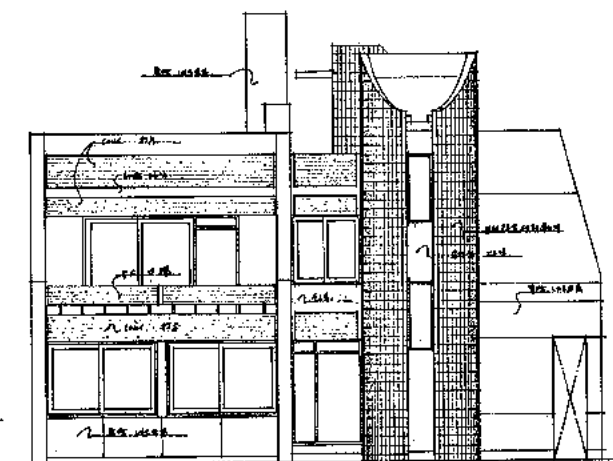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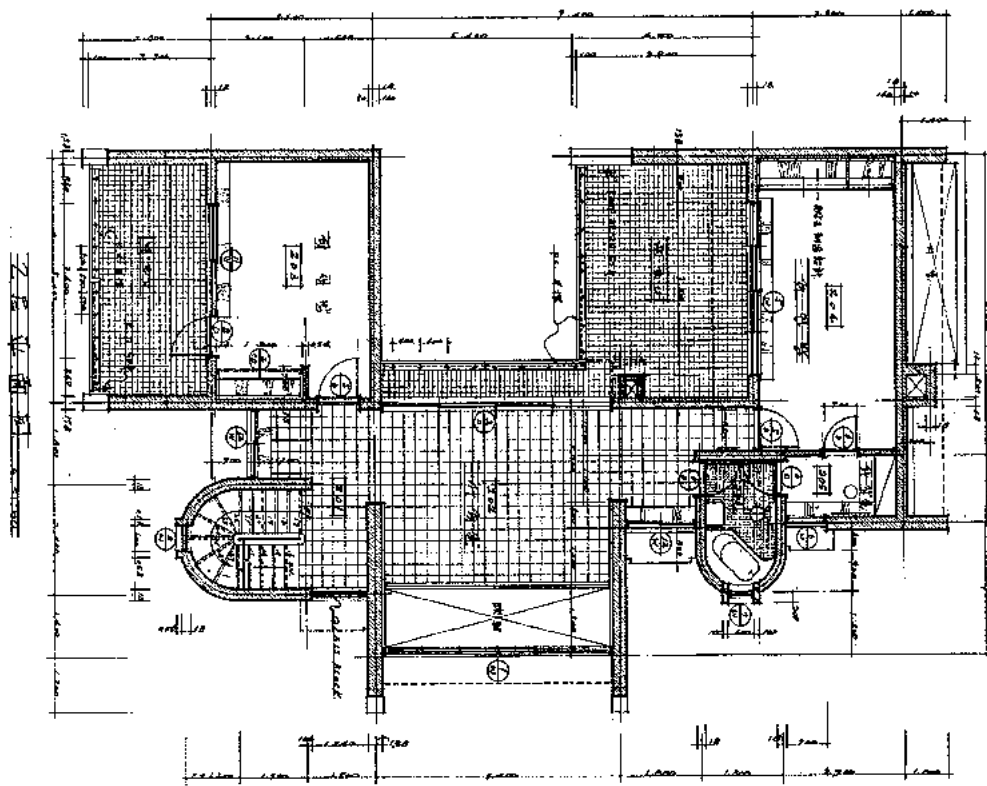
1층: 38.4坪

2층: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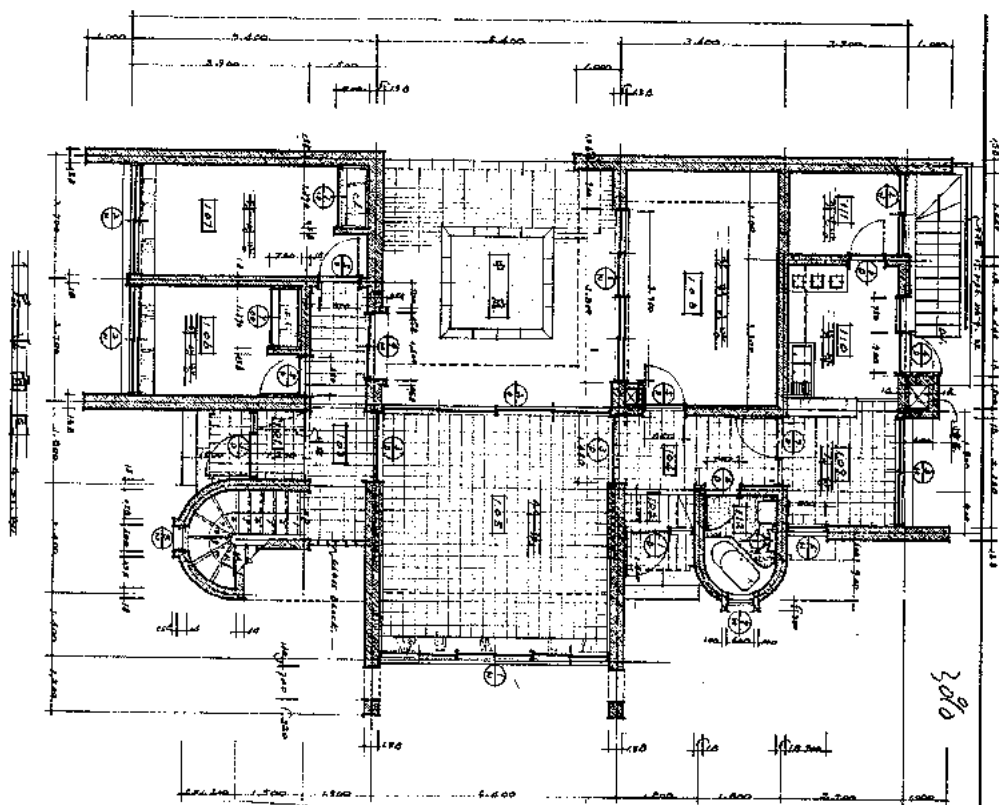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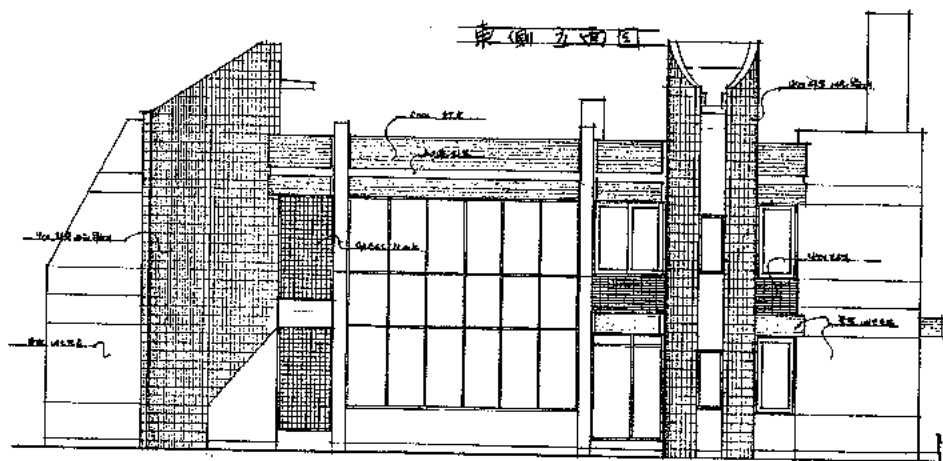
지하층: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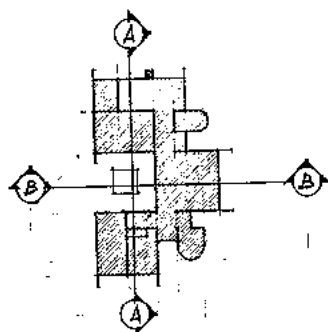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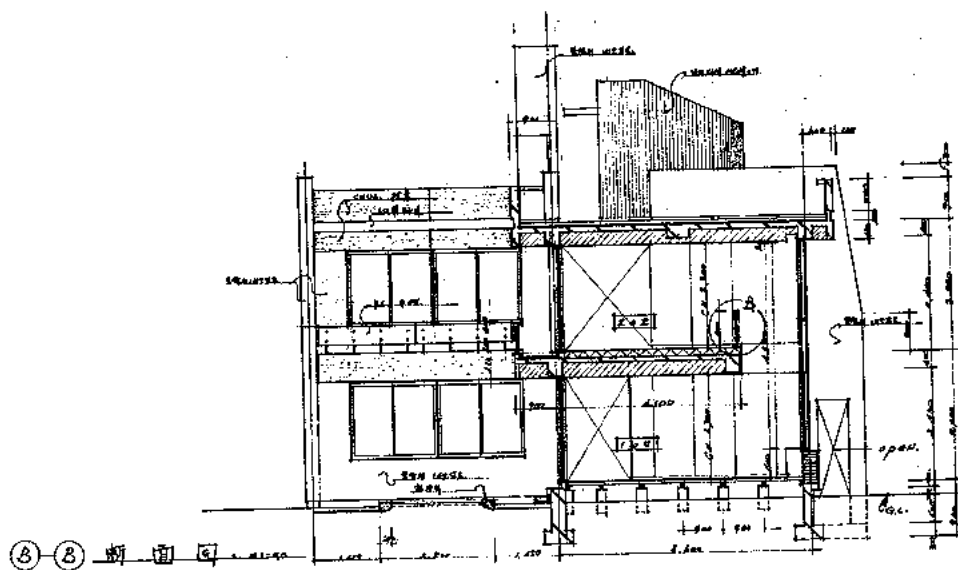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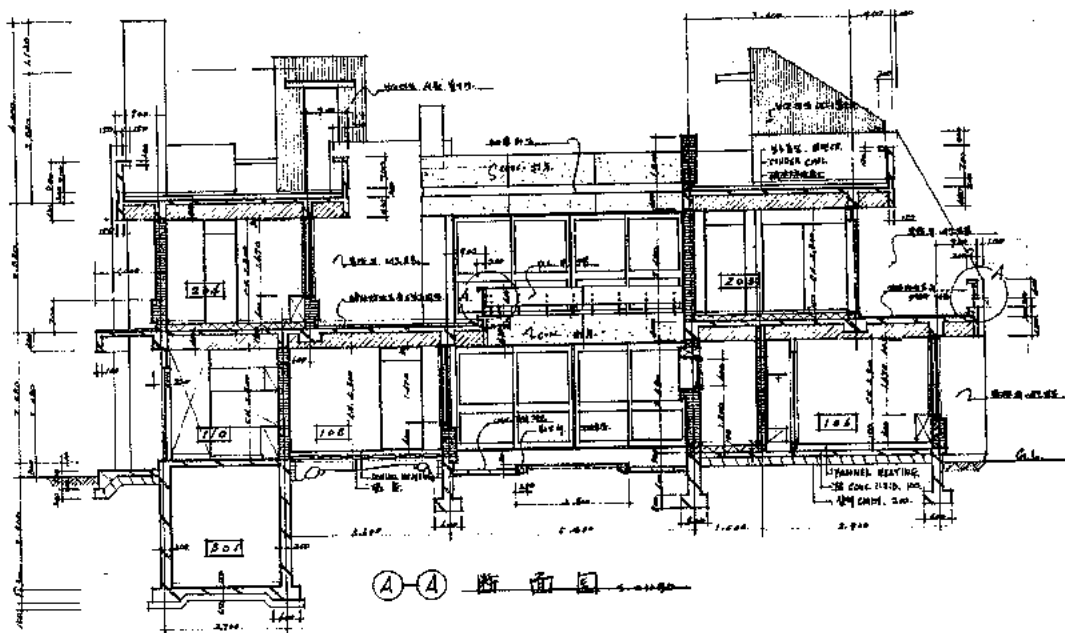
담층: 2"

설계개요: 3대가 한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한국적인 현실을 거실과 가족실로서 독립성을 주었고 방의 연장인 뜰(외부공간)의 성격을 분명히 하며 노력하였음.



南面立面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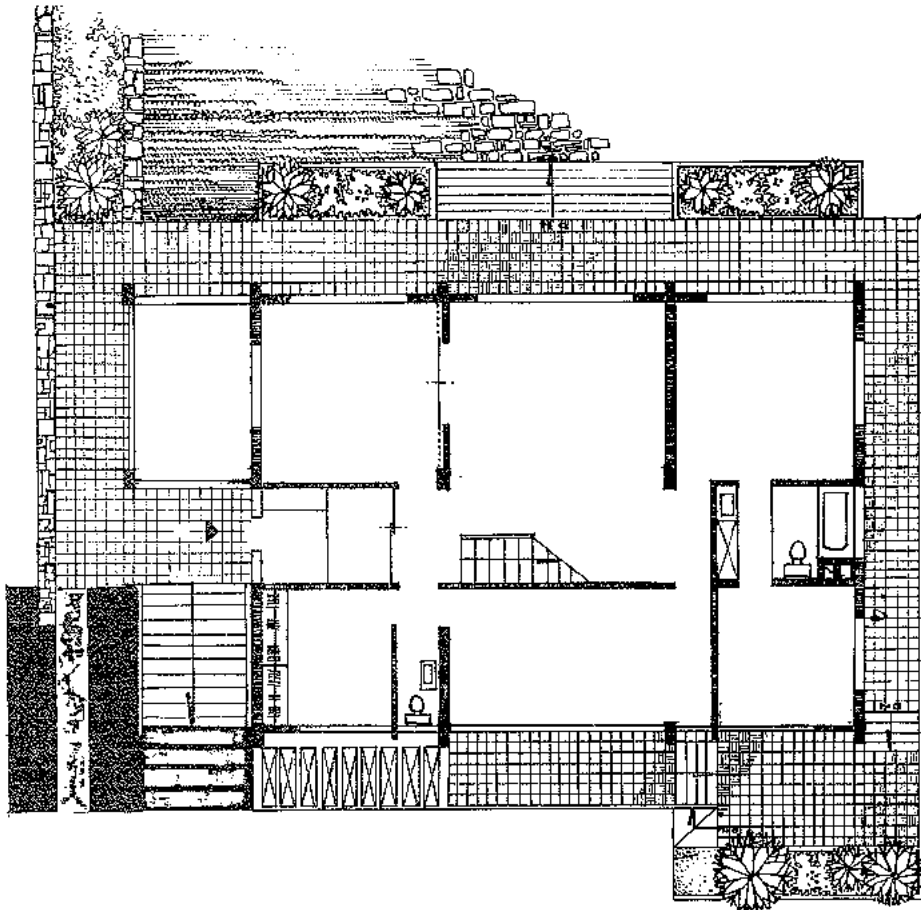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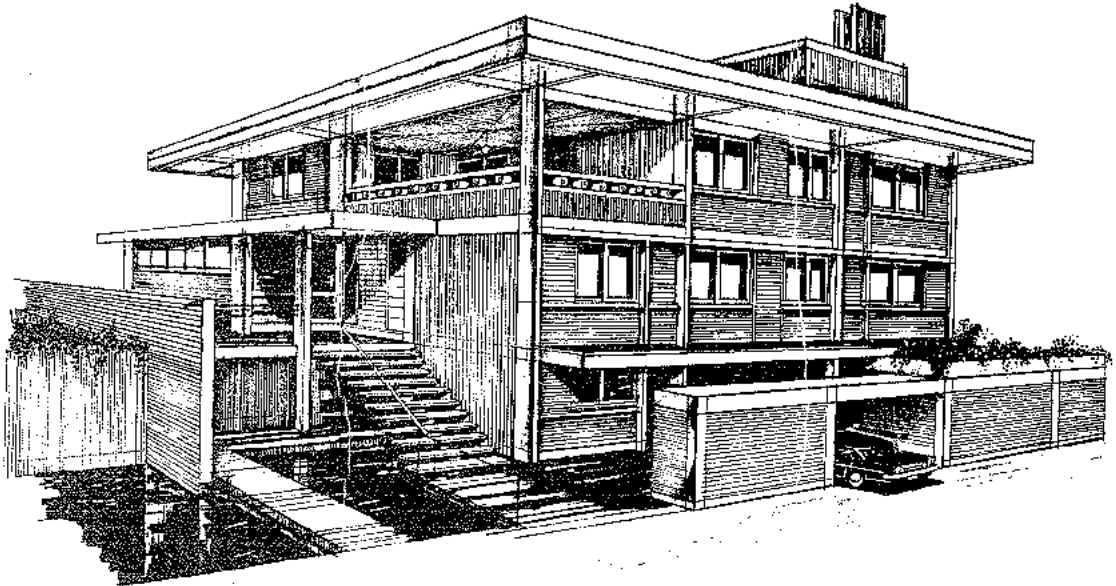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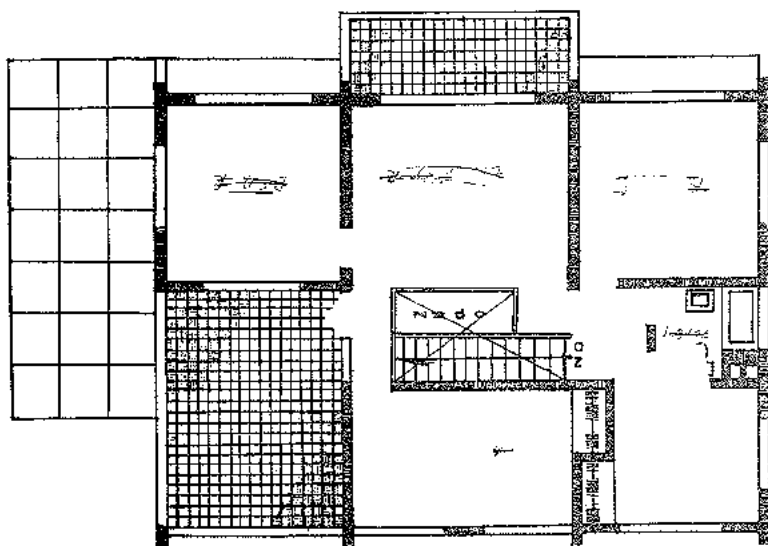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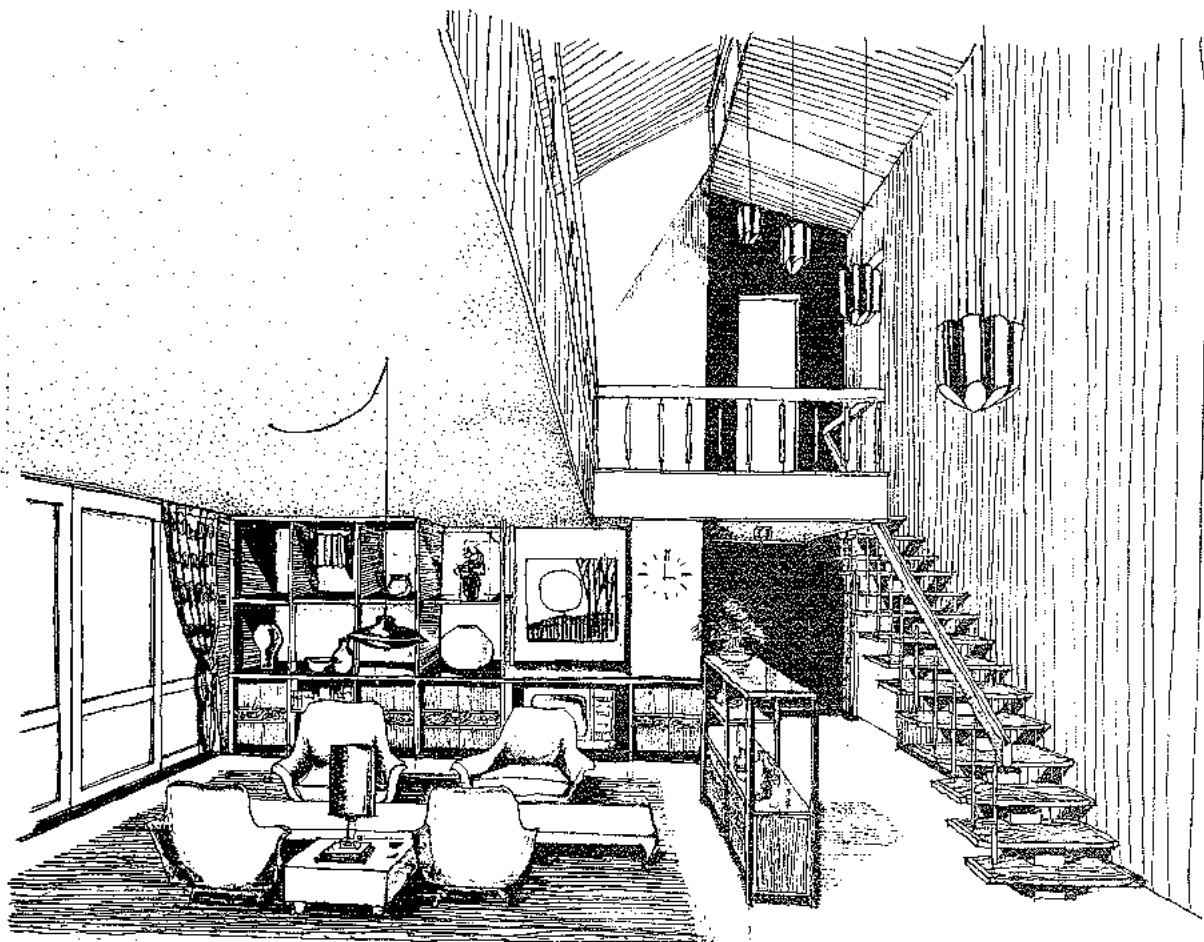


KEY PLAN 1:1000

C씨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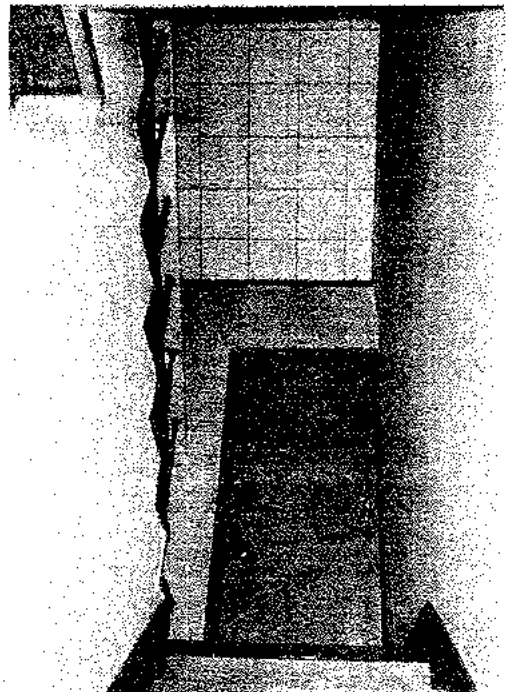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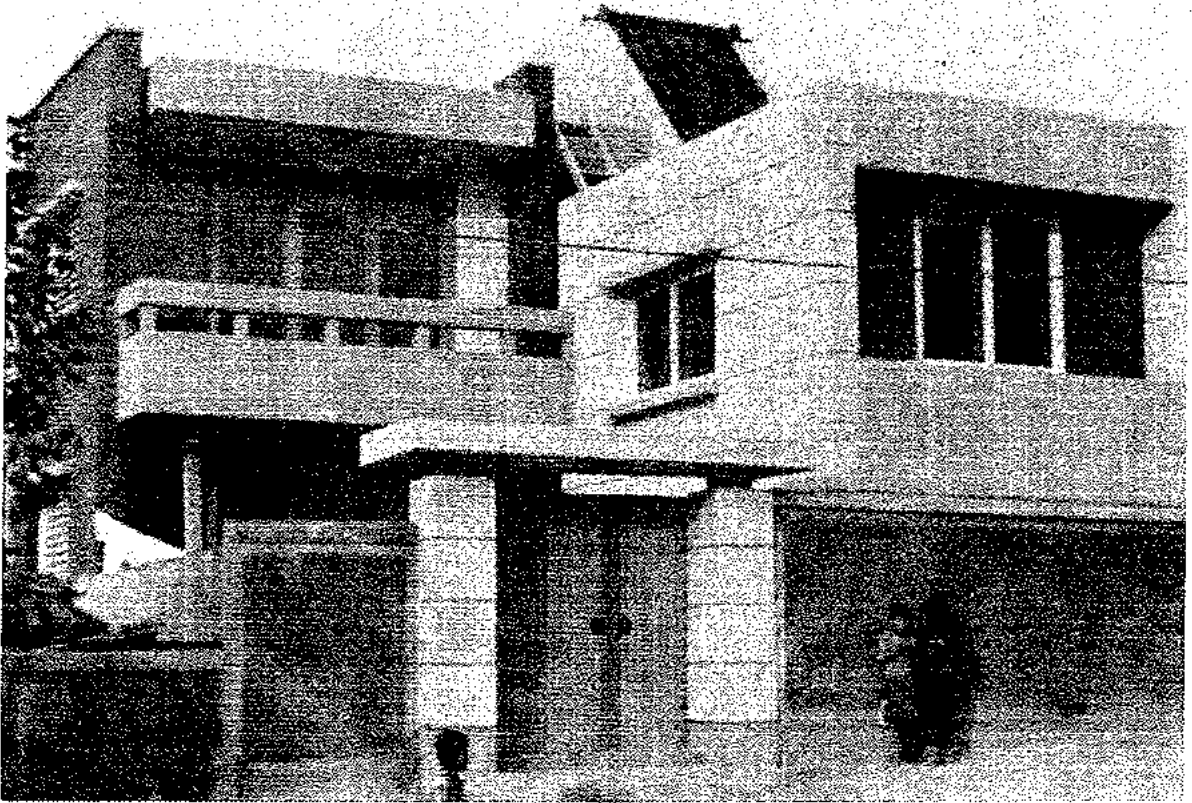
설계 삼육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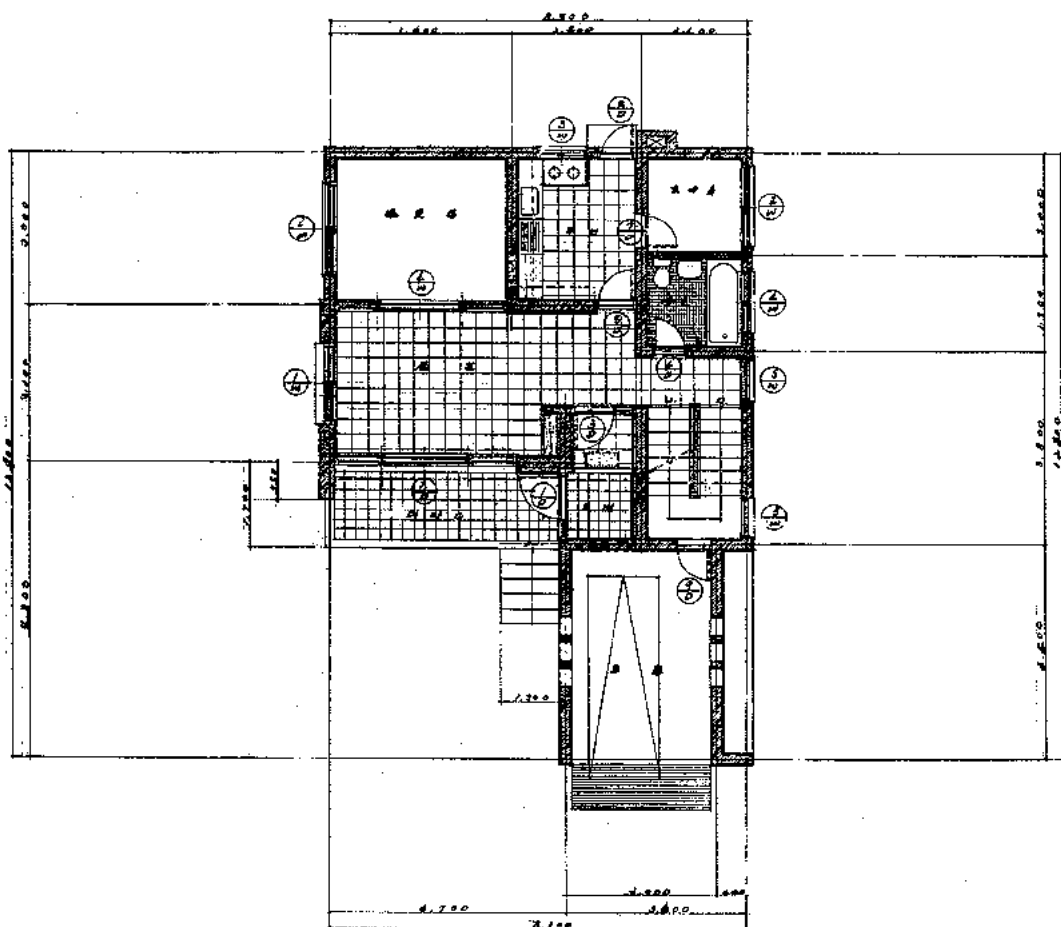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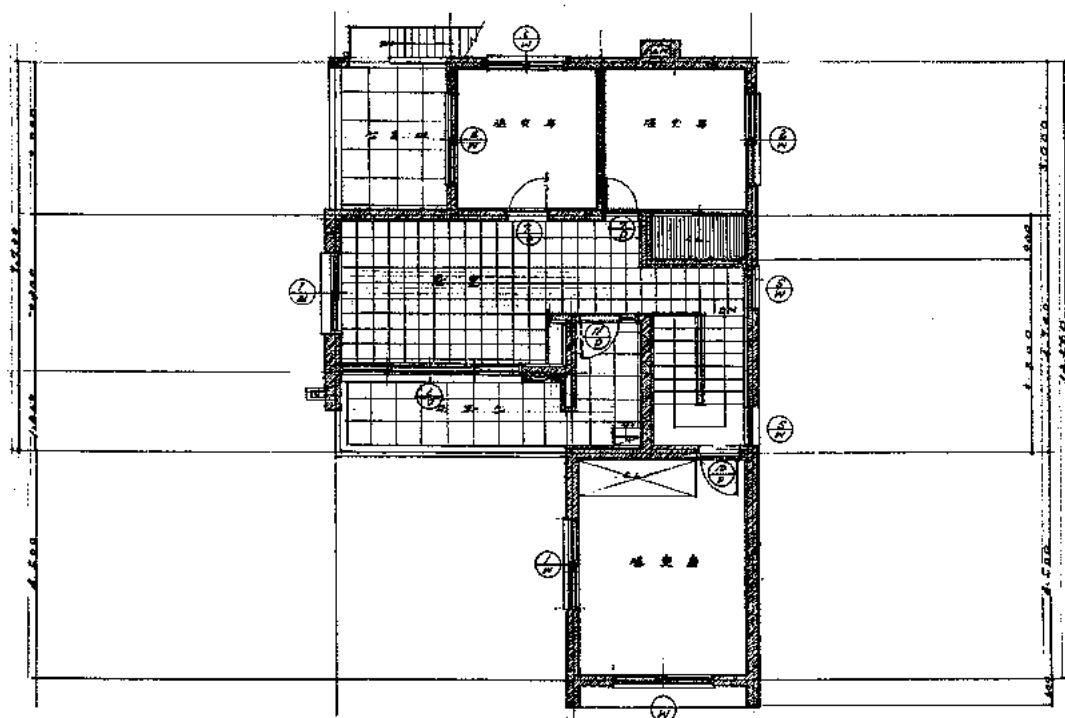
K씨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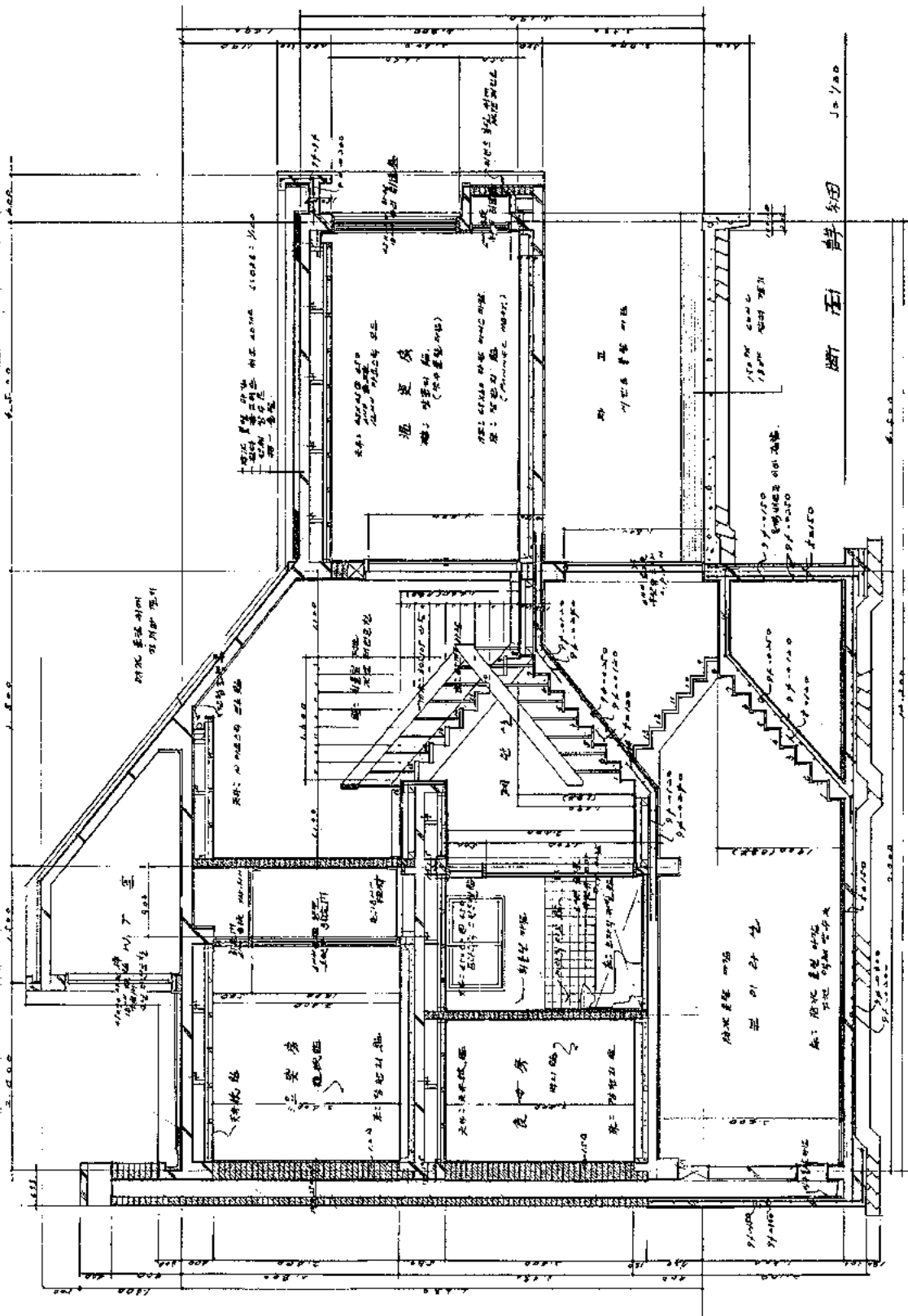
설계 연희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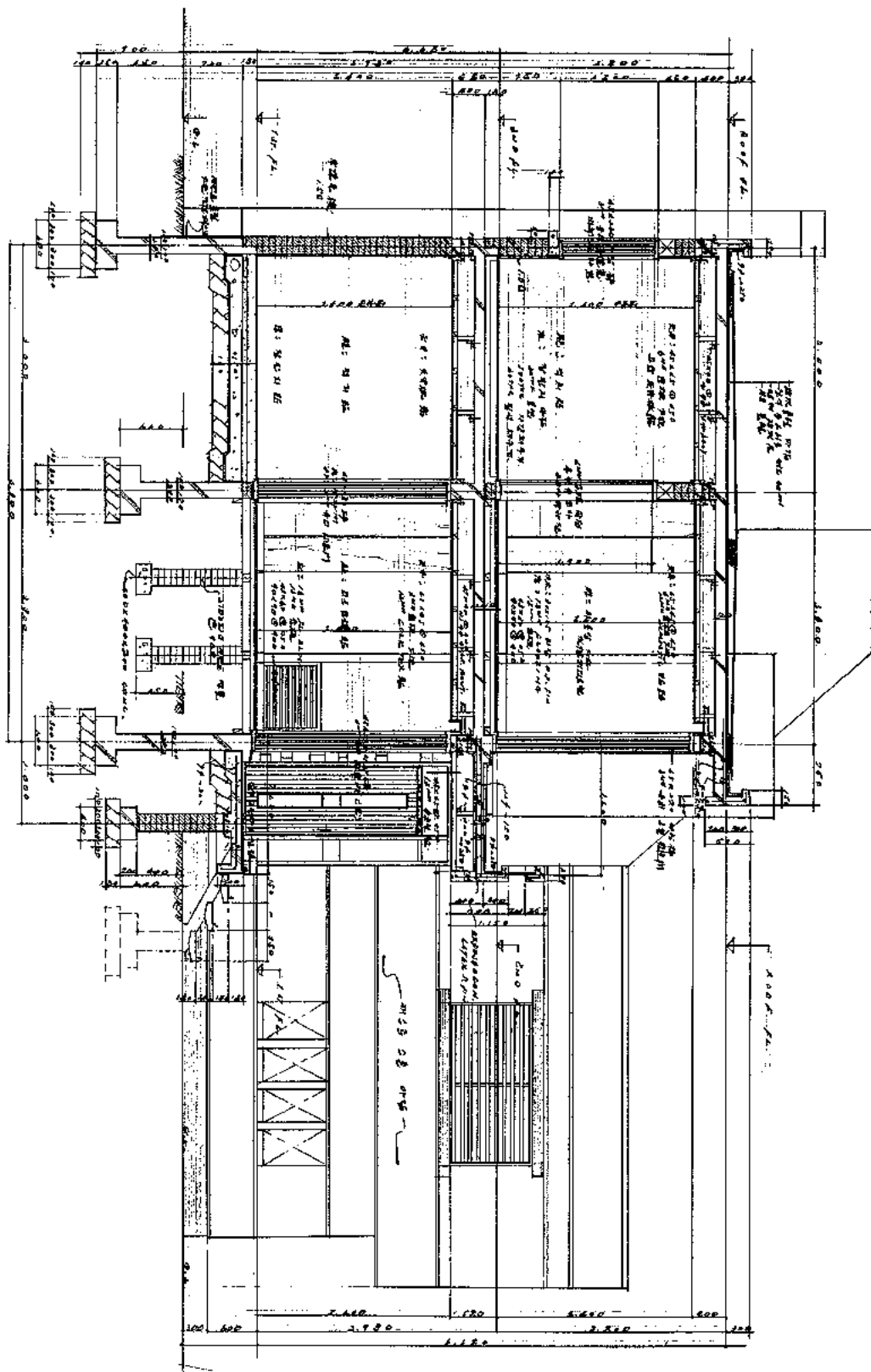


1. A. 6 x 4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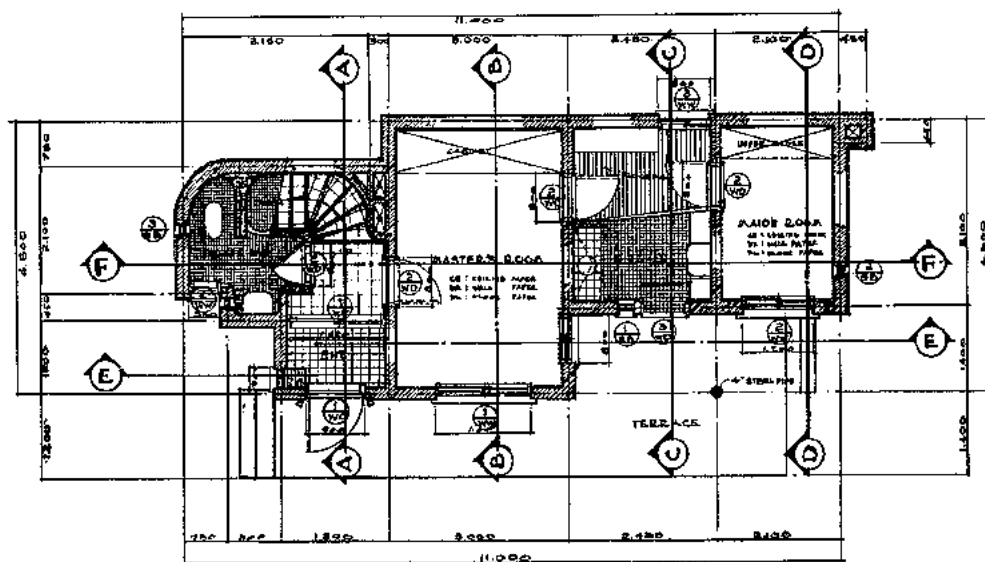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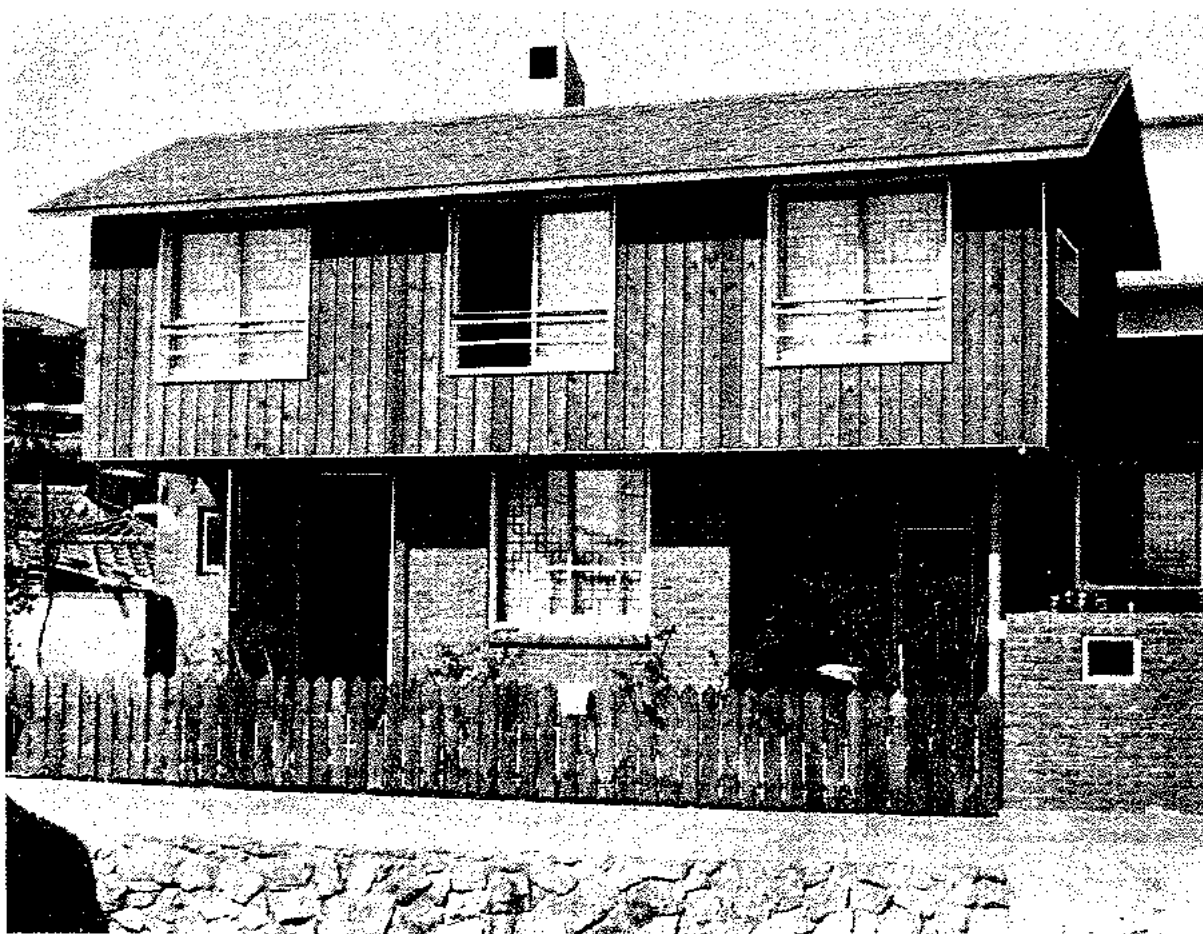


단면 1/30



젊은 건축가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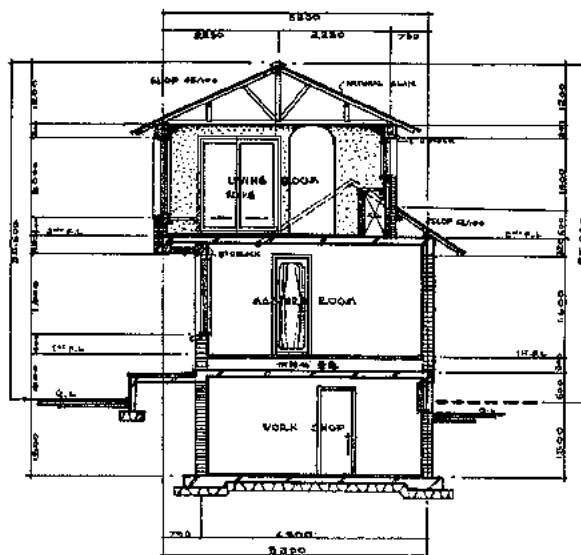
설계 강영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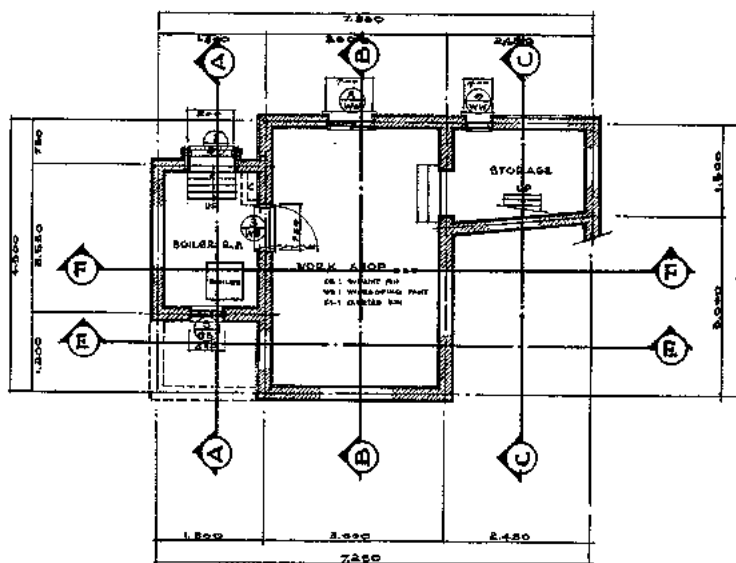
1ST FLOOR PLAN SCALE 1" =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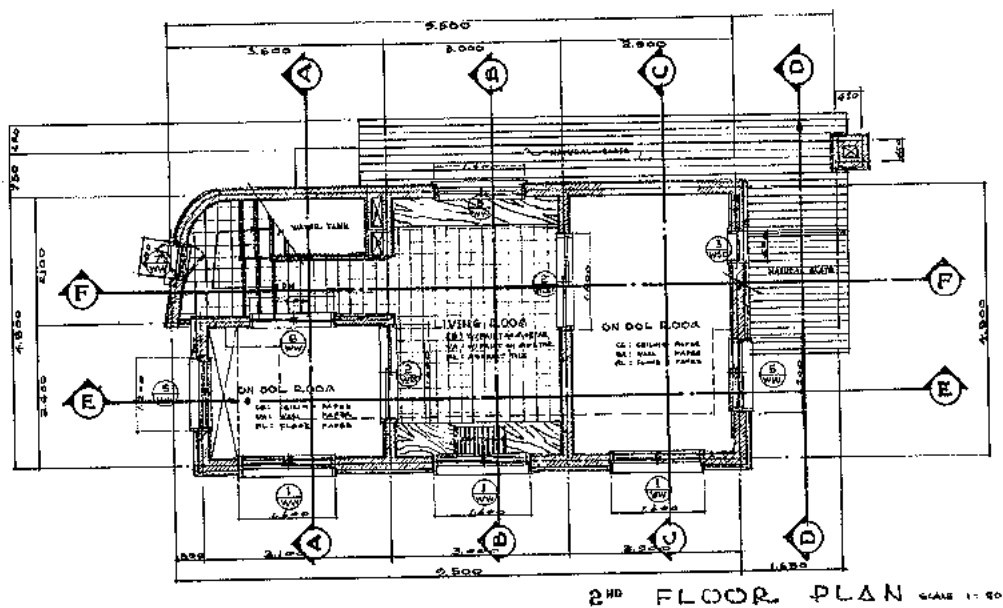
SOUTH SIDE ELEVATION SCALE 1/2" = 1'-0"



MAIN SECTION SCALE 1/2" = 1'-0"



BASEMENT FLOOR PLAN



1970 Honor Awards

Report of the Jury

FRANCIS D. LETHBRIDGE, FAIA, Chairman
EDWARD C. BASSETT, AIA
NATHANIEL C. CURTIS JR., FAIA
HUGH NEWELL JACOBSEN, AIA
I. M. PEI, FAIA

1970년 수상 작품에 대한 심사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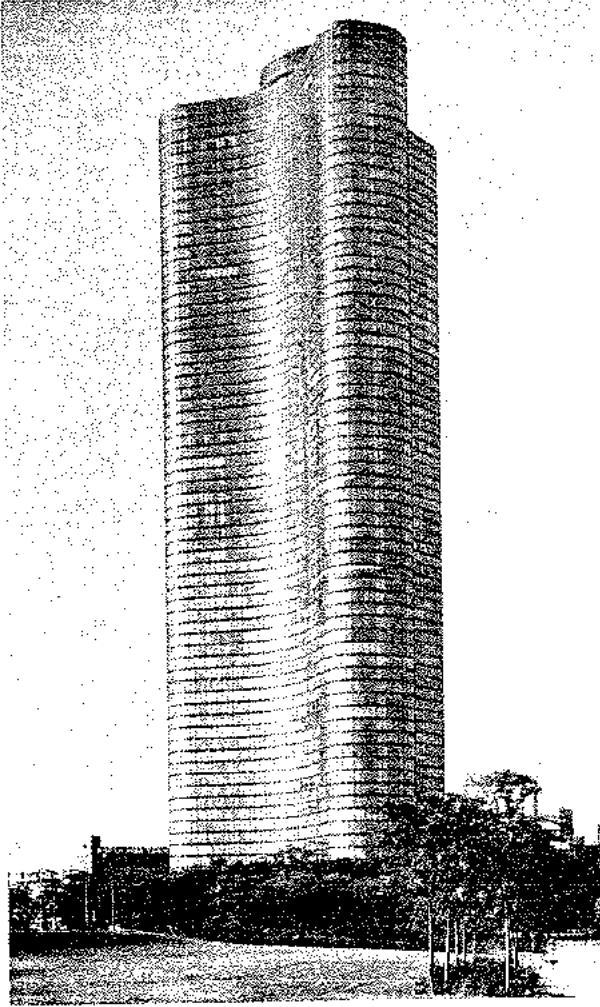
1949년 受賞計劃實施以後 多數의 登壇이 今年에 이루어졌다. 審査에 제출된 建物群과 478개의 건물 가운데 14개가 수상작품이 되었다. 美를 創造하기 위해 郊외주택에서 都市 center까지 범위가 광범 하였으나 경쟁에 考慮된 것은 단지 垞地에 처한 高層적인 가치 인식과 自然에 대한 照應으로서의 形態의 開發, 차원 높은 技巧, 美, 재미있는 것 등의 定義하기 어려운 것의 특징이었다. 작년에 設定한 先行條件에 따라 각 건물은 最終 選拔에 앞서 審査員의 적어도 한 사람에 의해 訪問되었다. 이는 形式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었다. 이 賞을 위해 제출된 예비 팀의 30%가 제출된 사진이나 평면이 적잖 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물건의 30%가 최종 견해에 의해 탈락되었다. 등록된 것은 일반적으로 良質이어서 발표 하기에 고무적이었고 꽤 까다로우지만 심사관의 임무를 즐거 움게 하였다. 어느 심사 조직도 결점이 없을 수 없으나 작품 선정과정이 한결같이 임 의적이고 인위적이라고 일소에 부치는 위험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위에 서술한 전제를 명확하게 해 놓았다. 심사원 각자가 각 개인별로 제출된 案을 조사하여 첫날과 3일간 계속되는 회의의 반을 미리 준비된 형식에 準해 노트와 점수를 매겼다. 적어도 심사원의 하나라도 특별하다고 인정한 것을 포함하여 5명의 심사원 全員이나 그 이하라도 높게 평가된 작품에 대한 점수가 매겨졌다. 2 내지 3점을 가진 모든 계획案의 색채슬라이드가 영사되어 전반적으로 검토되어 전부 심사에 의해 論議되었다. 1점을 얻은 작품과 더 얘기 될 수 있다고 심사원이 느낀 것은 이튿날 저녁에 검토되어 2점 이상을 얻은 작품들과 함께 영사되어 토론되었다. 으

20여의 유력한 수상작가들이 셋째날 선출되어 최종 수상을 위해 두달 후로 심사가 연기 되었다. 각 경우에 veto를 행사한 심사원은 없었고 다수결로 진행되었다.

4인의 소가족을 위한 저택은 현대에 있대에 있어 사회적으로 적합치 않다고 간주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스럽게 보일지도 모른다. 종합적으로 비인간적이고 부지 선택에 적절치 못한 많은 것들에 대한 건전한 해결책들이었다. 심사원은 대저택이 거의 없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들 중에 우수한 것도 노력이나 직업적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도시 생활의 쾌적이라는 견지에서 충분히 어울릴 수가 없었다. 개중의 채택된 작품은 도시 설계의 창조적 과정에서 물리적 자원을 보존하려고 하였다. 수상작가의 둘은 이런 범주에서 채택하였다. 하나는 중요하고 역사적인 공공건물의 재수용과 복고로 국가 문화재로서의 새로운 사용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건물의 재건으로 활력있는 상업센타로 어려움을 해소시킨 것이다. 수상 받은 우이하고 미끈하게 상세처리된 보행교는 도시 중심부내에 기존건물의 질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생시키는 것을 적응케한 시사적인 것이다. 두 개의 국민학교는 약간의 논평을 하고 싶은데 서로 완이하게 다르지만 그 개념과 실시에 있어 그 안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보내게 될 특별한 배려로 심사원의 주목을 끌었다. 둘 다 독특한 성질의 학교이다. 그 건물이 존재하는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가르치게 해줄 것인데 이는 앞서 얘기한 후자의 좋은 질의 정서와 정신으로 그 사회가 찾고자 하는 것이고 또 건축가가 할 수 있는 좋은 점을 내보내고 있다.

SCHIPPOREIT-HEINRICH,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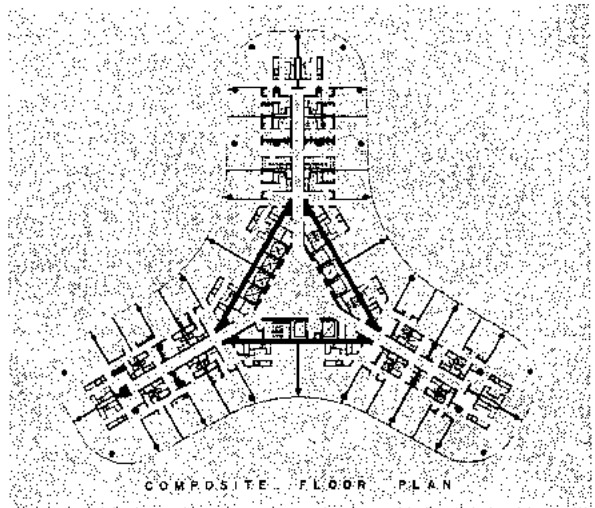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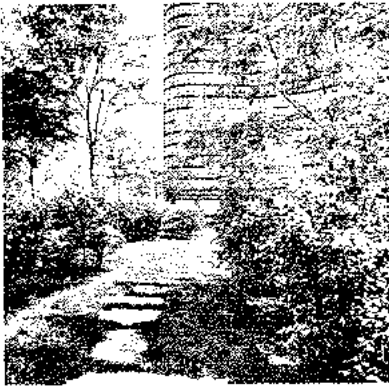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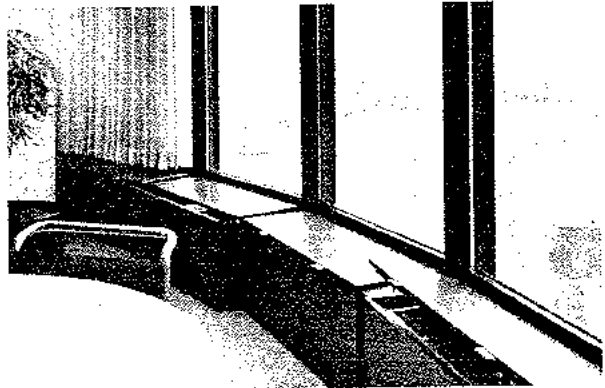
Lake Point Tower
Chicago, Illino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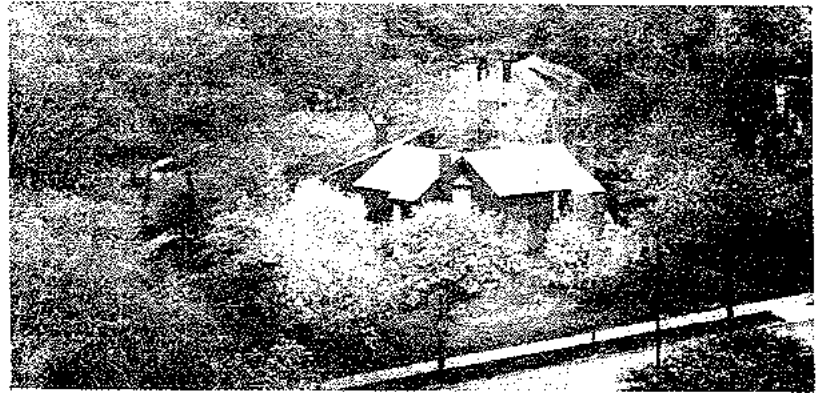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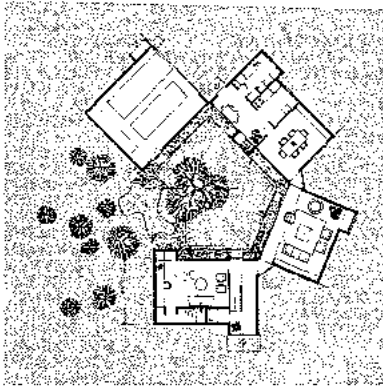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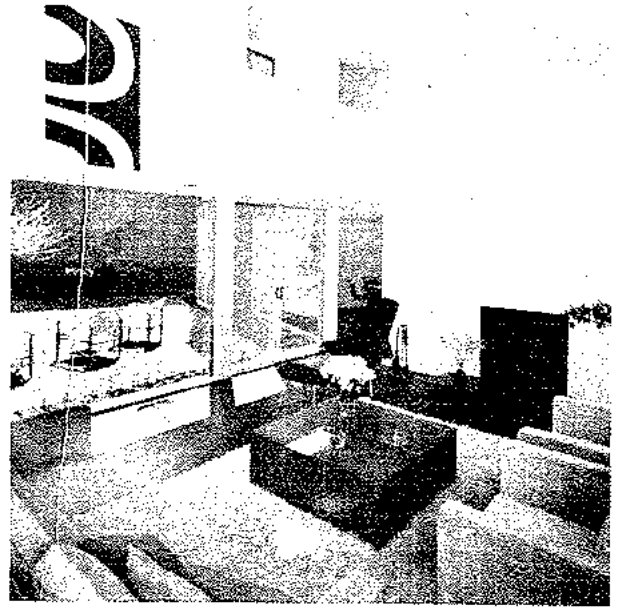
問題点: 700대의 주차장과 상업 및 위탁시설을 가진 아파트를 포함하며 自助施設을 갖춘 住居地域이며 수평으로 펼쳐진 광장은 장래 개발을 위해 유용케 하는 동시에 미시간호의 독자적인 기분을 살리고 도시 환경에 맞는 자연 공원을 고려하는 점들이다.

審査評: 형태와 배스의 우아함과 도시에 적합한 상세를 가진 높이 솟은 아파트 건물로서는 눈에 거슬린다거나 기계적이지 않고 건축물 이상의 것으로서 하늘과 광선에 照應하는 시각적인 도구를 창조했다.

Associated Architects: Graham, Anderson, Probst & White; Structural Engineers: William Schmidt & Associates; Mechanical and Electrical Engineer: William Goodman; Landscape Architect: Alfred Caldwell; General Contractor: Crane Construction Company.



問題点: 이웃하는 30~40년된 傳統的인 住宅들에 어울리는 現代的 residence를 짓는 것; 法規에 의한 道路로부터의 setback과 이웃집들의 넓적넓적한 配置등으로 해서 까다로운 地地條件 위에 건물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 10代の 두 子女와 夫婦로 구성된 家族이 프라이빗한 屋外生活를 즐길 수 있도록 프라이빗한 内庭을 제공하는 것. 심사위원의 評은 아래와 같다. "이 집은 그 간결함(simplicity)과 과묵함(understatement, 지저분한 설명이 불지 않고 표현에 있어 매우 삼가한다는 뜻)이 자칫 오해 받을 수 있는 집이다. 이 집은 소가 아닌 과중한 작업을 거친 결과임을 이해해야 한다. 흥미롭지만 좀 까다로운 地地, 이웃집과 어울리려는 노력, 屋外生活의 privacy, 짙은 예선과 충분한 living space의 요구 등이 아주 조용히 그리고 세심하게 훌륭한 밸런스 속에 形象化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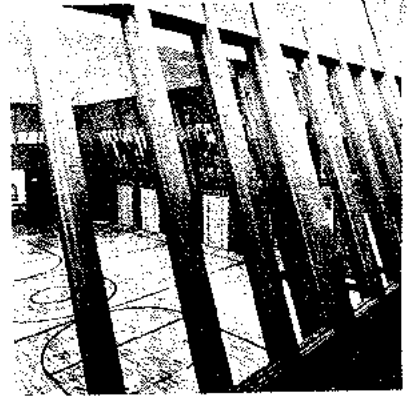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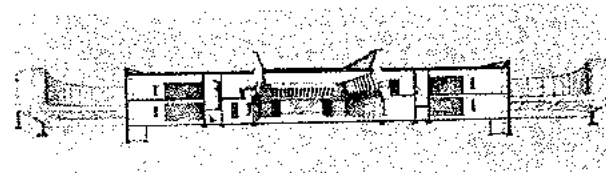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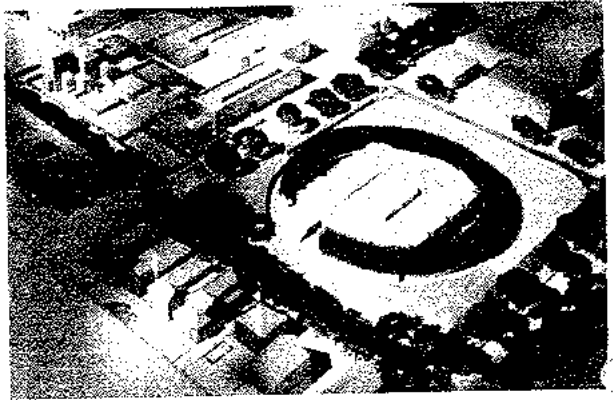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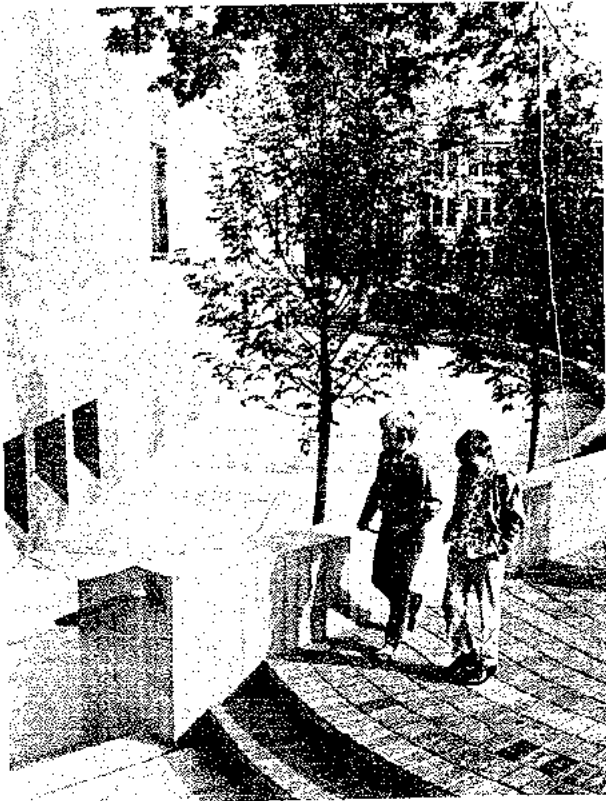


GUNNAR BIRKERTS & ASSOCIATES

Lincoln Elementary School
Columbus, Indiana

問題点 : 정신박약아와 신체 장애아를 위한 특수 학급이 딸린 콤팩트한 국민학교의 설계; 小都市 한 가운데에 있는 과적 넓지도 좁지도 않은 校地를 最大限으로 사용하여 多様な 機能을 가진 학교를 만드는것, 즉 公共의 集合場所, 市の 行事, 방과 후의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의 機能을 포함할 것; 校地와 建物들을 教育的 概念의 強한 表現을 위해 이용할 것, 즉 건물이나 운동장 및 놀이터가 활력을 주며, 약간 도전적이고 환상과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도록 할 것. 심사위원의 말씀, "치밀한 배려와 形式의 존중으로 좁은 校地 위에 건물과 校地가 서로 긴결되어 相互지지적으로 처리되어 있다. 그 중 어느 하나가 빠져도 성공치 못했을 것이다. 평면, 단면, 全般的인 展開, 細部處理에 이르기까지 매우 독창적이다. 학교로서 뿐만 아니라 自體의 고유한 스케일을 가진 환경 속에 합치하는 表面化되지 않는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Supervising Architect: Sieco, Inc.; Structural Engineers: Holforty, Widrig, O'Neill & King; Mechanical and Electrical Engineers: Hoyem, Basso, Adams & Martin; Landscape Architects: Johnson, Johnson & Roy, Inc.; General Contractor: Dunlap & Company,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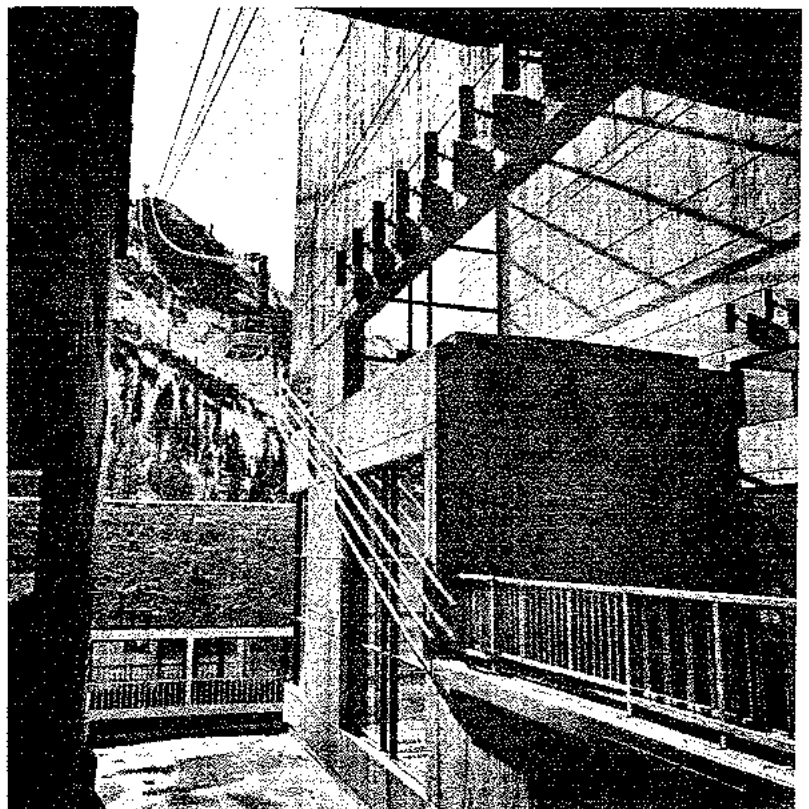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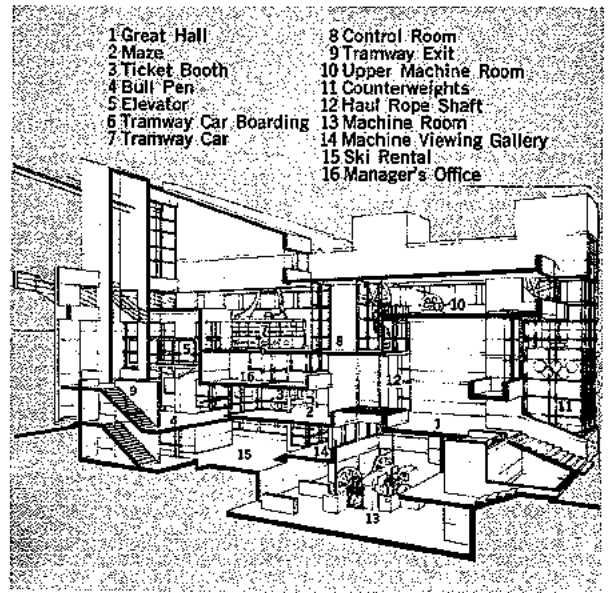


Squaw Valley Cable Car Terminal
Olympic Valley, California

問題点: 주차장에서 매표구를 거쳐 승강대까지 1시간에 1,100人이나 되는 스키어의 人波를 안락하고, 쉽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 주차장에서 승강대까지의 높이를 충분히 하여 기계실을 들어가게 한다. 카운터발란스의 샤프트는 비싼 방수처리가 필요없게 하며 모든 부분을耐火材로 하고 지진에 견디게 한다. 120人用의 케이블카가 2,000ft의 高度를 7,000ft 走行함으로써 5分만에 여정을 끝마치는데 이를 위한 기계장치가 들어가는 이 건물은 동시에 케이블카 組織의 앵커 역할도 한다; 부속 시설로 스키 빌려주는 상점 따위가 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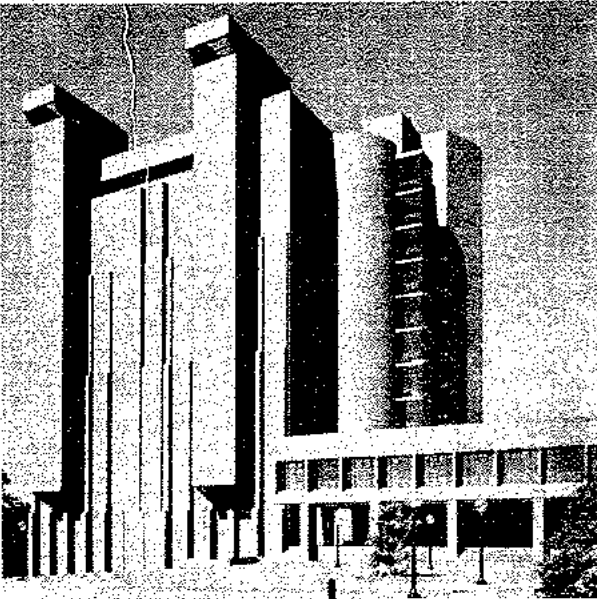
審査評: "이 건물은 훌륭히 작동되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능에 충실하다. 그러면서도 행색한 形態를 유지하고 있다. 케이블카라는 설비에서 발생하는 기계적 요건들과 스키어의 무리를 처리해 나가야하는 조건들을 명확히 해결하고 있다.

Structural Engineers: Abraham Woolf & Associates; Mechanical Engineers: T. Genovesi Associates; Electrical Engineers: Thompson Engineering Company; General Contractor: Campbell Construction Company.



ULRICH FRANZEN & ASSOCI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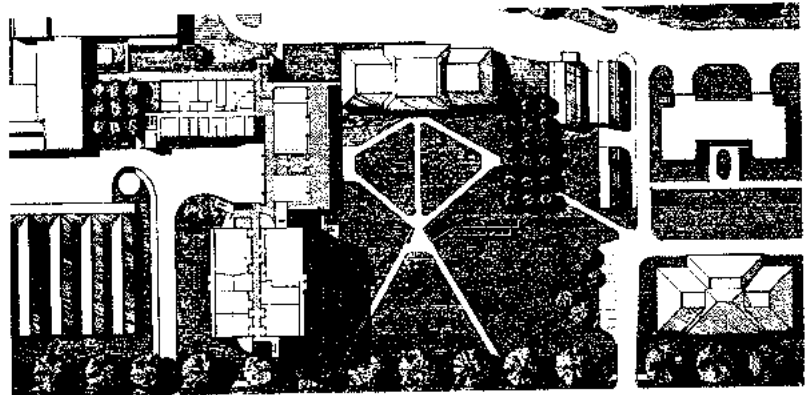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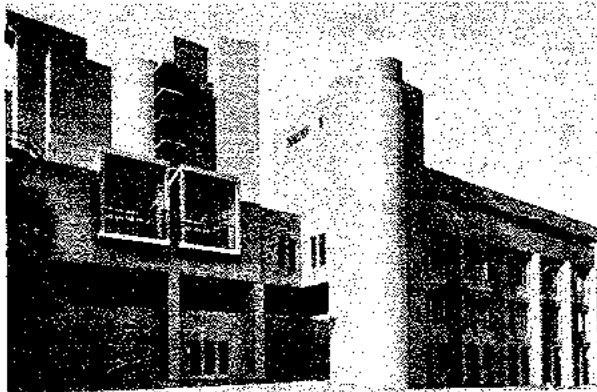
Bradfield and Emerson Halls
Cornell University
Ithaca, New York



問題点: 210,000ft²의 총면적 속에 大學院 研究實驗室, 行政事務室, 大學 實習實驗室, 기타 관련있는 空間들을 포함한 건물들을 한정된 예산으로 세우는 것; 환경조절의 효율화, 연구실의 用途에 따른 융통성, 종합적이고 집약적인 設備組織, 공기조화, 이런 것들이 융통성있는 모듈의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런 모듈은 기존 건물과의 연관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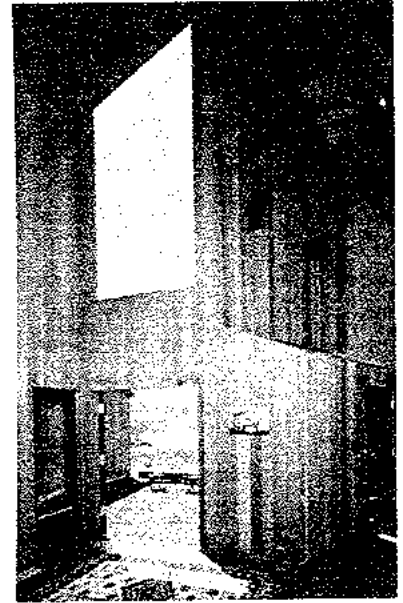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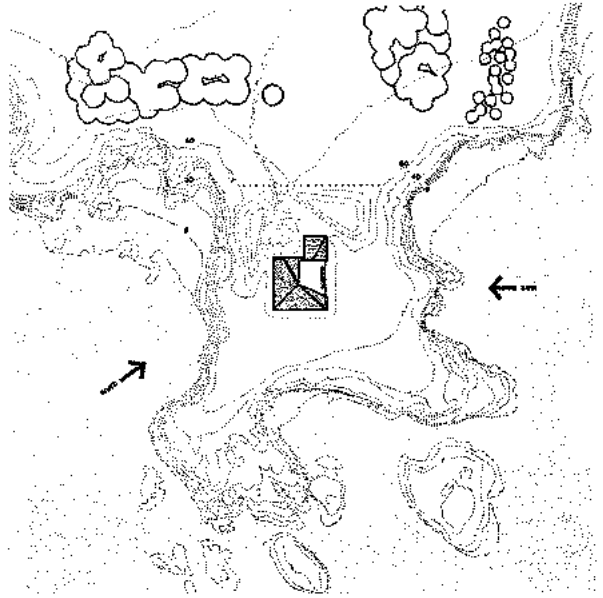
審査評: "훌륭한 작품이다. 형태와 디테일이 모두 신념과 재주 속에 이루어져 있다. 그 위에 작가의 강한個性이 각 부분 부분에 나타나 있어 결코 피력스럽지 않으며 따라서 박물관 집에서 느끼는 단조로움과 靜的인 古典主義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Structural Engineers: Weiskopf & Pickworth; Mechanical and Electrical Engineers: Cosentini Associates; General Contractor: Irwin & Leighton,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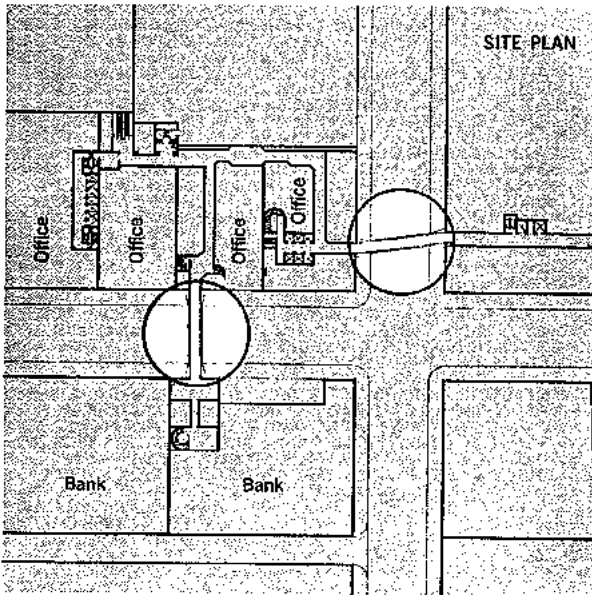
問題點：太平洋으로 내뻗친 반도 위, 장엄한 自然 속에 12 餘人을 위한 별장을 참한 모습으로 세우는 것. 형태가 自然 을 제압하려드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겸손한 모습으로 선다는 것이 중요하다. 여름철에 불어오는 北西風으로부터 집 이 보호되면서 patio를 이루도록 배치시킨다. 동시에 여러 층의 연령이 함께 혹은 분리되어 생활할 수 있게 집을 조직 한다.

Structural Engineers: Hirsch & Gray; Mechanical and Electrical Engineers: O'Kelley & Schoenlank; General Contractor: Matthew D. Sylvia.



THE CERNY ASSOCIATES,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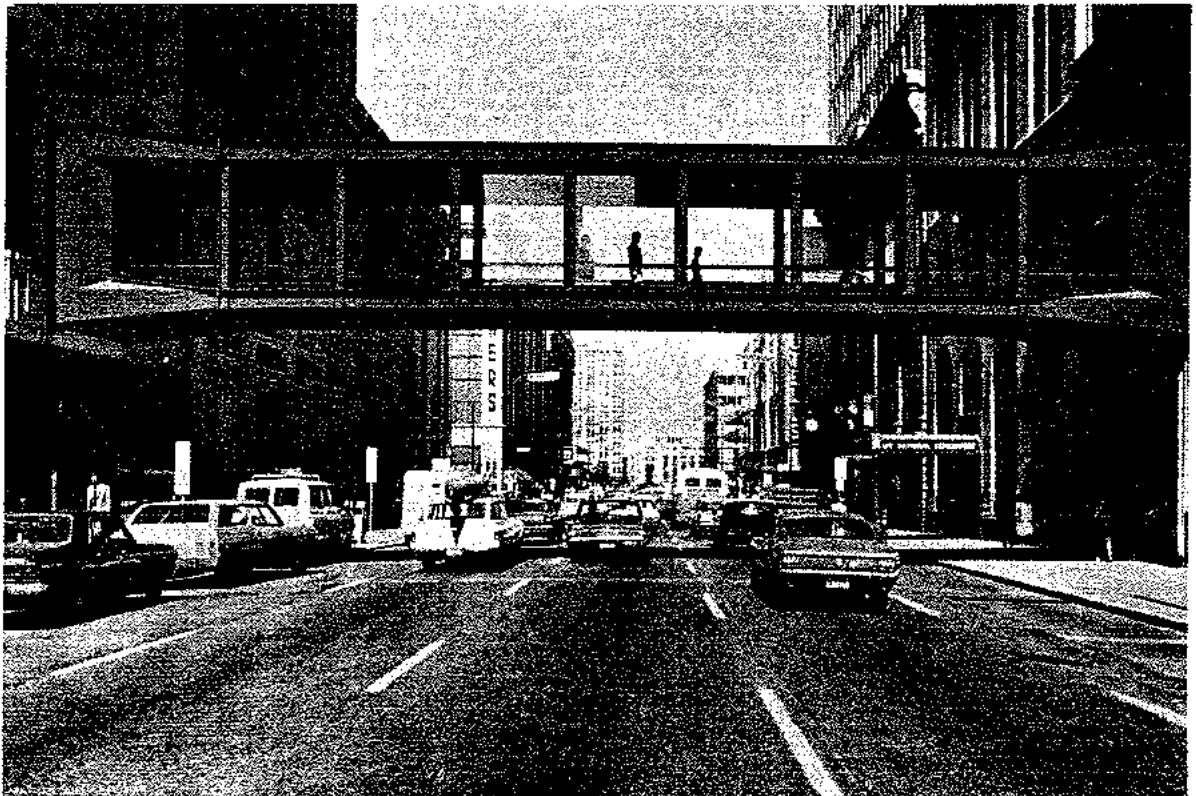
Pedestrian Skyways
Minneapolis, Minnesota



問題點：太平洋으로 내뻗친 반도 위, 장엄한 自然 속에 12 餘人을 위한 별장을 참한 모습으로 세우는 것. 형태가 自然 을 제압하려드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겸손한 모습으로 선 다는 것이 중요하다. 여름철에 불어오는 北西風으로부터 집 이 보호되면서 patio를 이루도록 배치시킨다. 동시에 여러 층의 연령이 함께 혹은 분리되어 생활할 수 있게 집을 조직 한다.

審査評：아름다운 自然 속에 집을 세울때 그 집이 얼마나 겸손하게 주위의 自然에 어울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집이 다. 평면이나 상세처리에서, 요란스럽지 않은 창문들, 그중 제일 중요한 요소가 피라미드 형태의 지붕이겠다. 집의 덩 어리들이 서로 강력히 결속되면서도 땅에 착 붙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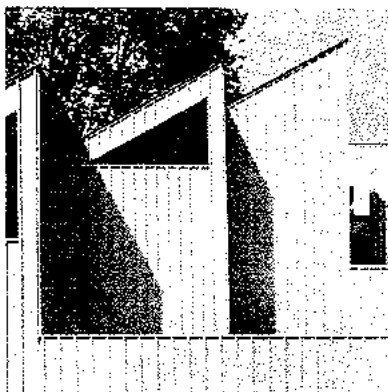
Structural Engineers: L. J. Meisch & Associates; **Mechanical and Electrical Engineers:** The Cerny Associates, Inc.; **General Contractor:** Naugle-Leck, Inc.



問題点: 조그만 교외 부지위에 3 세대를 위한 가정을 콜드락의 이론에 의한 내리막길에 지워진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外界로부터의 最大の 保護壁으로 집의 내부와 외부를 확보시키고 오픈-스페이스를 내부로 연결시키는 동시에 외관 설계에 있어 이웃의 시제와 단절된 매스를 고려할 것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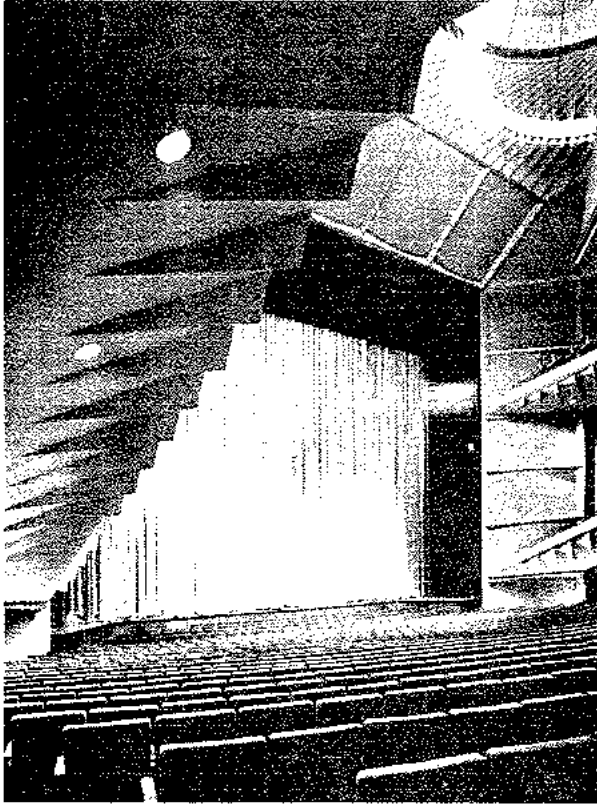
審査評: 거의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대지에 의해 부과된 문제와 계획과정에서 직접 뚫출해 나온 단지 한번의 설계로 된 소주택이다. 평면과 단면이 독창적일 뿐 아니라 굉장한 재간이 있었다. 개성적이고 진보적인 건축적 처리와 옆집의 크기와 질을 유지시키며 또 집안에 내재하는 두 큰 나무를 잘 묶어 준다.

Structural Engineer: James Madison Cutts; **Landscape Architects:** Stock Brothers; **General Contractor:** Lester Schel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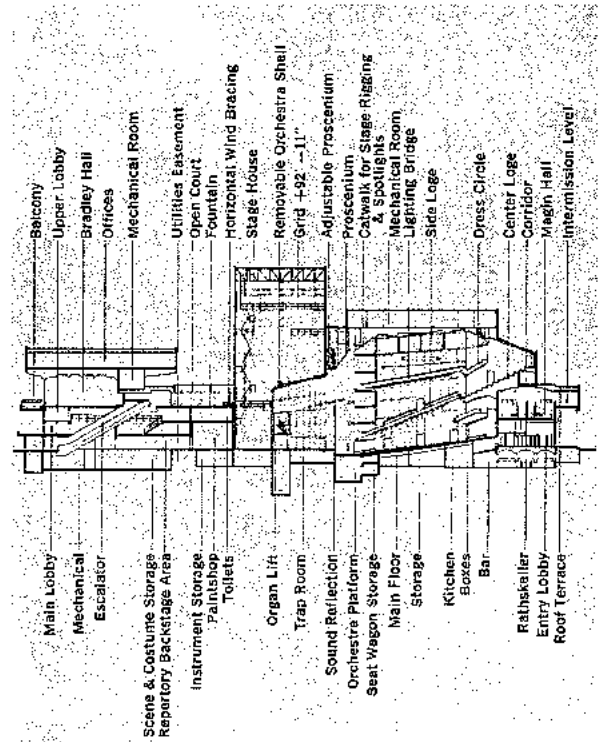
HARRY WEESE & ASSOCIATES, LTD.

Milwaukee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Milwaukee, Wisconsin



審査評：都市の인 環境에서 매우 중요한 文化的 複合기능을 가진 大規模의 건물로서 넓은 콘서트홀, 작은 뮤직 패일버, 극장, public space, 레스토랑, 부속의 사무실 등이 모두 하나의 지붕 밑에 들어간다. 江總이라는 대지조건을 잘 살리고 건물의 외부가 제주있게 처리되어있다. 특히 건물 내부 공간이 축제일 같은 즐겁고 흥분시키는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이렇게 내부공간의 분위기를 인상적으로 만드는 능력은 우리 주위에 흔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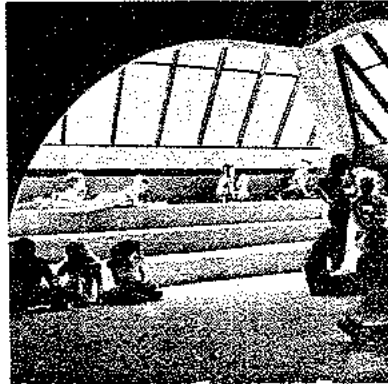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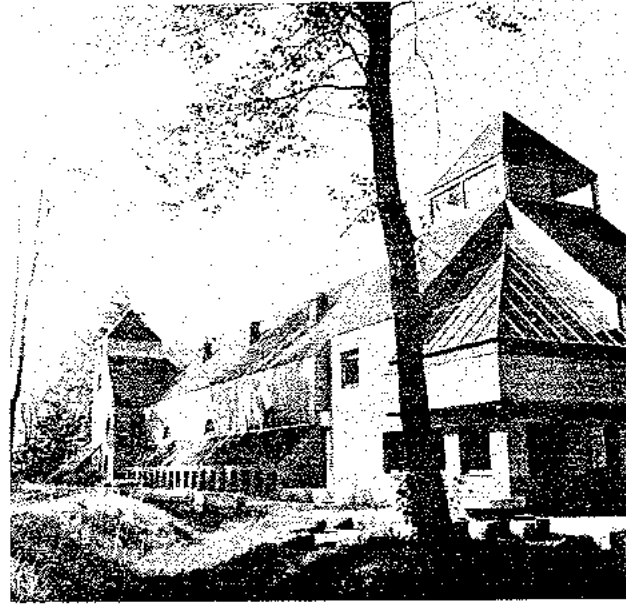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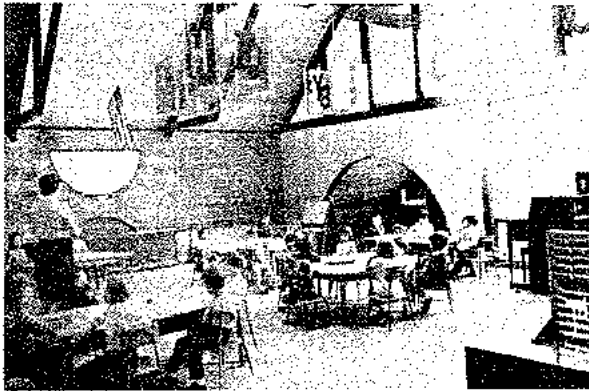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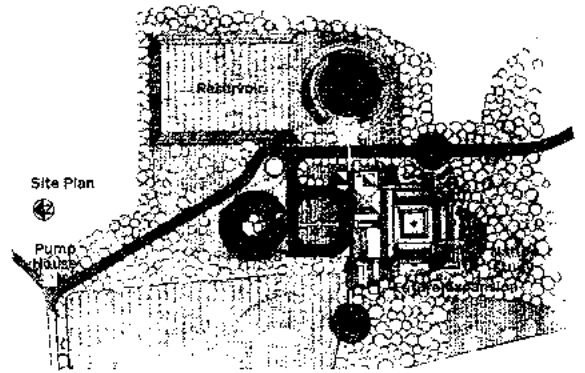
Structural Engineers: The Engineers Collaborative; **Mechanical and Electrical Engineers:** S. R. Lewis & Associates; **Theater Design & Technology Consultants:** George C. Izenour Associates, Inc.; **Interiors Consultants:** Dolores Miller & Associates; **Landscape Architects:** Office of Dan Kiley; **General Contractor:** Klug & Smith Company.



問題点: 精神박약아와 身体장애아를 爲한 特別空間과 유치원 6 학급을 포함한 正常的인 아이들 550名을 爲한 국민학교다. 세 두층 깊이의 교실과 아래 도서관의 자유스러운 융통성을 강조하고 교실과는 분리되되 일반들에게는 편의가 제공되는 시청각도구들, 교무실, 카페테리아, 체육관등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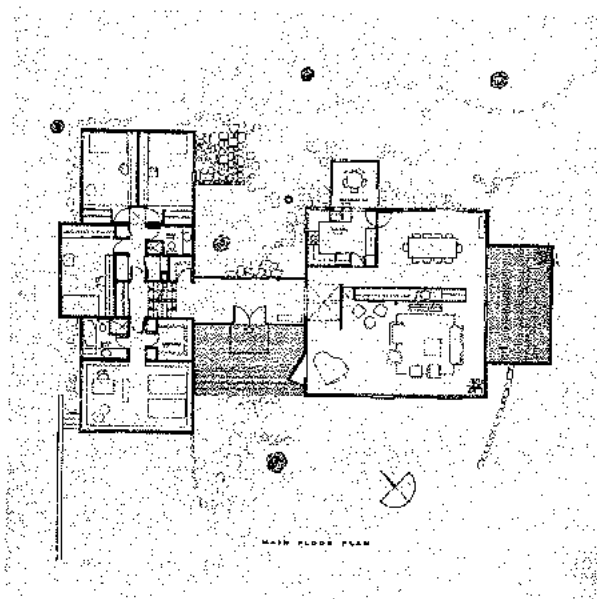
審査評: "우리는 이 건물에서 큰 기쁨을 발견한다. 이 건물은 어린이들 세제의 환상과 이미지를 잘 조정하고 있다. 어떤 건물이 그 사용자에게 만족한 것이 일단 된 후에 그 건축적 가치가 남는다. 이것은 대단히 험한 건물이다-이집은 특별히 커멘트 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

Structural Engineers: LeMessurier Associates, Inc.; **Mechanical Engineers:** Carvounis Associates; **Electrical Engineers:** John W. King & Associates; **Landscape Architect:** William D. Warner; **General Contractor:** Leominster Engineering Co., Inc.



DONALD E. OLSEN, AIA

Ruth Residence
Berkeley, California



問題点: 예산이 적은 다섯 가족의 주택이나 70feet 길이의 다리에서 끝 바로 보이는 空間感이 있는 집이어야 했다. 사방으로 뿌리와 가지가 뻗어 있는 거대한 참나무를 보존해야 했고 주인실은 옆방은 물론 어린이들의 침실로부터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했다.

問題点: 북 캘리포니아의 역사적인 유산과 관련된 좋은 집이다. 확실하고 정확한 형태의 처리, 공간의 질 그리고 일반적인 상재물이 보인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고전적인 생활양식이 표현되어 있다. 敷地위에 우아하게 위치했고 밖으로 쉽게 편히 나갈 수 있게 되어있고 위의 숲으로 자연스런게 시야가 뒤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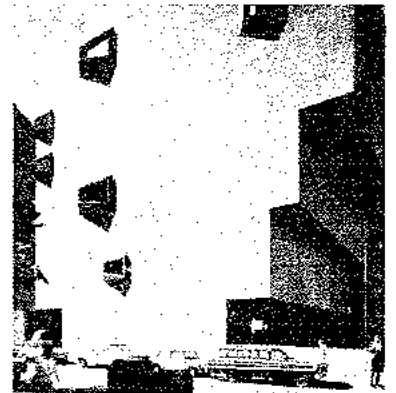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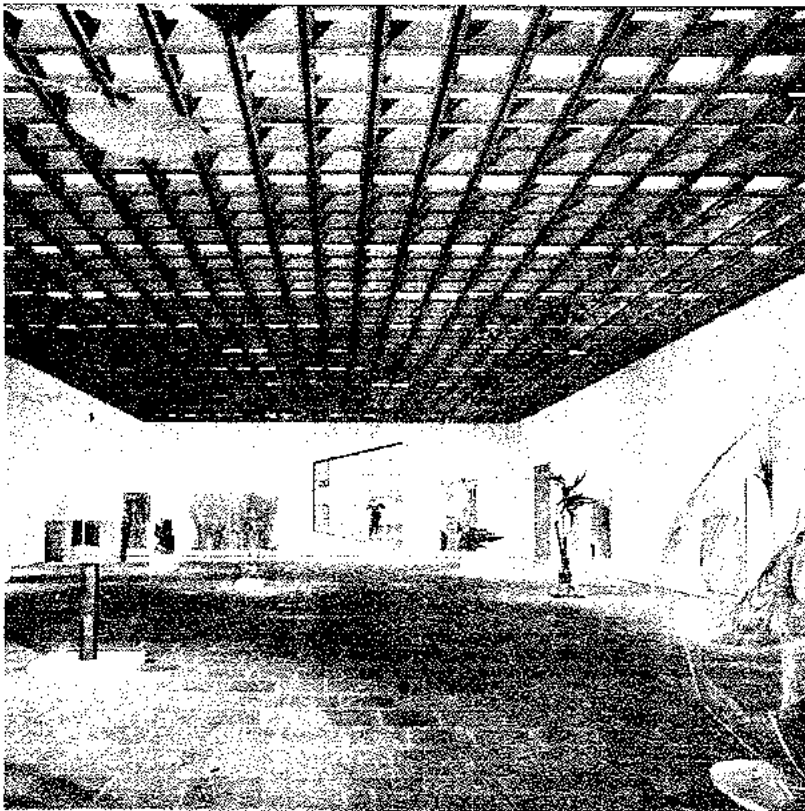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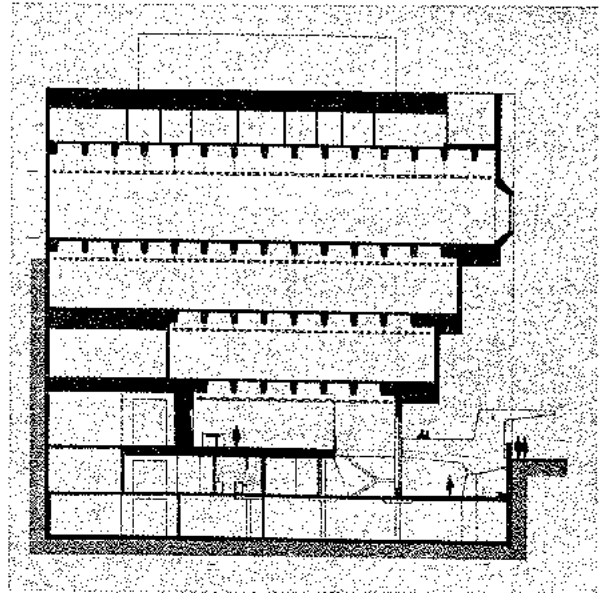
Structural Engineer: Jack N. Kositsky; Landscape Architects: Peter Walker and Sasaki, Walker & Associates; General Contractor: Charles Mee.



問題点: 영구적인 美術의 컬렉션보다는 계속 바뀌는 展示會들을 담으려는 것이어서 이것이 이 美術館의 哲學과 計劃과 詳細를 결정하였다. 可動 칸막이와 융통성 있는 照明의 導入은 모든 새로운 展示를 가능하게 해 준다. 그리고 비교적 적은 규모 (100×125 ft)의 建物を 거대한 大都市内の 敷地에 잘 조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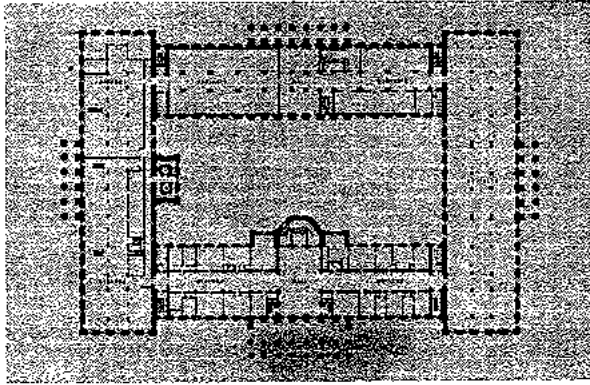
審査評: “形態와 空間의 대담한 구사다. 산뜻한 재료의 적절한 사용과 아름답게 처리된 부분들이 탁월하다거대한 展示홀은 특별히 성공적이고 매력적인 場所다”고 말했다.

Consulting Architect: Michael H. Irving, AIA; Structural Engineer: Paul Weidinger; Mechanical and Electrical Engineers: Werner-Jensen & Korst; General Contractor: HRH Construction Corporation.



FAULKNER, STENHOUSE, FRYER & FAULKNER

National Collection of Fine Arts
and National Portrait Gallery
Washington, D. C.



問題点: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州廳舍 建물을 박물관으로 변형시키되 건물이 풍기고 있는 근본적 성격을 변형시키지 않을 것. 외관은 될 수록 그대로 살리고 내부는 그리스 의 리바이벌이나 빅토리아풍으로 하되 전기, 공기조화, 耐火 등 현대적 메카니즘을 최대한 도입한다는 까다로운 條件 이다.

審査評: 그동안 여러번 철거당할 뻔한 이 역사적 유물이 생 각있는 사람들에 의해 보존되어온 결과 드디어 현대에 공헌 하는 훌륭한 건물로 한 몫 하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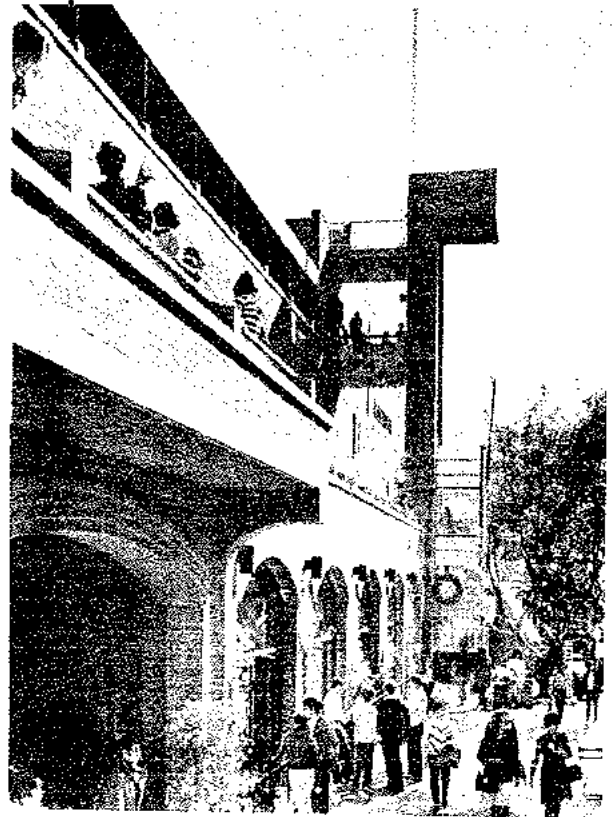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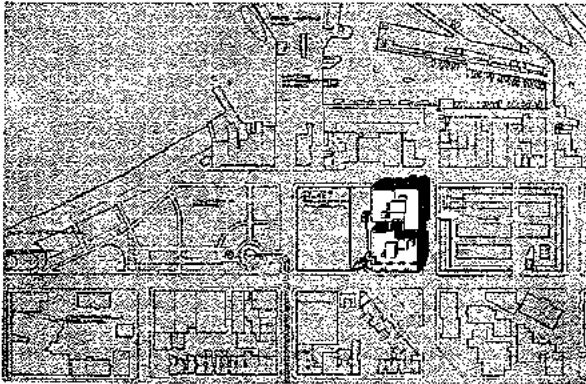
Design Consultants: Victor Proetz (deceased) and Bayard Underwood; Structural Engineers: Gongwer & Kraas; Mechanical Engineers: Wilberding Company, Inc., Egli & Gompf; Lighting Consultants: Stanley R. McCandless (deceased) and Wm. M. C. Lam & Associates; Landscape Architect: Lester A. Collins; General Contractor: Grunley-Walsh Construction Co.



問題点: San Francisco 中央에 있는, 石造의 창고건물 및
층을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명량한 장소로 만든것. 레
벨에 차이가 있는 屋外 마켓트, 에스컬레이트, 넓은 계단,
屋外の 에레베이터 등을 둔다.

審査評: 많은 제약 속에서도 환상적인 분위기를 이룬 훌륭
한 修理計劃이다. 각종의 수퍼그래픽과 애니메이션으로 장
식된 상점들과 그속을 오가는 사람들의 흐름에 의해 집이도
리어 돋보인다. 現代建築의 좋은 점이 過去가 쌓아온 기존
가치 속에, 그 친밀함과 눈에 익은 형태 속에 잘 적응되 어
단순한 새로운 이상을, 그리고 과거 이상을 이루어 놓았다.

Structural Engineers: Rutherford & Chekene; Mechanical Engineers:
K. T. Belotelkin & Associates; Electrical Engineers: Edward S. Shinn
& Associates; Landscape Architects: Thomas Church & Associates;
General Contractor: Greystone Builders.



建築法解説

건설부 건축과장 박 우하

III. 建築法の 解説

1. 建築法の 目的

法第1條(目的) 이 법은 建築物의 垜地, 構造, 設備의 基準 및 用途에 關하여 規定함으로써 公共福利의 增進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이 法律은 條文에서 規定한 目的으로서 建築物의 垜地, 構造, 設備, 用途等에 關한 各種事項에 對하여 最低의 基準을 定하여 法の 適用을 받는 建築物을 造成하며 또한 여기에 부수되는 工作物을 設置할 때에도 이와같은 行爲는 定해진 基準에 必要한 限度內에서 制限을 받게 되는 것이다.

2. 法令의 構成

建築法の 內容과 目次는 다음과 같이 構成되어 있다.

第1章

總則(第1條~第8條)

第2章

建築物의 垜地, 構造 및 建築設備(第9條~第26條)

第3章

道路 및 建築線(第27條~第31條)

第4章

地域 및 地區안의 建築物의 制限(第32條~第38條)

第5章

建築物의 面積 및 높이(第40條~第41條)

第6章

監督(第42條~第45條)

第7章

雜則(第46條~第53條)

第8章

罰則(第54條~第58條)

3. 法令의 適用

(1) 適用對象物

A. 建築物, 그 垜地 및 設備

이法 第1條에서 規定한바 「建築物의 垜地, 構造, 設備의 基準 및 用途에 關하여 規定」한다고 되어 있다. 即 이法 適用對象物에는 法第2條第2號에 規定된 建築物로서 土地에 定着하

는 工作物中 지붕이 있고 기둥 또는 壁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施設과 公衆의 用에 供하는 觀覽施設과 同法施行令第5條에서 規定한 地下나, 高架의 工作物에 設置하는 事務所, 店舖, 興行場, 倉庫等을 말하며, 學校, 病院, 劇場, 觀覽場, 百貨店, 舞廳場, 公衆浴場, 市場, 旅館, 共同住宅, 奇宿舍, 工場, 倉庫, 貯藏庫, 屠殺場等 特殊建築物과 法第2條第1號의 垜地로서 上記한 建築物과 用途上 不可分の 關係가 있는 垜地 및 建築物에 設置하는 電氣, 電話, 가스, 給水, 配水, 排水, 換氣, 暖房, 冷房, 消火, 또는 汚物處理의 設備나, 굴착, 昇降機, 避雷針, 國旗揭揚台等(法第2條第4號)의 對象物을 揭記하고 있다.

B. 其他 準用되는 工作物

굴착, 廣告塔, 高架水槽, 裝飾塔 擁壁, 其他 이와 類似한 工作物로서 構造의 強度, 防火性能이 重要視되는 것은 이法에서 規定되지 않았더라도, 이法 施行令第129條의 規定에 依하여 이法에서 規定한 對象物과 같이 適用對象이 되는 것이다.

(2) 例 外

그러나 前記한 對象物中에서도 그 存在의 特殊理由로 因하여 除外되는 것이 있다.

即 法第3條第1項의 文化財保護法에 依한 國寶文化財, 民俗資料, 史蹟, 名勝, 天然 記念物 및 美術品은 이法이 適用되지 아니한다.

(3) 適用對象區域

이法은 大韓民國 全城에 適用되는 것이나 都市計画法適用都市區域 및 邑級以上の 都市와 道路法の 規定에 依한 1級國道 및 2級國道の 中心線으로 부터 兩側 500미터의 區域外에서는 適用되지 않은 것이 原則이고 다만 法第5條第1號乃至第3號에 該當하는 建築物(特殊建築物用에 供하는 延面積 100平方미터 이상의것, 延面積이 300平方미터 이상이거나 3층이상의 목조의 建築物, 延面積이 200平方미터 이상이거나 2층이상의 木造以外的 建築物)은 이法の 適用을 받으며 法第5條 但書規定에 依한 防火地區外에서 建築物을 增築, 改築할時 그 增築, 改築하는 部分의 延面積이 10平方미터 이내인 것

인 境遇에는 事前申告하는 外에 모든 建築物은 이법에 依한 規制를 받게 되는 것이다.

上記한 內容을 簡單히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都市計画法適用都市區域
2. 邑級以上の 都市區域
3. 道路法の 規定에 依한 1級國道 및 2級國道の 中心線으로부터 兩側 500미터 區域안
4. 其他區域

1~3의 區域안에서는 建築法第5條 第1号~第4号에 該當하는 建築物은 建築許可의 對象이 되는 것이다.

다만, 防火地區外에서 建築物을 増築 改築할時 그 部分의 延面積이 10平方미터 이내인 것인 境遇에는 申告하도록 되어 있다. 4에 該當하는 區域안에서는 建築法第5條第1号~第3号에 該當하는 建築物은 建築許可의 對象이 되는 것이다.

(4) 適用對象이 되는 行爲

建築物의 築地, 構造, 設備가 法適合性を 띠며 建築物을 새로이 築造하며 혹은 工作物을 附加하는 行爲 即 新築, 増築, 改築, 再築, 移轉, 重要變更, 用途變更等의 行爲는 이법에 依한 規制對象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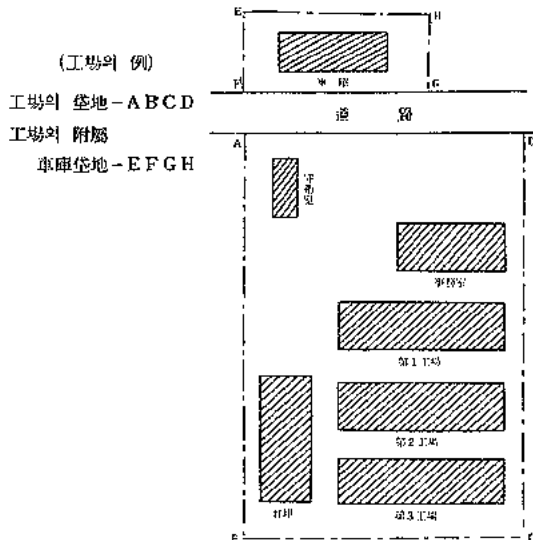
令第1條(目的)

이수는 建築法(以下法이라한다)을 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法第2條(用語의 定義)

이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築地”라함은 하나의 建築物 또는 用途上 不可分の 關係에 있는 둘以上の 建築物이 있는 一團의 土地를 말한다.



2. “建築物”이라함은 土地에 定着하는 工作物中 地盤 및 기둥 또는 壁이 있는 것과 이에 附隨되는 施設과 公衆의 用に 供하는 觀覽施設 地下 또는 高架의 工作物에 設置하는 事務所, 公演場, 店舖, 倉庫와 其他 大統領으로 定하는 工作物을 말한다. 다만 鐵道 또는 軌道の 線路敷地內에 있는 運轉保安施設, 跨線橋, 플랫폼의 地盤과 當該 鐵道 또는 軌道事業用 給水, 給炭, 給油施設은 除外한다.

土地에 定着하는 工作物中에서

(a) 지붕이 있고 기둥 또는 壁이 있는것.

(b) (a)에 附屬하는 門 또는 담장

(c) 觀覽을 爲한 工作物

(d) 施行令 第5條에 規定된 工作物等의 建築物을 말하며 이중 「觀覽을 爲한 工作物」이라함은 競技場의 觀覽席과 같은 것으로서 이를 利用하여 觀覽하기 爲한 工作物을 말하는 것이며 記念塔, 廣告塔과 같이 觀覽시키기 爲한것은그 것이 (a)에 該當되지 않은限 建築物의 概念規定에 該當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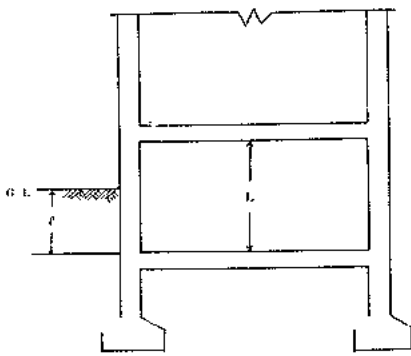
3. “特殊建築物”이라함은 建築物中 學校, 病院, 劇場, 觀覽場, 百貨店, 舞蹈場, 公衆의 用に 供하는 浴場, 市場, 旅館, 共同住宅, 寄宿舍, 工場, 倉庫, 貯藏庫, 車庫, 火葬場, 屠殺場, 其他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建築物을 말한다.

그 用途의 特殊性으로 말미암아 管理가 特別重要視되는 建築物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建築物을 말한다.

4. “建築設備”라함은 建築物에 設置하는, 電氣, 電話, 가스, 給水, 配水, 排水, 換氣, 暖房, 冷房, 消火, 또는 汚物處理의 設備나, 電梯, 昇降機, 避雷針, 國技揭揚台와 其他 이와 類似한 設備을 말한다.

5. “地下層”이라함은 바닥이 地表以下에 있는 것으로서 바닥으로부터 地表까지의 높이가 그 層의 天井의 높이의 3分の1 以上인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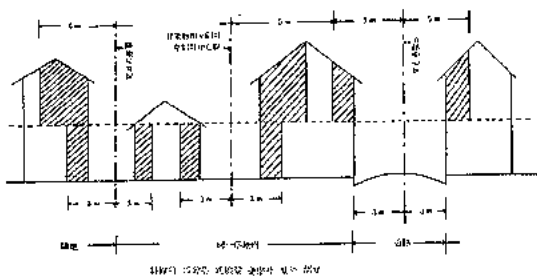
6. “居室”이라함은 居住, 執務, 作業, 集會, 娛樂, 其他 이와 類似한 目的을 爲하여 使用하는 房을 말한다.



室의 繼續의 使用目的을 例示하여 概念을 부여한 것이나 規定의 實例로서는 居室이라고 할 때가 많다. 普通의 住宅에 있어서는 玄關, 廊下, 階段室, 便所, 手洗所, 浴室 其他 이와 類似한 用途의 室은 居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7. “主要構造部”라함은 建築物의 構造上 重要部分을 이루는 壁, 기둥, 바닥, 들보, 지붕, 主階段 其他 이와 類似한 것을 말한다.

8. “延焼할 憂慮가 있는 部分”이라함은 隣地境界線, 道路中心線 또는 同一한 垓地안에 있는 2棟以上の 建築의 相互의 壁間의 中心線으로부터 1層에 있어서는 3미터以內, 2層에 있어서는 5미터以內의 距離에 있는 建築物의 部分을 말한다. 다만 公園, 廣場, 河川의 空地나 水面 또는 耐火構造의 壁 其他이와 類似한 것에 面하는 部分은 除外 한다.



9. “耐火構造”라함은 鐵筋콘크리트造, 煉瓦造, 其他 이와 類似한 構造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耐火性能을 가진 것을 말한다.

10. “防火構造”라함은 鐵網불탈바르기, 회반죽바르기 其他 이와 類似한 構造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防火性能을 가진 것을 말한다.

11. “不燃材料”라함은 콘크리트, 벽돌, 기와, 石棉板, 鐵鋼, 알루미늄, 유리, 물탈, 회, 其他 이와 類似한 不燃性의 材料를 말한다.

12. “建築”이라함은 建築物을 新築, 増築, 改築, 再築 또는 移轉하는 것을 말한다.

大修繕, 用途變更, 重要變更은 包含되지 않으며, 移轉은 同一垓地안에서 移轉은 意味하며 다른 垓地로부터의 移轉은 그 垓地가 새로운 垓地일때에는 新築이 되며 既存建築物이 있을때에는 増築이 되는 것이다.

13. “大修繕”이라함은 建築物의 主要構造部에 對한 重大한 修繕을 말한다.

大修繕이라함은 壁體, 기둥, 지붕, 또는 基礎의 過半의 修繕 또는 이에 準하는 構造上 主要한 部分의 修繕을 말한다.

14. “重要變更”이라함은 建築物의 主要 構造部의 形態를 變更하는 것으로서 特히 重要한 것을 말한다.

15. “道路”라함은 幅 4미터 以上の 道路와 다음에 揭記하는 것의 하나에 該當하는 予定道路로서 幅 4미터 未滿의 道路로서 市長(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 郡守가 指定한 道路도 또한 같다.

가. 都市計劃法, 道路法, 其他關係法令의 規定에 依하여 新設 또는 變更에 關한 告示가 되었거나 市長, 郡守가 指定한 道路.

나. 建築許可를 할때에 市長, 郡守가 그 位置를 指定한 道路.

道路라함은 幅 4미터 以上の 既存道路와 都市計劃法 道路法, 私道法等의 規定에 依하여 新設 또는 變更의 告示가 된 計劃(予定) 道路와, 建築許可時에 建築線으로 指定한 道路 및 幅 4미터 未滿의 道路로서 市長, 郡守가 指定한 道路를 말한다.

16. “地域”이라함은 都市計画法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地域을 말한다. 地域은 都市計画法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되고, 이는 用途地域制라고 하며, 住居地域, 商業地域, 工業地域, 綠地地域, 混合地域等の 地域으로 區分되어 指定하고 있다.

17. “地區”라함은 都市計画法의 規定에 依하여 設定된 地區를 말한다. 地區는 都市計画法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하고 있으며 都市計划區域 안에서 風致地區, 美觀地區, 防火地區, 教育地區, 高度地區, 臨港地區, 業務地區, 再開發地區等を 設定하고 있다.

18. “原動機”라함은 電動機, 蒸氣機關, 蒸氣터빈, 가스機關, 石油機關, 其他 內燃機關과 水車를 말한다.

電動機(Electric Motor); 모터

蒸氣터빈: 蒸氣機關의 1種으로서 펌프를 때어 蒸氣를 發生시키고 이를 噴射시켜서 그 蒸氣가 가진 열에너지를 運動에너지로 바꾸고 다시 이 蒸氣의 運動에너지에 依하여 날개바퀴를 회전시켜서 機械에너지로 바꾸는 機械를 말한다.

蒸氣機關: 물을 끓여서 만든 水蒸氣로 움직이는 原動機의 1種類로서 往復運動을 하는 蒸氣原動機이다. 例: 氣關車

石油機關(Petroleum Engine); 가솔린에 다음가는 휘발성을 가진 등유를 燃料로 하는 1種의 기화식기관으로서 농공용으로 쓰인다. 構造는 가솔린 機關과 큰 差가 없으나 가솔린보다 훨씬 간단한 기화기를 가지고 주로 10馬力 以下の 단(單)기통기관이 많다.

內燃機關: 熱을 機械의인 일로 고치는 裝置를 一般의으로 熱機關이라고 하는데 그中 內燃機關이란 것은 기통안으로 燃料과 空氣를 直接 넣어서 이것을 壓縮하고 燃燒시킴으로서 생긴 高壓으로서 피스톤을 밀어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19. “容積率”이라함은 建築延面積의 基地面積에 對한 比率을 말한다.

容積率이란 建築延面積과 基地面積의 比率임으로 例를들어 住居地域의 容積率이 400%라함은 建築할 수 있는 建築延面積이 基地面積의 4倍가 된다.

令第2條(定義)

이규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構造耐力上主要한 部分”이라함은 壁, 기둥, 基礎, 지붕틀, 土台, 斜材(가새, 버팀대, 귀잡이, 其他 이와 類似한 것을 말한다) 또는 橫架材(보, 도리, 其他 이와 類似한 것을 말한다)로서 建築物의 自重이나, 積載荷重, 積雪, 風壓 土壓이나 水壓 또는 地震其他의 震動이나, 衝擊을 支持하는 것을 말한다.

2. “耐水材料”라함은 벽돌, 自然石, 人造石, 콘크리트, 아스팔트, 陶磁器, 유리, 其他 이와 類似한 耐水性의 建築材料를 말한다.

3. “新築”이라함은 空地에 새로이 建築物을 築造하는 것을 말한다.

増築, 改築, 再築等の 用語와 대비되는 것으로 新築이란 종래建築物이 存在하지 않는 基地에 새로이 建築物을 築造하는 行爲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既成建築物이 있는 基地內에 別棟으로 建築物을 築造하더라도 이것은 新築이 아니고 増築이 되는 것이다.

4. “増築”이라함은 既成建築物이 있는 基地內에 있어서 다시 建築物의 建築面積, 바닥面積, 容積 또는 延長을 增加하는 것을 말한다.

既成建築物自體의 建築面積, 바닥面積, 容積, 또는 延長을 增加하는 것은 勿論 増築이나 既成建築物과 連한 다른 別棟의 建築物을 築造하는 것도 増築에 屬한다.

5. “改築”이라함은 建築物의 1部 또는 全部를 撤去하고 다시 現在基地에 築造하는 것을 말한다.

改築이란 現在基地에 建築物을 築造하는 行爲

를 말하며 既成建築物을 撤去하여 그 材料로서 別途의 土地에 建築物을 築造하는 境遇 그 새로운 土地에 既成建築物이 있을 때에는 増築이 되는 것이고 既成建築物이 없을 때에는 新築이 되는 것이다.

6. “再築”이라 함은 災害에 의하여 燬滅한 建築物을 그 土地에 築造하는 것을 말한다.

經徹한 火災 때문에 기둥의 1部를 바꾸는 것은 大修繕이라고 한다.

7. “移轉”이라 함은 建築物의 主要構造部를 撤毀하지 아니하고 다른 位置에 移轉하는 것을 말한다.

8. “建築主”라 함은 建築物의 建築, 大修繕 또는 重要變更工事의 都給契約의 注文者 또는 都給契約에 依하지 아니하고 自作으로서 建築物의 建築, 大修繕 또는 重要變更工事を 하는 자를 말한다.

9. “設計者”라 함은 設計圖書를 作成하는 建築士를 말한다.

建築士라 함은 建設部長官의 免許를 받아 建築物의 設計와 工事監理等の 業務를 行하는 자를 말하며, 建築士의 等級으로서는 1級 建築士와 2級 建築士로 區分 되어 있다.

10. “設計圖書”라 함은 建築物의 建築, 大修繕 또는 重要變更, 建築設備의 設置 또는 工作物의 築造에 關한 工事用的 圖面 및 示方書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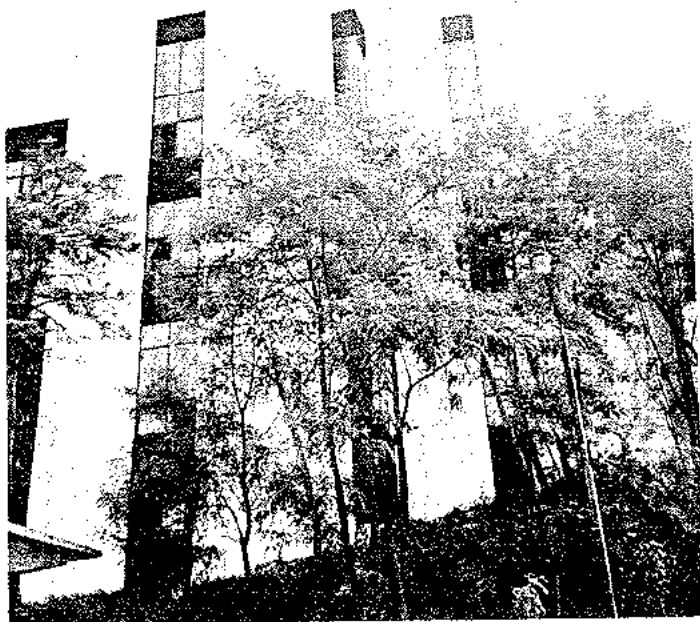
11. “標準設計圖書”라 함은 規格화된 材料로 住宅을 建築할 수 있게 하기 爲하여 建設部長官이 作成한 工事用設計圖面 및 示方書 및 見積書를 말한다.

12. “工事監理者”라 함은 建築士法第2條 第3項의 規定에 依한 工事監理를 하는 建築士를 말한다.

13. “工事施工者”라 함은 建築物의 建築, 大修繕 또는 重要變更工事의 受給人 또는 都給契約에 依하지 아니하고 自作으로 工事を 하는 자를 말한다.

現代建築

THE KOREA ARCHITECT



現代建築

9 10

購讀申請 서울特別市 龜山区 龜洞

8-109 ④ 1225

定期購讀 6個月 2,000원

앙케이트를 받고의 所信

會長 姜明求

우리들의 建築士協會 發展을 爲하여公私 多忙하신 中에도 좋은 眞實된 意見을 予算하였든, 以上の 많은 會員께서 보내주셔 無限한 感謝를 드립니다.

앙케이트를 綜合하여 公式적으로 얻은 여러분의 意見을 迅速히 實踐하기 爲하여 以下와 같은 結論을 얻게 된 것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① 會지에 對하여는

좀더 輒 넓게 會員들과 呼吸을 같이 하기 爲하여 會自體의 消息을 더 擴大하며 손쉽게 參考가 될 만한 作品을 重點적으로 다루어 三個月 乃至 四個月만에 特輯號를 發刊하기로 編輯委員會와 合意를 하여 十一月號부터 곧 實行할 予定입니다.

② 支部 運營에 對하여

各 支部에 곧 反映되도록 할 것입니다.

③ 本部 運營에 對하여

本誌 卷頭에도 言及되어 있는 바 許多한 難關을 여러분의 協力으로 이루어 볼 決心으로 處하고 있습니다.

④ 建築士法 第二十二條 削除에 對하여 事實 이 앙케이트의 核心이 이 問題였으니 이 問題만 가지고 앙케이트를 내면 오히려 對外的으로나 對內的인 不利한 立地에 處하기에 여러 說問을 절드려 붙었던 것입니다. 이 問題야말로 저의 九百五十餘 全 會員의 生死가 달려 있는 重要한 問題로 第一 궁급하던 일이 別票와 같은 大多數의 會員이 要求되는 條目으로 必死的인 努力을 마음 든든히 할 수 있는 事業으로 이 역시 우리 建築士協會 自體의 體質改善이라는 큰 難關을 이겨나감으로서 더욱 든든한 協會 發展을 期할 수 있음을 再次 覺醒해 주시기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⑤ 1, 2級 建築士制度 廢止에 關한 意見은

이 問題는 厂代로 물려 내려오던 重大한 事業으로서 이번의 設問은 오히려 混線만을 이끈 것을 大端히 송구스럽게 生覺합니다. 이 問題에 關하여는 昨年에 會長으로 就任時부터 여러모로 努力을 아끼지 않았읍니다. 마는 現在 建設部의 處地로서는 90% 以上 可望이 보이지 않으므로 角度를 달리하여 現在 實施하고 있는 建築法 또는 監理業務의 實行等으로 우리나라 建築士 全員數가 日本에 比較하여 絶對不足數인 建築士로서의 完全한 建設事業을 감당키 어려운 實情을 數字적으로 当局에 提示하여 二級 建築士의 業務量을 大幅 늘여 줄 것과 層數의 制限 완화라는 方向으로 現在까지 結論을 얻지 못하였으나 매우 希望的인 進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于先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제27·28회 이사회(임시)

(1970. 10. 5 본회의회의실)

출석 회장 강명구, 이사 김동규, 강봉진, 이봉로
결석 이사 김진천, 한창진

참석 서울지부장 송관식

○보수기준개정

건축사 업무의 보수기준개정의 골자는

1. 제5표(건축공사비 기준표) 삭제
 2. 현행설계 요율표 7종을 5종으로 축소하고
 3. 이러므로써 다수회원업종인 1종이 2종과 합쳐 2종요율을 적용받게 되고
 4. 7종은 5종으로 흡수(요율은 6종적용) 계획에 따라 강봉진이사 이외제기가 있었음
- 이에 건설부 당국은 7종에 이의가 있으면 2종으로 합치는 1종을 중선의 1종으로 환원, 즉 중선대로 1종~7종을 그대로 적용할 방침임으로 강봉진이사 대의를 위하여 양보함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수일 지연 되었으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수일내로 건설부인가가 날것임.

○인천분소 김양규회원 피소사건

10월3일 강명구회장 인천 현지 출장하여 김양규회원 피소사건을 조사함바

1. 설계미스(인접 건축물의 안전도를 조사치 않았다는 이유)
 2. 감리불이행 등 이유로 피소된 바 이는 중대한 문제임으로 건축사의 신축인 집 건축물의 안전도 조사등의 의무
- 여부를 건설부에 유권해석 회신을 받아 고문 변호사와 합작하여 변론에 임하도록하다.

제29회 이사회(임시)

(1970. 10. 13)

출석 회장 강명구 이사 강봉진, 이봉로
결석 이사 한창진, 김진천, 김동규, 이봉로
참석 감사 구윤희
성원미달로 유회

企劃委員會議

·日時 1970年 10月 2日

二 場所 本會會議室

三 出席 李奉魯, 서울 부산, 全南支部長, 申鉉大, 李明煥, 閔丙運, 愼珩範, 金萬盛간사

四 결석 金鎮千, 서울支部 總務 指導幹事 金原安, 尹太鉉, 金技泰, 黃漢柱, 張宗律

五 參席 會長 강명구 金東珠理事 案件

1. FY70 2회사업세출追加更正예산(안)
2. FY71 예산(안)
3. FY71 사업계획(안)
4. FY71 예산편성지침 및 과목해소

1. 追更예산(안)

會誌發刊의 6회가 12회로 배가됨에 따른 광고로 增収收入 900,000원을 재원으로 경비부 족액을 충당 결의

2. FY71 사업계획(안)

22조 존속을 적극 推進토록 하고 原案대로 결의

3. FY71 예산(안)

가. 세입

1. 入會費 1人當 100,000원(실수에 따라 증감)
2. 月定會費 " 1,000원(충전 500원)
3. 入會費와 月定會費는 본부 70% 지부 30% 비율로 책정
4. 其他 所要財源은 會員數 비례의 실적회비로 충당하기로 결의

나. 세출

協會의 發展을 위해 수용비(급여, 사무비) 서각감·사업비에 다량 증액조치기로 결의

예산점유율(전체예산에 대한)

	FY 71	FY 70
1. 급여, 사무비	38.4%	50.76%
	(9,030,400)	(10,617,100)
2. 사업비, 출판비	30.1%	24.53%
	(7,070,000)	(5,371,800)

支部長 會議

1. 日時 1970年 10月 12日
2. 場所 本會 會議室
3. 出席 서울, 부산, 경기(대리), 강원(대리), 충북, 충남(대리), 전북, 전남, 경북, 경남(중도 퇴장) 제주 지부장
4. 參席 會長 강 명구 李 奉魯 金 鎭千 理事(도중 퇴장) 兪 允會 감사
5. 案件
 - 1, 71年度 제 2 회 追更예산(안)
 - 2, " 사업계획
 - 3, " 예산과목 해소 및 예산편성 지참
 - 4, " 예산(안)
 - 5, 定款改正(案)
 - 6, 其他事項

1. 追更豫算(案)
기획위원회 심의안대로 결의
2. 사업계획(案)
기획위원회 안대로 결의
3. 예산과목 해소
이봉노 기획위원 안대로 결의
4. 71年度 예산(안)

7. 歲入

- ① 入會費 1人當 100,000원(실수에따라 증감)
- ② 月定會費 1人當 1,000원(500원)
- ③ 入會費의 月定會費는 본부 70% 지부 30% 비율로 책정

- ④ 실적회비는 현 년도와 동일액으로 할 것을 결의

L. 歲出

기획위원회 심의안 대로 결의

5. 定款改正(案)

7. 정관제21조 3항(대의원 비례)

5대 1을 10대 1로 결의

L. 정관제43조(지부총회)

"단, 회원수 300명 이상인 지부총회는 회원 3분의 1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삽입결의

1. 회원 경조 소식

9. 7. 본회 김 인모 감사 자당 별세
18. 김 추환 회원 엄친 회갑
24. 서울지부 김 만성 간사 엄친 별세
26. 본회 김 진천 이사 장녀 결혼
29. 현 종탁 회원 동생 결혼
10. 7. 천 수청 회원 자당 별세
11. 엄 주남 회원 절녀 결혼
14. 이 정일 회원 결혼
17. 이 명환 회원 자당 절손
17. 서울지부 성 일영 간사 결혼
17. " 종부 간사 이 규복 동생 결혼

2. 본회 방문

8. 17. 일본국 건축사 시찰단 13명 "일본 건축물 및 EXPO70 관계서적 1권 기증받음
8. 26. 대만성 건축사 시찰단 21명 "대만 도시계획 및 건축물 관계서적 1권 기증받음

3. 일본 건축사회 연합회와 서신 교류

1. 공사비에 대한 설계감리 보수요율표(신요율) 1매 기증받음
2. 건축사 업무의 보수 규정 1권 "
3. 건축사 법 관계 법령집 1권 "
4. 임원 래회 회수 (일수)

성명	별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회장 강명구					25	20	16	14	19				94
이사 강봉진	미				6	4	2	1	3				16
" 김동규					7	7	7	4	9				30
" 김진천					20	12	4	2	2				40
" 이봉노			상		25	20	13	1	6				65
" 한창진					9	6	3	3	4				25

5. 후기 친목 낙시 대회

서울지부주최 1970년 10월 3일 회원 후기 친목낙시대회를 충남 천원군 목천리 방죽에서 실시 대회 1등상에 "경석구" 회원이 차지

협회기사 · 회원동정

신입회원

황갑선 (황갑선 건축설계사무소)

서대문구 교북동 4-33

박삼진 (뉴-건축설계사무소)

중구 도동 3-106(삼주빌딩319호)

22-2176~9

김영일 (양지 건축설계사무소)

서대문구 대현동 67-5

33-4939

김인배 (강희 설계사무소)

중구 남대문로 5가25

23-6255

홍사천 (주식회사 서울건축사 합동기술공사)

홍사천 건축연구실)

중구 다동 131

28-8362

사무소 이전

이영근 (정한 기술연구소)

중구 북창동 19-3

24-4235

28-7469

이호진 (삼원사 건축설계사무소)

중구 남대문로 5가 17-3

74-3813

74-3814

김영복 (천역수 건축공사)

성북구 미아동 160

93-8005

김관현 (우미 건축설계사무소)

동대문구 신설동 102-4

92-9136

주영근 (신도 건축사무소)

성동구 신당동 267

54-5332

마산시 중앙동 2가 1 (前 부산지부)

이차규 (이차규 건축설계사무소)

장우식 (동양 건축사무소)

울산시 부평동 8번지 (前 경북지부)

고석규 (신설 건축설계사무소)

진주시 본성동 86-1 (前 울산시)

회원예 대한 앙케이트

9월10일 전회원에 대하여 앙케이트를 실시한 바 425장의 공식적인 회신은 다음과 같다.

설문 1. 건축사 회지에 대한 의견

답 1. 국내 및 회원의 작품을 광범위하게 발표 요망 47%

2. 페이지를 늘여 대중화하고 협회 및 회원의 소식을 더 실리기를 요망 31%

3. 현재 대로 좋다 18%

4. 기타 4%

설문 2. 지부 운영에 대한 의견

답 1. 회원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노력 요망 62%

2. 현재 대로 좋다 18%

3. 회원의 실태를 더 이해하고 파악요망 12%

4. 기타 8%

설문 3. 본부 운영에 대한 의견

답 1. 회원의 권익을 위한 효율적인 활동요망 75%

2. 본·지부의 체계 확립강화 요망 11%

3. 기타 14%

설문 4. 건축사법제22조(도서등록)존속, 폐지

답 1. 존속 87%

2. 폐지 11%

3. 기권 2%

설문 5. 1급, 2급 건축사 등급제도(1급 2급을 그냥 存續한다)

답 1. 찬성 51%

2. 반대 42%

3. 기권 7%

법제 위원회

(대한건축학회주최) 1970. 10. 14.

위원장 박우하 (건설부 건축과장)

위 원 홍봉희, 강명규, 이문보, 김기태, 이 해성
박수연, 한정섭, 이천승

10

11

12

13

14



찬란한 햇빛과 부드러운 달빛을!!

밝기를 마음대로 할수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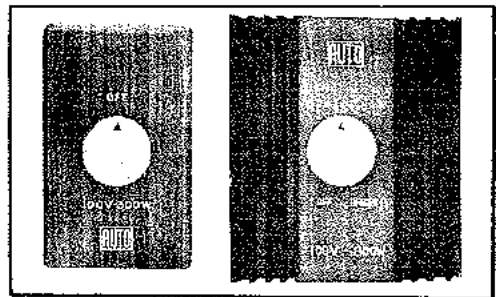
이것은 실내조명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Autolite 調光器는 이 꿈을 실현하였습니다.

■ Autolite 調光器는

전등의 밝기를 마음대로 조절할수 있는 전자 장치로서 외국에서는 Light Dimmer란 상품명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일반 실내조명·무대조명·호텔객실·병원·연회장 조명 등에 사용됩니다.

■ Autolite 調光器를 사용하면

보조등의 설치가 불필요 해지며 전력비를 절약할수 있는 경제적인 利点도 있습니다.



- 일반가정용에 적합한 <100V - 300W>
 - 연회장 조명에는 <100V - 800W>
- ※ 특수한 규격의 제품은 주문에 의하여 생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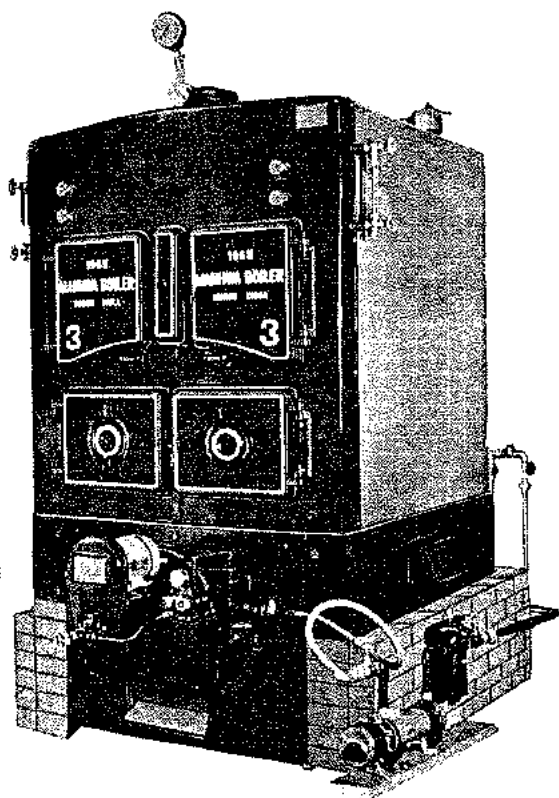
AUTOLITE



오토電子工業株式会社
서울시 중구 산림동 245 261630

MANHWA

오일바-나 사용 보일러 OIL BURNING BOI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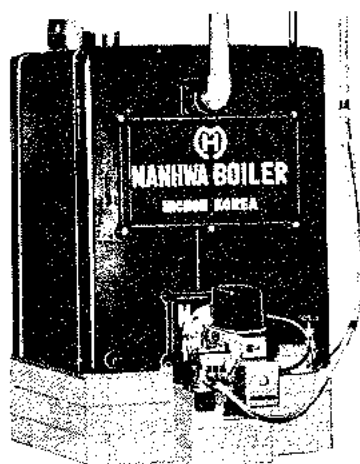


실용신안 등록특허 제 3579 호



특상 우수상에 빛나는 만화보일러

가정용 온수보일러



만화주물공업주식회사

본 사 : 인천시 남구 송의동 349
 인천 (2) 0930, 3491 (3) 1156, 1157
 서울연락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48의 3
 (22) 3716 (24) 1316 (28) 7716

韓國發明특허 (第2792호)

미 국發明특허 (U. S. PAT No. 3410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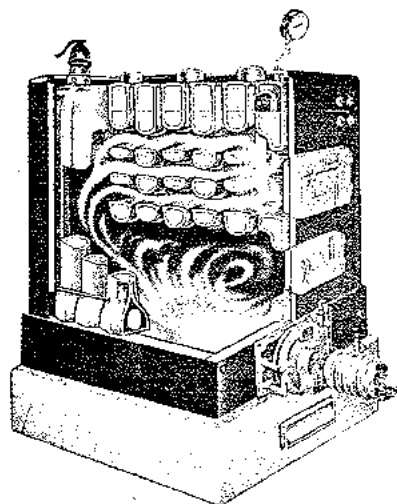
카나다發明특허 (카나다 No. 811463)

—*— 동진의 DZ보이라는 섹손을 지꾸자꾸로 조립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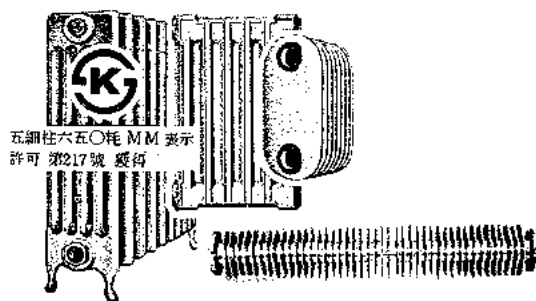
화상면적을 20%로 증가 시켰읍니다 따라서 전열면적이
30% 증가되어 연료가 절약되며 열공급이 빠르므로
경제적이며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대통령상 수상품)

東震ZZ型보이라



東震의 製品은 完全한
品質管理로 安心하고
使用할 수 있습니다.



◆ 製品 案内 ◆

- 低壓 섹쇼날 보이라
- 高壓 보이라
- 各種 放熱器
- 콘덴세이션 펌프
- 回轉式 蒸汽釜
- 眞空暖房 펌프
- 콘벡타
- 電氣 호이스트 크레인
- 住宅用 溫水보이라
- 로-타리 오일바나

東震鑄物製作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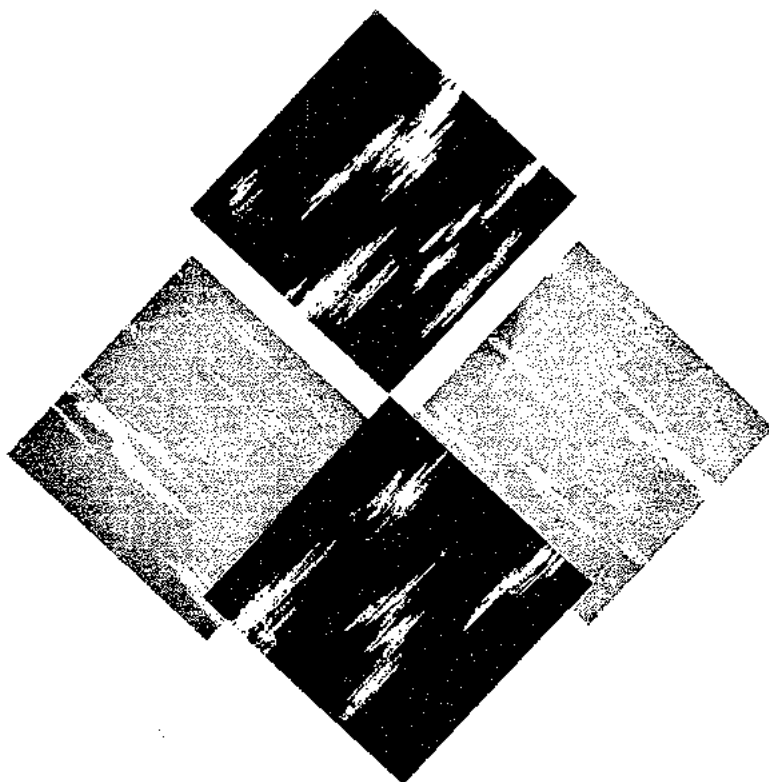
본사: 서울特別市 龍山区 元曉路 1 街 43 TEL. (交) 42-2221~5 番

부산지사: 釜山直轄市 中区 東光洞 1 街 1 番地 電話: 4-8284



大陸아스타일

TAE LYUK ASPHALT FLOOR TILE



12大受賞의建築材

大法院院長賞(最優秀賞)
 大經濟企劃院長官賞(優秀賞)
 大商工部長官賞(優秀賞)
 大建設部長官賞(優良賞)
 大서울特別市長賞(優良賞)
 大九年度서울特別市優良工産品賞(優秀賞)
 大鳳凰大賞(第一回消費者投票賞)
 大釜山産業博覽會賞(優秀賞)
 大遞信部長官賞(優秀賞)
 大서울特別市優良工産品賞(優秀賞)
 大韓建築士協會長賞(優秀賞)
 大韓建設協會長賞(優秀賞)

美聯邦規格의 美 8 軍納品

전통과 신용을 보장하는

아스타일 전문 메이커

大陸特殊고무工業社

서울特別市西大門區中林洞155 Tel. 23-7375 · 23-9860

Tae Lyuk Asphalt Tile Manufacturing Ind., Co.

155 Choong Nim-Dong, Sudaemoon-Ku

SEOUL, KOREA

便利하고 合理的인!

一實用新案 特許

第2845號 一

東光 DW 型 水管式 보일러

用途

政府廳舍、빌딩、호텔、病院、食品工場、
化學工場、製藥工場、纖維工場、沐浴湯、
機械工場、洗濯所 等 其他。

(受賞種別)

- 第一回全國優秀建設資材展示會에서 서울 特別市長 優秀賞
- 第二回全國優秀建設資材展示會에서 大韓建築士協會長 優秀賞
- 1967年度優良工產品生産獎勵會에서 優秀賞
- 第七回全國商品會에서 內務部長官의 優秀賞
- 第八回發明品展示會에서 國會議長의 最優秀賞
- 第九回發明品展示會에서 大法院長의 最優秀賞
- 上記展示會에서 商工部特許局長의 優秀賞
- 科學의 날 優秀한 機械 工產品의 發明으로 科學技術 振興한 功勞로 韓國 科學技術總聯合會長으로 부터 表彰狀을 받음.
- 原動機 技術賞審査委員會의 審査에서 特殊水管式보일러部門의 技術 開發과 振興에 寄與한 功勞로 國立工業研究所長 으로 부터 技術開發賞을 받음



主要納入處

大韓住宅公社
시온제과 Co.
自由선 타
產業銀行
大田皮革 Co.
서울여자學院
韓一染色 Co.
世宗호텔
中央産業 Co.
釜山鐵道廳

三岡産業 Co.
仁川園藝組合
國防部建設本部
春川聖心大學
美八軍洗濯所
大韓體育會
大韓重石 Co.
宇盛化學 Co.
東洋紡織 Co.
首都醫附屬病院

大韓染織 Co.
同和藥品 Co.
柳韓洋行 Co.
韓國유리 Co.
韓國나일론 Co.
大韓글크 Co.
淸溪商街아파트
大韓造船公社
올림포스호텔
웅당산호텔

호수호텔
韓獨商社 Co.
聖바오루病院
大興섬유 Co.
聖心綜合病院
大韓生命保險
公務院訓練院
林業試驗場
南大門警察署
大韓産藥

京畿農産 Co.
廣日빌딩
韓國洋灰
麗水觀光호텔
第一病院
自動車保險
새한빌딩
江原道庁
韓獨産藥
韓國산토리

東光보일러製作所

東光工營株式會社

代表理事 朴 鍾 泰

本社：서울特別市龍山區交培洞14의 1

電話 (42) 1673 (42) 9775-6

工場：서울特別市龍山區文培洞12番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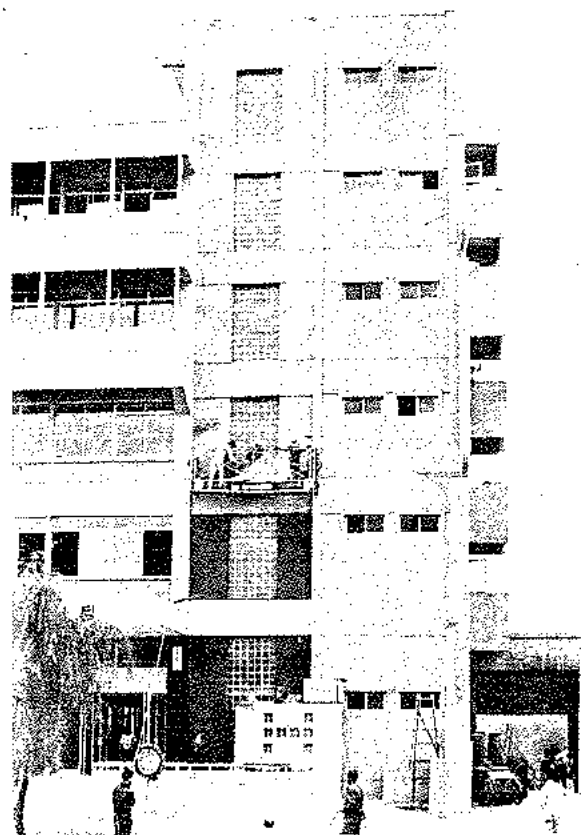
미국특허 # 505 - 863

새로운 건축자재의 혁신!

구미 각국에서 각광중인 内, 外装,
표벽재료 드디어 한국에 出現!

DECOR-CEM

(덱콜 - 썸) 을 소개합니다



덱콜시공 광경

어떠한 벨딩과 아무리 古屋
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금이
가지 않으며 다양한 색채로
매끈한 혹은 거친 디자인으
로 새롭게 완전방수 표벽화
합니다.

※ 防水, 방화, 방음, 凍結, 結
氷, 恒久性을 보장하며 쉽게
청소됩니다.

미국에서 建築業으로 전통과 기술을
자랑하는 ILLINOIS Rockford 에 있
는 U. S. DECOR-Cem inc 와 동남
아 특약과 기술제휴.

本 社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 가 20 의 5
(성산빌딩 203 호)

TEL. (54) 7569

工 場 : 서울 용산구 한남동 504 의 1

전시장 : 서울 동대문 신평화상가 2 층

TEL. (54) 7111 - 5 (16 번)

美덱콜 - 썸韓國支社
KOREA **DECOR-CEM** INC.